

觀光學博士 學位論文

실버관광객의 관광인식도 분석을 통한
실버관광활성화에 관한 연구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

慶州大學校 大學院

觀光學科

徐 江

2007年 6月

觀光學博士 學位論文

실버관광객의 관광인식도 분석을 통한
실버관광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慶州大學校 大學院

觀光學科

徐 江

2007年 6月

실버관광객의 관광인식도 분석을 통한
실버관광활성화에 관한 연구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卞 優 熙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觀光學科

徐 江

徐江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查委員長 印

審查委員 印

審查委員 印

審查委員 印

審查委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6月

오랜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사랑하는 저의 남편과 소영, 재형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감사의 글

오랜 여행길에서 돌아와 얻은 소중한 학문의 길, 한 구비를 이제야 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지도교수님 말씀처럼 논문을 준비하던 내내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박사과정 4년 동안 저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해 주실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직장인으로서 무사히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직장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문의 초입에 들어서면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끌어주신 변우희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석사과정 때부터 지금까지 늘 염려해주시고 학자다운 자세를 일깨워주신 김용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많이 부족하던 제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한걸음씩 내딛던 걸음마다 전하신 귀한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이 작은 지면을 빌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부족한 논문을 읽어주시고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신 조성원 교수님, 노정철 교수님, 구본기 교수님과 면 부산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 동명대학교 박종환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박사과정 내내 강의를 통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신 김규호 교수님, 양재준 교수님, 이창호 교수님, 정원일 교수님, 김만술 교수님, 주현식 교수님, 김광근 교수님, 하동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 내용이 더욱 알차도록 가르침을 주신 조현호 교수님과 유영준 교수님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대학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손낙조 교수님 내외분들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원 과정을 함께 한 선·후배님에게도 그리고 대학원 과정 내내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양가의 네 분부모님, 끝까지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곁을 지켜주신 남편 박상무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엄마의 부족한 사랑에도 잘 자라준 소영과 재형 두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더욱 많이 사랑해 줄 것을 다짐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잘 되기를 빌어주신 큰 형님 내외분과 시동생 내외, 동생 내외에게도 오래도록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 6월
서 강 드림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구성	7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실버관광의 개념 체계	10
1. 실버관광의 개념	10
2. 실버관광객의 현대적 특성	12
3. 실버관광의 산업적 전망	16
제 2 절 실버관광의 현황과 과제	21
1. 실버관광의 개관	21
2. 실버관광의 국내 · 외 현황 연구	26
3. 실버관광의 과제	39

제 3 절 실버관광 목적지의 잠재력 분석	59
1. 실버관광과 역사문화관광	59
2. 관광루트와 실버관광의 산업적 연계	63
3. 관광여가산업과 연계한 실버산업 잠재력	66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정립	70
1. 연구모형과 가설	70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개발	72
제 2 절 가설 설정	73
제 3 절 변수선정 및 조사방법 제시	77
1. 변수의 선정	77
2. 표본설계와 자료수집	79
3. 자료의 분석방법	80

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측정도구의 검정	86
제 2 절 가설 검정 및 결과해석	95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22
제 2 절 논의 및 한계점	125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차 례

<표 2-1> 선행연구에 나타난 실버연령	11
<표 2-2> 노인들의 소비행동 성향	14
<표 2-3> 실버산업 분야별 시장 규모	17
<표 2-4> 노인복지 및 실버산업(실버타운) 선행연구	19
<표 2-5> 역사문화 관광지에 관한 선행연구	22
<표 2-6> 국내 장래인구 특별 추계	23
<표 2-7> 국내 55세 이상 실버인구 개관	23
<표 2-8> 노인의 국내 및 해외여행	24
<표 2-9> 세계의 평균수명 현황	25
<표 2-10> 국내 실버시설 현황 비교	32
<표 2-11>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대상	34
<표 2-12> 일본의 실버산업 분야	36
<표 2-13>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상 실버시설의 종류	41
<표 2-14> 실버관광 정책 개발 가능성분야	42
<표 2-15> 실버관광객 관련 개발 가능성분야	43
<표 2-16> 실버관광목적지의 개발 가능성분야	44
<표 2-17> 실버산업의 개발 가능성분야	47
<표 2-18> 65세 이상 노인 인구	50
<표 2-19> 지역관광개발의 추진방향	53
<표 2-20> 실버관련 관광정책 - 경주지역	54
<표 3-1> 설문지의 구성	79
<표 3-2> 자료의 분석방법	81
<표 3-3>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변수	82
<표 3-4>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변수	83

<표 3-5> 실버관광 타당도 인식변수	84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87
<표 4-2> 여가활동 인식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90
<표 4-3>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91
<표 4-4>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93
<표 4-5>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및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간의 상관관계	96
<표 4-6>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요인과 여가활동요인 과의 영향검정	99
<표 4-7>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실버관광 타당도 와의 상관관계	102
<표 4-8>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 에 미치는 영향검정	104
<표 4-9>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실버관광 타당도와의 상관관계	108
<표 4-10>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타당도 에 미치는 영향검정	109
<표 4-11> 군집분류에 의한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 평가군집 의 추출과 각 요인간의 사후 검정	113
<표 4-12>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별 인구통계 학적 특성	115
<표 4-13>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별 타당도 의 특성	118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모형	8
<그림 2-1> 경주지역 및 현곡권역 지도	65
<그림 3-1>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 활동요인이 실버관광 활성화에 끼치는 단계별 적용 모형	7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문제의 제기

글로벌 시대의 세계관광시장은 2010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11.6%로 성장하고 세계 총 고용의 9%가 관광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것이라는 전망(문화관광부, 2006)과 함께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유망 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하동현 외, 2006; 한국관광공사, 2003). 이것은 현대 여가활동이 휴식, 휴양이나 체험활동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관광수요 역시 계층별로 최적의 차별화 된 관광산업의 확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March & Woodside, 2005). 또한 21세기에 들어 세계적으로 여가활동시간이 증가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관광산업도 기존의 한정된 관광상품으로는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Cho, 2003; Hanink & Stutts, 2002, 김지인, 2002; 한국관광공사, 2002; 조현호, 2001). 이러한 시대적인 관광현상의 변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에 따른 관광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새로운 관점에서의 관광목적지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Ferrari et al., 2006; Lee et al., 2005). 더욱이 침체된 관광목적지의 경우 관광시장의 욕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효율적 관광마케팅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것이다(문화관광부, 2004; Davis & Shipilov, 2002). 통상 관광목적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의 두 가지 관점이 병행하는 통합된 전략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McKercher et al., 2005). 즉, 최근 확산되는 관광행태에 부응하는 구조적, 인위적 관광개발전략이 구사되어야 함(서태양, 1998)과 동시에 관광목적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호석, 2005a; 이준혁, 2006; Perez et al., 2005; 이의훈·신주영, 2002; Galloway, 2002; Chen & Hue; 2001; Mok & Iverson, 2000). 이러한 세부적 대응변수로는 지역경제 부양정책, 관광목적지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연령 구조요인, 노인의 소득, 건강 및 요양서비스인구 요인, 고령화요인 및 관광객의 의사결정(Sirakaya & Woodside, 2005) 및 행동양식과 사회·자연환경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박진영 외, 2006; Pearce & Lee, 2005; Reynolds et al., 2001; Herrmann & Huber, 2000; Goossens, 2000, Greco, 1986; Turner, 1986, Crompton, 2000).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주지역은 천혜의 생태자연관광자원과 유구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은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한 차별화된 전략부재로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침체된 관광목적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경주지역이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관광시장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관광목적지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주지역에서 최근 제주도나 동남아시아 등 경쟁지역으로 관광목적지가 급격히 이동되면서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관광매력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하계나 이벤트 개최 등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으나(강인원·고호석, 2005a), 비수기에는 그야말로 관광공동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정지원, 2004). 또한 그동안 역사문화유적지 혹은 수학여행지라는 고정된 이미지로 인해 단순한 정적인 보는 관광지로 고착되어 있고 흥미와 재미가 있는 동적, 체험 관광목적지라는 매력적 유인요인이 부족한 관광목적지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가고 있다(정길상, 2006). 즉, 경주관광은 주로 불국사와 석굴암과 같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진 보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하영수, 2003), 실제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동적관광 상품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주관광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학여행 등 단순한 역사 문화관광에 의존한 단편적인 관광패턴에서 벗어나 정확하고 과학적인 시장 세분화전략을 통한 새로운 표적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공격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호석, 2005b; 김성섭 외, 2004; Jang et al., 2002; Plog, 1991).

따라서 최근 유망한 잠재관광시장으로 등장한 실버관광객이 침체된 경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표적시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목적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적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의 표본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곧 국가 관광정책 차원에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버관광객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관점에서 선정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경주가 실버관광시장에 대응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차별화된 관광목적지로 그 잠재력이 기대된다는 가정 하에 실증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표적 관광시장인 실버관광객의 인식도에 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경주지역 실버관광산업의 기반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관광목적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실버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가설적 전제하에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의 실버관광 개념 및 관련이론을 고찰하고 아울러 실버관광 활성화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둘째, 역사문화관광지인 경주지역의 실버관광의 현황과 실버산업의 개발 잠재력에 대하여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기술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숙박 및 레저스포츠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발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실증 분석적 차원에서 경주지역 실버관광객의 여가인식과 목적지 관광활동에 관한 인식도를 평가한 후 실버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넷째, 이어서 독립변수인 실버관광객 인식도 평가결과가 경주관광활성화를 위한 선택적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평가 문제는 곧 본 연구의 핵심적 과제이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인식도 평가변수를 투입변수로 하여 대응변수인 종속변수로서 실버관광산업의 적정성 여부, 재 방문의사 및 체제의사 정도 등에 관한 영향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버관광산업을 위한 적정 대안모색과 실버관광산업정책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평가가 실시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관광시장 즉, 경주를 찾은 실버관광객의 시장세분화를 통한 표적시장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이고 집중적인 실버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자 최종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관광시장세분화를 위한 실증분석 연구가 구체적으로 시도될 것이며 이를 통한 통합적 실버관광정책의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향후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쇄신하고 천혜의 감포 해안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지역을 실버관광의 적정후보지로 판단하여 연구대상 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모델이 확정되고 실증적 분석이 증명될 경우 전국적으로 실버관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연구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1차적으로 경주지역에 한정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자연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고 지금까지 역사문화도시로 정착된 경주에 실버관광이 활성화 될 경우 관광목적지의 기능적 활성화 뿐 아니라 침체된 경주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의 동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경주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우선 1차적으로 2006년 10월 (1개월간) 50명의 표본을 통해 본 연구의 구성 타당도 검정 및 설문완성을 위한 예비조사 및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어서 본 연구의 설문지 회수기간은 2007년 1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표본 추출은 체계적 무작위 표본 추출법 (systematic random sampling method)을 적용하였다. 구체적 조사방법으로는 경주관광을 마친 실버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주역 입구에 무작위 관광객을 선정한 후 30명 단위로 체계화시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고속터미널 및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연히 연구조사원 배정도 3개의 그룹으로 분산하고 표본을 통한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인 추출이 되도록 하였으며 표집오차(sampling error)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다. 특히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통계적 지식을 갖추고 철저히 훈련된 경주대학교 관광학부 3학년 학생을 면접요원으로 활용하여 전술한 대로 3그룹으로 나누어 설문 및 실제 질문을 통한 면

집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경주의 감포 해안지역, 불국사지역 및 남산 일대, 내남·안강·강동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감포 해안지역의 연계는 천혜의 해안 리조트 지역이자 국제해양관광개발 단지 조성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그리고 불국사역사문화지역(불국동, 보덕동 주변)과 남산역사문화지구 같은 기존의 관광목적지들도 실버관광객의 정서에 깊이 인식되어 있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실버관광상품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남·안강·강동지역은 생태관광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민 활동 지원 등으로 실버관광객의 체재일수를 늘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이론적 정립과 내용적 고찰을 통한 선형적 연구모형 설계에 큰 의미를 가지며 제시된 이론적 체계를 통한 향후 관광목적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실버관광 활성화 연구에 의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의 역사문화와 실버관광과의 연계성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관광목적지 활성화 연구는 일반적인 관광객의 동기조사나 만족도 조사(Markides & Martin, 1979)를 주로 실행하여 왔으나 본 연구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버관광객이라는 특정한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한 미래 연구라는 관점에서 그 이론적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후속연구의 지표가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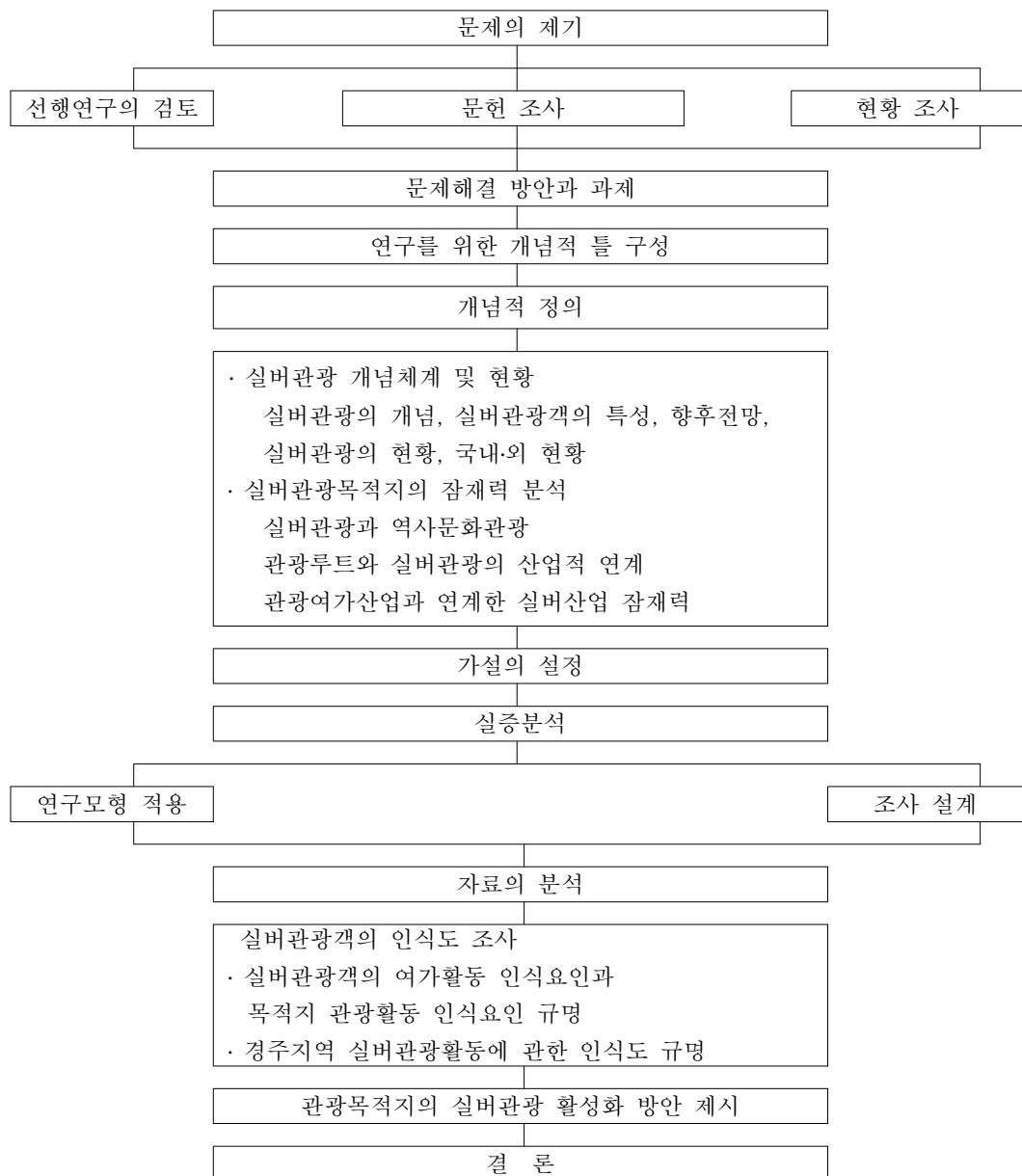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경주라는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를 우선적으로 설정해 놓고 실버관광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정립과 그에 따른 실버관광의 변수 간 발생되는 상관성과 영향도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가설검정 체계를 구상하고, 그에 관련된 실행모형의 적용을 위해 실증조사 분석을 통한 명확한 연구의 방향성과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 진 것이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구성을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먼저 실버관광객의 개념 체계로 실버관광의 개념과 실버관광객의 특성 및 실버관광의 향후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실버관광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버관광 부분은 실버관광의 현황과 실버관광의 국내·외 현황을 다루었다. 그리고 실버관광목적지의 잠재력 분석에서는 경주지역으로 대표되는 역사문화관광목적지와 실버관광의 개발가능성에 대해 실버관광과 역사문화관광, 관광루트와 실버관광의 산업적 연계 및 관광여가산업과 연계한 실버산업의 잠재력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버관광 활성화 이론은 관광목적지의 실버관광과 실버관광정책, 실버관광 전망을 통해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를 위한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및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실버관광 타당도의 개념적 접근과 관광목적지에서의 실버관광 역할 및 실버산업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등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 3장에서는 2장에서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을 정립한 후 실버관광 인식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따른 변수선정 및 표본설계와 자료수집과정 및 자료의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 4장의 결과 분석에서는 먼저 측정도구의 검정으로 타당성검정과 신뢰도검정을 실시하고 가설 검정 부분은 실증분석 결과와 실버관광 영향도 평가를 통해 경주지역 실버관광 개발을 위한 최적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도출, 경주 실버관광 개발의 정책 자료를 제공하였고 제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방향은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및 관광활동 인식요인을 분석하여 실버관광이 경주지역 관광 사업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1-1> 연구 모형

따라서 본 연구는 실버관광의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경주지역을 방문한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및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의 영향이나 군집별 시장세분화 방안 및 시장대응방안 구축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특히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및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은 실버관광 타당도에의 영향도가 크다.

이에 경주지역이 실버관광목적지로 개발되기 위해 필요한 최적의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준비단계로 과학적인 평가와 조사결과 분석을 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구성 체계와 연구방법론을 도입하게 되었다. 본 연구 논문의 흐름 및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1>과 같다. 실버관광 타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우선 이론적인 규명을 통하여 모형탐색과 변수선정 후 연구 분석 대상변수를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독립변수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후 실증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 계층적 군집분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가설은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실버관광객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가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버관광객 목적지관광활동 인식요인에 의한 군집 분류 및 군집특성 평균 차이와 그리고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및 실버산업 타당도의 독립성도 가설로 설정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물론 경주지역 실버산업에 대한 실버관광객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떤 인식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분석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실버관광의 개념 체계

1. 실버관광의 개념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실버관광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도 추상적이므로 실버관광의 개념은 실버의 개념과 실버관광객의 개념 중심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실버(Silver)’란 은(銀)을 뜻하는 말이다. 실버란 말은 1970년대 말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후의 참전 퇴역 군인이나 공직자출신 장·노년층의 집단거주 지역을 Silver Land로 지칭한 데서 비롯되며 일반적으로 노인을 뜻한다. 국내 선행연구에 나타난 실버연령의 기준은 <표 2-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연령을 김지인(2002), 이인수(2000)과 김상현(1997)의 연구를 기준으로 5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실버관광의 개념도 이인수(2000)와 김상현(1997)의 연구를 기준으로 경제력이 있는 노년인구 계층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예비노인인구 계층 및 장·노년층 사람들이나 다소 짚더라도 정신·신체적 이유로 노인들의 생활과 유사한 생물학·사회학적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관광목적지에서 행하는 여가 및 관광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실버관광은 65세 이상의 노인 여가활동으로 규정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55세 이상 인구의 여가활동으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은퇴기 이후 구매력이 있는 관광활동이 확대되는 반면 70세 이상 노인은 관광활동이 어려운 질병·노약 혹은 심리적 불안정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윤현숙·이미진, 2006).

<표 2-1> 선행 연구에 나타난 실버연령

연구자	기준연령	실버산업의 대상
윤정득·이창석 (2005)	50세 이상	장·노년층 사람들이나 다소 젊더라도 정신·신체적 이유로 노인들의 생활과 유사한 생물학·사회학적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 즉, 장애인을 포함
고정자(2005)	60세 이상	노인과 실버산업에 관한 연구
김지인(2002)	55세 이상	고령화 시대 노인 대상 실버넷 운동(정보화 교육)
신주영(2002)	50세 이상	실버소비자의 여가태도영향요인 연구
황태수(2002)	65세 이상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노인관광(Elderly Tourism)
이인수(2000)	50세 이상	장·노년층 사람(다소 젊더라도 정신·신체적 이유로 노인들의 생활과 유사한 생물학·사회학적 특성 지닌 자 포함)
김대경(1998)	65세 이상	국내노인복지법 및 생활보호법 기준 고령자 - 경제력이 있는 노년인구 계층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예
김상현(1997)	55세 이상	비노인인구 계층이 대상 (상업적 정년) - 일반기업체의 정년 연령
김진탁(1997)	65세 이상	국내노인복지법 및 연금수급연령 기준 일반고령자
Kim(1990)	55세 이상	일반 마케팅에서 정년 전후 라이프스타일 급변기
대한노인회	60세 이상	대한노인회 가입연령
공무원 정년	58세 이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령

자료 :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따라서 실버관광의 現時的 개념은 55세 이상의 장·노년층 사람들이나 다소 젊더라도 특별한 정신·신체적 이유로 노인들의 생활과 유사한 생물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목적지에서의 여가 및 관광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표본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기업에서의 조기은퇴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전제로 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저출산·고령화(법제처, 2005)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한 정책적 실행(Sen & Mayfield, 2004)과 국민의 의식 변화에 의해 실버관광에 대한 개념도 새로운 관점에서의 개념적 접근과 조작적 정의가 유동적으로 정립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실버관광객의 현대적 특성

본 연구의 주제인 실버관광객은 노인과 유사한 신체적, 정서·심리적, 사회·환경적, 행동적 특성을 가지므로 실버관광객의 특성 또한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연구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첫째,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보면 대부분의 노인은 신체적인 노화와 함께 1-2종의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활동 장애로 인한 건강상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다(곽재용·하정선, 2006; 이인수, 2005; 장인협·최성재, 1997). 특히 만성질환의 유무는 생리·기능상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의 86.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중 관절염이 43.4%로 가장 많고, 이들 관절염을 앓는 노인의 84.4%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전채근, 2002; 이혜원, 1999; 정경희, 1998; 이가옥 외, 1994). 이와 같은 급격한 노화현상¹⁾은 실버관광객의 정서·심리적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곧, 노인의 정서·심리적 특성상 강한 보수성과 소외감 및 고독감으로 인한 우울증 경향 등은 노인들로 하여금 특히 타인의 도움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갖게 한다(곽재용·하정선, 2006; 이인수 외, 2004; 정경희, 1998). 둘째, 노인들의 또 다른 정서·심리적인 특성인 내향성과 수동성,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인해 가족이 보호자 역할 뿐 아니라 간병인 역할까지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 전채근(2002)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들의 2/3 이상이 자녀를 동반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1년에 1회 이상이었다. 이러한 경우 대개의 자녀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함께 돌봐야 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적절한 의료 및 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을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이현정, 2006; 윤정득·이창석, 2005; 이현기·김진욱, 2001; 전미영 외, 2001). 이러한 노인들의 신체와 정서·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실버관광객들은 흔히 여가나 관

1) 청년기로부터의 장·노년층으로의 변화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치아, 골격, 근육, 신장, 심장 등 신체기능상의 약화와 피부, 두발, 체형 등 외형상의 변화 및 노화된 기능으로 인한 2차적 질병의 증가.

광활동에 있어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되어 보호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다.

셋째, 노인들의 사회·환경적 특성은 이미 한 사회의 구성원에서 퇴직하면서 수입의 감소, 소외와 고립 등으로 인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지위가 약화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강하게 경험하는 것이 노년기이다(지은정, 2006). 또한 김태희·서은(2005)과 한희경·오덕성(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녀와 함께 동거를 통해 노년기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행이던 이전 노인들과는 다른 사회적 변화가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다(이금룡, 2004; 이금룡 외, 2004). 이미 Digiovanna(1994)는 실버관광의 중요성 증대요인으로 노인 인구의 수와 구성 비율 증가로 인한 실버노인들의 영향력 증대와 그들의 소비형태의 증가 및 정치적 입지 향상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급증하는 노인 인구들이 산업화로 지역 간의 빈번한 이동과 자녀의 부양의식 변화, 동거형태의 노인부부 중심화 변화 등을 이유로, 경제력을 가진 독립노인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노인들은 나이가 많아 보통 병약하고 동일한 인식집단이며 수동적인 요보호 세대로서 소극적 소비활동을 주로 하였다면, 오늘날 실버관광객의 소비 형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차가 크다. 이들 중에는 점차 자녀, 가족에 의해 부양되던 관광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다(문현상 외, 1996; Kertzer et al., 1986). 그리고 노인인구의 규모 면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베이비붐 세대들로서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4%에 도달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는 커다란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들은 전후 국가경제 주역으로 청·장년기에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의 중요성 및 체계적인 노후생활 대비가 거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향후 전망으로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Age Society),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Ultra Aged Society)에 도달이 예상된다(황은경·문수영, 2006; 이재모, 2005; 이지숙, 2003, 고정민·정연승, 2002).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실버관

광객 대상의 관광시장은 노인들의 구매력 증가와 노인시장의 규모 확대 등을 큰 특징으로 한다.

넷째, 실버관광객의 행동적 특성 또한 노인들의 행동적 특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행동상의 잣은 위험과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관광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수요구조도 매우 다양하고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Page et al., 2005; Shimizu, & Hidetada, 2001; Park, 1997).

<표 2-2> 노인들의 소비행동 성향

소비행동	행동특성
망설임	중요한 결정 시 오랫동안 망설이며 생각을 여러 번 바꿈
안정성·편리성	대부분 위험 회피, 안정 지향적이며, 상품 구입·서비스 주문 시 그로 인한 편리함에 더 치중
추구	
선택의 기회 선호	구매행동 시 다양함 추구, 심리적 보상을 받으려는 경향
경향	
특별한 배려	어떤 상품·서비스를 자기만을 위한 사은품 등 특별히 존경이나 배려를 받는다고 느낄 때 최대의 만족을 느낌
체험적·다양한	- 일부 실버관광객들에게 나타남
신체활동	- 청·장년기 경험한 체험적·다양한 신체활동 선호 경향 - 안전과 보장 욕구와 상반됨

자료 : 이인수(2000).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이인수(2000)는 노인들의 소비행동 성향을 망설임(hesitation)과 안정성 및 편리성 추구, 선택의 기회 선호 경향 및 특별한 배려, 체험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에의 갈망 등으로 <표 2-2>와 같이 구분하였다(Kardes & Frank, 1999). 그러나 노인들의 일상 여가활동분야에 대한 욕구를 각 사회단체 가입률로 본 전채근(2002)의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9년 조사결과를 인용하였다. 즉, 독신노인이나 가구소득이 떨어진 경우에, 종교·사교·문화·스포츠·봉사 활동과 노인대학 및 기타 등으로 분류된 각종 단체에의 가입희망률도 현저히

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들의 행동적 특성을 지닌 실버관광객은 관광목적지에서의 관광활동에서도 망설임, 안정 및 편리성, 선택의 기회 선호, 특별한 배려, 안정과 보장 욕구와 상반된 체험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선호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실버관광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실버관광객의 현대적 특성이 급격한 신체적 노화현상 및 만성질환과 관련한 예방, 치료, 재활 등의 건강 활동 등의 요구 그리고 자녀 등 가족에의 강한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관광목적지 활동을 실행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차츰 지역사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부부 중심, 독거 세대화의 특성을 가진 소외된 계층으로서 사회복지관광 측면에서 실버관광객을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반면 개인차는 크나 노인 중 일부가 경제력을 가진 독립 노인층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의 실버관광객의 구매력도 증가하였다. 더구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내 노인여가 시장의 전체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더 이상 보호위주의 복지관광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실버관광객은 관광목적지 활동에서도 망설임, 안정 및 편리성, 선택의 기회 선호, 특별한 배려, 안정과 보장 욕구와는 상반되는 체험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선호 등의 특징을 보이게 된다. 향후의 실버관광은 실버관광객의 현대적인 특성을 고려한 발전적인 시책에 따라 실버마켓의 규모나 내용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즉, 마케팅 방안도 세워져야 할 것이다(유봉노·이동철, 1999). 특히 철저한 실버관광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세분화된 실버관광서비스 마케팅 방안이 이루어 질 때, 본 연구의 중점목표인 관광목적지 활성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3. 실버관광의 산업적 전망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실버관광은 55세 이상의 장·노년층 사람들이나 다소 짊더라도 특별한 정신·신체적 이유로 노인과 유사한 생물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사람 대상의 여가활동 중 관광활동이다. 또한 실버관광은 실버관광객 대상의 영리목적 사업을 의미하며 동남아 등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국내 실버관광의 연구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조차 부족한 공공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관광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다(이재모, 2005; 이현기·김진욱, 2001) 특히 실버계층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 대부분이 의료·요양서비스 정도를 갖춘 사회복지 개념의 거주지 성향의 실버타운 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윤정득·이창석, 2005). 그러나 향후의 실버관광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구 중 실버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법제처, 2007a). 따라서 복지관광 차원에서의 정책을 강화하고자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으로 최근 급속한 사회 고령화에 대응 실버관광 프로그램 개발환경 조성 사업 계획이 수립·시행 중에 있다(문화관광부, 2006). 물론 현재의 정책 수준은 국민관광환경 기반 조성사업의 일부로 제안되고 있는 정도이다(안종윤, 1997). 그러므로 향후 현대 실버관광객의 표적시장 공략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복지관광(이재모, 2005)과 중상층 이상 노인 대상의 생활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익자부담 산업 즉, 실버산업(엄수원·임구원, 2006; 윤정득·이창석, 2006; 이인수, 2005; 장석인, 2005; 전채근, 2003) 연구를 통해 실버관광의 향후 전망을 논하여 보았다. 노인의 여가는 노인기의 대부분의 시간과 활동을 노인 여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노인기란 대부분의 노인들이 직업적 활동이나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시기를 뜻한다(오경석·서미경, 1996). 실제 노인복지 분

야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관광 연구가 있으며 실버산업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노인촌락(silver town)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첫째, 노인복지의 여가활동 연구 중 염수원·임구원(2006)의 연구에 나타난 직장에서의 정년 시기는 보통 55세에서 60세 사이인데 비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8세 정도이다. 그러므로 정년퇴직 후의 20여년을 여가시간으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여가시간 증가에 대한 대책과 노인들의 욕구 수요 증가 추세에 대처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나 전문기관들의 노인여가 프로그램 차원에서 제안하였다(법제처, 2007b). 또한 여가활동 중 여행을 통한 여가활동이 실버산업의 한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전채근(2002)은 고령자의 관광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반면 신정식(2004)은 현재의 복지관광이 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법적규정의 명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개별 여행시간의 확대 등에 따른 실버시장의 급성장을 예견하였다.

<표 2-3> 실버산업 분야별 시장 규모

(단위:10억원)

분야	점유율(%)*	60세 이상			65세 이상		
		2000년	2005년	201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주거	23.4	536.68	825.64	1,216.75	354.23	576.66	855.22
의료	23.4	536.68	825.64	1,216.75	354.23	576.66	855.22
식품	12.7	291.27	448.10	660.37	192.25	312.98	464.16
여가	20.7	474.75	730.37	1,076.35	313.36	510.12	756.54
금융	17.6	403.65	620.99	915.16	266.43	433.73	643.24
생활	2.2	50.46	77.62	114.40	33.30	54.22	80.41
합계	100.0	2293.49	3,528.37	5,199.77	1,513.81	2,464.37	3,654.79

자료 : 이현기·김진욱(2001). 『경기도 실버산업의 시장규모 전망』.

그리고 둘째, 실버산업 중 노인여가활동 연구에서 이현기·김진옥(2001)은 경기도 실버산업의 시장규모 전망에서 1990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 구조'를 분석하여 실버산업 분야별 시장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실버산업에서 여가분야의 점유율은 20.7%로 주거(23.4%)와 의료(23.4%)에 이어 세 번째였으며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의 2005년 시장규모는 각각 7,303억 원과 5,101억 원으로 <표 2-3>과 같다. 이러한 노인들의 여가활동 분야에 대한 서비스의 증가로 61세 이상 고령화 계층의 경우 2010년에 1조원 이상의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도 7,500억 원 예상하였다. 그에 따른 여가 활동 분야는 취미, 스포츠, 관광 등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며 노후생활이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어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가 요망된다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또한 식품분야의 규모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중요한 요소로 안정적인 시장으로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Kuo et al., 2005).

위의 <표 2-3>에 따르면 향후의 실버관광은 노인 여가활동 중 관광목적지에서의 실버관광객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실버관광의 성장규모를 예측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철저한 시장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셋째, 현재 국내의 실버관광은 고령친화형 여가(법제처, 2006)와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영리 및 비영리)의 적극적 대응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개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실버산업 중 노인촌학 관련 선행 연구는 일반적인 노인주택 관련 연구들과 실버타운 관련 연구 그리고 실버산업 연구로 나누어진다. 그 가운데 정확한 의미의 실버관광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지, 노인의 여가분야, 노인촌학의 여가활동영역, 실버산업의 여가활동 영역 중에서 일부가 언급된 정도이다. 그 일례로 의성군(2007)에서는 은퇴노인 복지촌학과 함께 옥산해쁜 은퇴농장을 조성하여 재외동포(주로 미국)와 고급인력 위주의 은퇴마을 조성을 계획 중에 있다. 이러한

은퇴농장들이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할 경우 향후 실버 관광 상품으로 연계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표 2-4>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흔히 말하는 선진국 형의 실버관광의 영역은 주로 여가분야 중 관광활동이며 주체는 실버관광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관광활동 영역을 전부 포함한다.

<표 2-4> 노인복지 및 실버산업(실버타운)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노인 복지 분야	황은경 · 문수영(2006)	국내 노인주택 편의시설 실태분석 연구
	박은주 · 오세규(2003)	도시형 유료노인주거시설 건축계획 연구
	이지숙(2003)	대전시 노인 선호 거주환경 특성 연구
	김현주 외(1992)	노인복지의 시설과 현황
실버 타운	김용만 · 하문기(2006)	실버타운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영향 연구
	이의열(2006)	실버타운 민간기업 사업진출 방안 연구
	홍연숙(2006)	실버타운 입주 의도 예측요인에 대한 분석
	권오정(2005)	예비노인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경향 연구
실버 산업	한희경 · 오덕성(1999)	실버타운 시설계획 특성/사용자 요구 연구
	하성호 · 이경희(1992)	한국형 실버타운 모형의 발전방안 연구
실버 산업	엄수원 · 임구원(2006)	고령사회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윤정득 · 이창석(2005)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채근(2002)	고령사회 대비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이현기 · 김진욱(2001)	경기도 실버사업의 시장규모 전망

자료 :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실버산업의 한 분야로 실버관광을 정의할 때 주거, 의료, 금융, 생활을 포함하는 노인촌락(silver town)은 흔히 영어명인 실버타운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노인촌락은 노인들이 의식주 및 기본의료관리를 주목적으로 체류하는 통합형 노인주거시설로서 촌락 내 시설의 규모와 형태가 다양하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600여개의 장기체류 노인거주지역(continuing care and retirement

community: CCRC)이 있으며, 일본은 사단법인 실버산업진흥회(Elderly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에서 추진 중인 ‘건강장수마을’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2001-2002 정부보고서에서 질적 사회복지 향상(quality welfare for all)을 2015년까지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고령친화산업(주거, 의료, 금융, 생활과 여가분야)분야의 하나인 고령자 여가로서의 실버관광을 산업으로까지 확대하고자 계획한 바 있다. 물론 고령친화모델 지정시범단지조성 사업이나 광역도 차원의 역사문화연계 실버타운조성사업 등과 같은 지역별 차별화된 실버산업 분야의 개발도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사업으로는 민간실버타운시설로 ‘창녕 서드에이지’, 농림부 은퇴자마을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의 실버관광시장의 전망은 초 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 부분에서는 실버관광의 현황 등을 통한 현실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 2 절 실버관광의 현황과 과제

1. 실버관광의 개관

우리나라의 실버관광의 법적인 근거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찾을 수 있다(법제처, 2006). 다만 실버관광에 대한 용어는 노인관광, 실버산업, 노인여가 활동 등으로 다양하나,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개념에 따라 실버관광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인 역사문화관광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표 2-5>와 같다.

이를 근거로 역사문화관광목적지의 실버관광 현황을 일반적인 역사문화관광 목적지의 노인관광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에 나타난 역사문화관광지의 관광활동 연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물론 본 연구의 대상지인 경주지역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발췌한 역사문화관광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래의 <표 2-5>와 같다. 이 중 정길상(2006)은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의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방안 연구에서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스포츠와 관광 활동 육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영경(2001)은 역사문화관광지의 경관은 역사적 정체성의 보존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보존하여야 하며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보행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산재한 문화재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재용(2005)은 시장 세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고재용 외, 2005), 그 외 논문들 대부분이 지역의 오랜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관광활동에 대해 현재 시행되는 축제, 행사 및 고속철도 등 변화 요인에 따른 지역의 발전 방안 모색과 방문객 또는 지역민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 중 실버관광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곽재용(2005), 박근수(1998)의 노인관광에 관한 연구와 신정식(2004)의 복지관광에 관한 연구가 있다. 먼저 곽재용(2005)은 노인관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가치를 중심으로 선호속성과 과시, 합리적 관광 행

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박근수(1998)는 한국 관광에서의 노인시장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한국 노인들의 다양한 관광행태를 지닌 이질적인 집단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정식(2004)은 복지관광증진을 위한 관광사업의 발전적 추진전략을 연구하였다.

<표 2-5> 역사문화 관광지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정길상 외(2006)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방안
이영경(2001)	역사관광도시에 대한 관광객과 거주자의 경관평가
변우희 외(2005)	고속철도 시대 경주관광발전 연구
고호석(2005a)	지역문화축제 관광객의 선택속성/재방문의사 연구(신라문화제 중심으로)
오영석 · 이곤수(2005)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이곤수 외(2005)	지역축제 만족도의 평가모형 개발(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중심으로)
고재용 외(2005)	지역축제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기초한 시장세분화 연구(2004 술과 떡)
곽재용(2005)	개인가치가 관광지 선호인식과 과시, 합리적 행동에의 영향연구(노인)
Kuvan & Akan(2005)	관광목적지 주민의 태도 연구
손해식 외(2004)	이벤트 영향-주민지각 세분화 및 영향요인
김일룡 · 고호석(2004)	2003 엑스포방문객 이미지 평가 실증연구
정지원(2004)	술과 떡 잔치 참가자 만족 · 불만족, 재방문 의도연구
하영수(2003)	지역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 연구
김규호(2003)	문화행사요소가 방문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명숙(2003)	경주지역 문화유산 관광상품개발 방안 연구
오정학 외(2002)	이벤트 관광객의 만족요인 연구-벚꽃마라톤
김규호(2001)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이준혁(2001)	축제방문객의 이미지분석-2000문화엑스포
이충기 · 김동기(2001)	내 · 외국인 간 축제참여 동기 분석
변우희(2001)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관광영향도 평가 및 비교분석
서태양 · 김동기(1999)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방문객에 대한 이미지 분석
강인원(2006)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 관광발전 영향연구((금강산, 강원도))
Prideaux(1999)	관광사업 방문객의 증가 기회로서의 문화유적 박물관에 관한 연구

자료 :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의해 <표 2-6>과 <표 2-7>에서는 국내 장래 인구의 추계 및 실버 인구를 살펴보았다.

<표 2-6> 국내 장래인구 특별 추계

(단위: %)

연령	년도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65세 이상		9.1	10.9	15.7	24.1	32	37.3
15-64세		71.8	72.8	71.7	64.1	57.9	53.7
0-14세		19.1	16.3	12.6	11.2	10.1	9.0

자료 : 통계청(2006).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표 2-6>의 국내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05년 9.1%에서 2050년에 37.3%로 예상된다. 즉, 21세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실버관광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국가정책 수요도 급속히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5). 또한 <표 2-7>의 2007년도 국내 55세 이상의 실버인구는 전국이 921만6천명이며 서울에만 177만7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표 2-7> 국내 55세 이상 실버인구 개관

(단위: 천명, %)

연령	년도	전국	서울	대구	경북
	2001	7,449	1,403	670	604
	2007	9,216	1,777	455	668
	2010	10,389	2,025	519	718

자료 : 통계청(2006). 『주민등록 인구』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그리고 대구에 45만5천명, 경북 전 지역에 66만8천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역적인 거주분포보다는 전국 실버인구 규모의 변화 추이가 더 중요하며 2010년에는 1천만 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표 2-8>은 노인의 국내 및 해외여행 자료이다(문화관광부, 2006).

<표 2-8> 노인의 국내 및 해외여행

(단위: 천명, %)

연령 연도	국내관광						해외여행		
	국내관광여행자비율	1인당여행횟수	숙박여행자비율	1인당여행횟수	비숙박여행자비율	1인당여행횟수	해외여행자비율	관광가사업무	
2000년	58.2	2.6	37.4	0.8	44.0	1.7	5.9	69.1	7.2
65세 이상	42.4	1.4	20.8	0.4	33.2	1.0	4.7	81.9	16.3
남자	48.3	1.7	24.4	0.5	37.5	1.2	6.4	79.0	11.3
여자	38.6	1.1	18.6	0.4	30.4	0.8	3.6	85.3	16.2
2004년	58.4	2.9	40.4	1.0	41.7	1.9	10.2	67.1	29.1
65세 이상	47.6	1.7	23.1	0.5	38.0	1.2	8.0	79.1	4.3
남자	51.8	2.2	25.9	0.6	41.8	1.6	10.1	84.2	6.7
여자	44.7	1.4	21.3	0.4	35.4	1.0	6.7	74.0	1.9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6). 『국민여행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내여행자 비율은 47.6%, 해외여행자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2004년 65세 이상 인구의 47.6%가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 여행을 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여행횟수는 1.7회로 2000년 여행자비율 42.4%와 1인당 여행횟수 1.4회보다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의 여행자 비율인 58.4%, 여행횟수는 2.9회와 비교하면 각각 10.8%와 1.2회 낮은 수준이며, 성별로는 남자 여행자 비율이 51.8%로 여자 44.7%보다 7.1% 높았고, 여행횟수도 남자가 2.2회로 여자 1.4회보다 0.8회가 많게 나타났다. 한편,

비숙박 여행자 비율은 38.0%로 숙박여행자 비율 23.1%보다 많게 나타났다.

2004년 65세 이상 인구 중 해외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8.0%로 2000년 4.7%에 비해 3.3% 증가하였으며 주된 목적은 관광이 79.1%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10.1%로 여자 6.7%보다 많았으며, 여행목적별로는 관광, 업무의 비중이 남자는 높았지만 가사목적의 여행은 여자가 31.4%로 남자의 18.2%보다 높게 나타났다(문화관광부, 2006).

<표 2-9> 세계의 평균수명 현황

(단위: 세)

평균 수명	세계	캐나다	한국	미국	일본	이스 라엘	싱가 포르	프랑 스	노르 웨이	스웨덴	아 이 슬란드	스위 스
1990	62.9	77.0	69.8	74.6	78.3	75.6	71.9	76.0	76.3	77.3	77.8	77.4
1995	63.7	77.9	72.2	75.2	79.5	76.9	70.4	77.5	77.4	78.2	78.6	77.8
2000	64.6	78.7	74.6	76.5	80.5	78.3	68.8	78.5	78.2	79.3	79.3	79.4
2005	65.4	79.9	76.8	77.3	81.9	79.6	66.4	79.4	79.3	80.1	80.6	80.4
2010	66.5	80.7	78.2	77.9	82.8	80.6	63.1	80.0	80.2	80.8	81.4	81.1

자료 : 통계청(2006). 「장래인구특별추계」; UN(2006). 「<http://esa.un.org/unpp>」.

<표 2-9>에 따르면 2005년 세계의 평균수명은 65.4세였으며 일본의 평균수명이 81.9세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6.8세였다. 또한 2010년의 세계 평균수명 장래추계에 따르면 66.5세로 2005년 대비 1.1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평균수명도 78.2세로 1.4세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 추세는 세계적인 경향으로 2005년 평균수명인 76.8세에서 실버관광객의 하한 연령인 55세를 빼면 실버세대의 여명기간은 21.8년이나 된다. 이 때 55세의 일반적인 업무에서의 은퇴를 맞는 실버세대에게 있어 길어진 여명기간의 대부분이 여가시간으로 간주된다(엄수원·임구원, 2006). 물론 혜준수(2006)와 지

은정(2006) 그리고 김연옥(1992) 등은 퇴직 준비 프로그램이나 퇴직 후 노후소득 보장 또는 고령자 재취업정책 등에 따른 고령자 여가시간의 개인차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지은정(2006)은 고령자 재취업 사유로 경제적 사유를 가장 큰 사유로 보고하면서 파트타임 노인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는 비효율적인 강요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55세 이상의 실버관광객의 증가는 노인의 국내 및 해외여행 증가 추세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실버인구의 수적 증가 추세로 변하고 있는 실버관광의 영역 현황이다. 실버관광의 영역은 노인의 여가분야 중에서도 특히 관광 관련 여가활동 즉 관광활동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과 관광활동으로 구분된다. 이 실버관광객 여가와 관광활동 영역은 다양한 실버관광객의 특성만큼이나 광범위하다. 즉, 실버관광객이 지닌 신체·사회·정서·심리적인 특성과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 사고와 강한 의존심, 그리고 오랜 사회생활에 따른 자부심으로 인한 강한 자아감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박근수, 1998). 물론 대부분이 은퇴노인들로서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높은 여가욕구에 비해 실제 소비성향은 수동적이고 품질 지향적이다(Mon, 1979). 또한 노인들의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선호경향도 실버관광의 영역 개발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오은진, 2006; 김대년·권오정, 2005). 이에 따라 실버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수요 구조도 매우 다양하므로, 실버관광은 이런 특성을 잘 고려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2. 실버관광의 국내·외 현황 연구

1) 국내 현황연구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의 비경제인구로서의 노인 즉 실버관광객은 휴양중심의 온천리조트, 노인 장기체류형인 노인휴양단지를 주로 이용하였다. 반면 오

늘날의 실버관광객들은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가족 레저문화와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신 개념 휴양 별장단지에 콘도와 펜션의 혼합된 장기임대형 가족 휴양지인 롯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일상적인 레저활동인 테니스, 스키, 다이빙, 모터크로스 등도 함께 즐긴다. 이렇게 변화한 실버관광객들에게 경주와 같은 역사문화관광지는 과거와 같이 정적관광지로 이미지가 고정된 존재이다. 이것은 향후 급증이 예상되는 현대적 실버관광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획기적인 관광마케팅차원에서의 실버관광 상품개발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다양한 수요를 보이고 있는 현대 실버관광시장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시점에 국내 실버관광 현황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정립하는 일은 실버관광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나타난 국내와 국외의 실버관광의 역할 분석의 결과는 실버산업의 활성화 논의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노인복지 및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들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들로서도 실버관광이 산업의 한 부분임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였다. 즉 현대 실버관광은 정책부문에서 고령친화정책 즉 선진국의 실버산업정책의 일부분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이성환, 2005; 이인수, 2005).

각종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실버산업과 관련된 재정 및 세제 지원, 법제도 정비 및 규제완화, 전문 인력양성, 기업 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실버관광 방안 구축은 미흡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므로 실버산업 8 가지 분야 즉, 고령친화요양산업, 기기산업, 정보산업,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에 의한 지원은 실버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 실버산업 발전의 기틀 마련에의 의도가 숨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의 실버관광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였다면 2005년 이후의 국내 실버관광은 노인정책의 고령화정책의 법제화 후, 8가지 실버산업 분야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21세기 급증하는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처하고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단으로 관련법 제정 및 행정체

계 개편을 실시하였다. 변재관(2002)등은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버산업 활성화정책은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및 지원과 노인용 편의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노인요양병원과 노인복지용품 생산유통 확대, 노인복지용품의 세제감면 대상 확대, 노인대상 자산관리상품을 보급하고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가 및 보건복지·고용, 생활, 환경 등을 포함한 실버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화 및 보급 확산 노력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과 실버관광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사업의 대상에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산업화 정책이며 실버관광산업은 실버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산업화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령친화산업은 보건복지부의 주관 하에 노인소득지원 및 고용촉진부문은 노동부가, 노인교육 및 여가기회 확대부문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가, 실버산업 활성화 부문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이 분담하고 서로 긴밀한 연계로 범 부처 간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버관광산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이 주도하는 이윤 추구의 산업이자 시장원리에 입각한 산업이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성장시킬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실버관광에 대한 선행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곽재용(2005), 박근수(1998)의 노인관광에 관한 연구와 신정식(2004)의 복지관광에 관한 연구 외에도 <표 2-4>의 실버산업에 관한 선행연구 등이 있다(이의열, 2006; 김용만·하문기, 2006; 염수원·임구원, 2006; 고정자, 2005; 김제안·채종훈, 2005; 윤정득·이창석, 2005; 전채근, 2003; 신주영, 2002; 이현기·김진욱, 2001; 한희경·오덕성, 1999; 김상현, 1997; 하성호·이경희, 1992).

그 중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곽재용(2005), 박근수(1998), 신정식(2004)은 향후 실버연구를 위해 노인관광의 관광자 선호행동 영역, 노인관광의 시장에서의 노인특성 변화, 노인관광 중 복지관광 영역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선

행 연구들에 의해 이미 실버인구의 현황과 실버관광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실버산업은 주택개조, 방문간호, 복지용구의 임대, 재택호스피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보행보조기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용 시설, 고령자 위험방비 주택, 자동차, 가전, 아이디어 상품 등의 제공을 주로 하는 위협방지/안전시설분야가 있다. 그리고 고령자 진료소, 장기요양/의료 정보제공 서비스, 건강식품, 스포츠클럽, 고령자 건강카운셀링 등이 주 내용인 의료/건강 분야와 여가/오락, 생활 및 정보학습의 분야로 나뉜다(의성군, 2007; 이인수, 2005; 활동원, 2005). 그리고 실버산업의 활성화 정책연구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본격적인 실버관련 정책인 경제, 보건, 복지, 여가, 교육 등을 고령친화산업(이하, 실버산업)²⁾으로 규정, 육성케 하고 있다(법제처, 2005; 이성환, 2005). 관련 근거로는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의 5가지(주거관련분야, 의료관련분야, 여가활동분야, 금융관련분야, 생활 관련 분야) 산업 구분에 따른다(유문무, 2006; 법제처, 2006). 위의 실버산업 각 부문은 다시 3가지 영역(시설, 용품, 서비스)으로 세분화되어 시행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이인수, 2004). 향후 우리나라로 실버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실버산업보급 활성화 시책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실버 8대산업(고령친화 요양산업, 기기산업, 정보산업,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부문의 향후 개발 방향을 설정, 운영하게 될 것이다(보건산업진흥원, 2005; 변재관, 2002). 이 중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노인주택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변재관, 2004).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3년 125개소에서 2005년 현재 282개소가 설립 운영 중으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협방지/안전시설(Barrier Free)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시설설치증진법'에 의해 안전시설 설치가 법제화되어 일부 공공시설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후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주거분야 실버

2) 실버관련 정책 : 경제(고용 및 소득보장), 보건(건강증진 및 의료제공), 복지(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교육(평생교육과 정보화)등을 고령친화 산업(이하, 실버산업)으로 규정·육성.

산업에 대해 이인수(2005)가 소개하는 ‘노인촌락’은 노인들이 의식주 및 기본의료관리를 주목적으로 체류하는 통합형 목적의 노인주거시설로서 촌락 내 시설의 규모와 형태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건립중인 ‘창녕 서드에이지’, 농림부 은퇴자마을 프로그램 등이 운영 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분야 실버산업은 역사가 매우 짧으나, 현재 우리나라 관련 법에서는 유료요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의 설립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기에 앞으로 유료양로원, 요양원, 노인 홈, 노인휴양소, 콘도미니엄, 유료노인주거시설 등이 비교적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건강분야는 노인전문병원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이나마 설치되고 있으며 고령화정책에 힘입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003년 254개소에서 2005년 583개소로 지방에 설립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치매요양병원은 2003년 45개소가 운영, 신축되던 것이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다양하게 신축, 운영되어지고 있다. 최근 고령자를 위한 각종 건강기기, 곧 의료기기분야³⁾, 그 외 건강과 관련한 노인용 생활보조용품⁴⁾, 노인성 의약품⁵⁾들이 실버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은 생산업체수가 300개를 넘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여가/오락분야는 국내 여행사들이 여행자수의 30%를 넘는 노인여행자 수요에 맞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여행상품의 개발을 치중하고 있는 정도이나 향후 관광목적지의 실버산업개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치료가능병원의 운영, 요양시설의 운영도 실버산업과 관련된 부문이다. 국내에는 일반중산층 이상의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하는 노인전문병원이 없으며, 기존의 병원에 노인치료기능을 부가시킨 노인전문 치료기능병원이 일부 있는 정도이다. 예를 들면, 마포광명의

3) 전자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온계, 자기치료기, 저주파치료기, 광선치료기, 전기찜질찌, 무바늘 인슐린주사기, 자석침구류, 자석벨트 등.

4) 성인기저귀, 육창방지용 쿠션, 특수한 모양의 변기, 지팡이, 자동목욕기 등.

5) 노인의 특이한 질환들에 사용되는 의약품(치료제·개선제·보급제·영양제 등)이며, 대형 종합병원과 제약업체들의 노인환자 전용 노인병센터 설립·운영계획과 관련이 큼.

원, 경남 부곡온천병원, 가락신경정신병원, 축령복음병원, 영동 세브란스병원, 한강성심병원, 서울대 치매 클리닉, 삼성의료원, 여의도 카톨릭성모 등이 있다.

여가·생활·금융의 관점에서 고령자 취업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나, 아직까지 그 활동분야가 비전문적이고 단순한 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생활분야는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60대를 겨냥한 상품개발로 연금식 대출, 유언 및 상속 등 재산관리서비스와 주요노인성질환 집중보장형 보험, 입원 및 개호비 등을 지금하는 보험으로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운용하는 보험 상품들이 있는 정도이다. 생활분야에 대한 실버산업개발전망은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노인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실버산업의 전망 좋은 산업분야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학습을 중심으로 노인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분야로서의 시장형성은 미비한 정도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개념이 도입된 현재 노인층의 정보/학습 욕구는 매우 높은 반면, 노인을 겨냥한 정보화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은 실버산업의 주요 분야로 성장이 기대된다. 고령자교육은 공공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일부 민간에서 행하는 초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정도이다. 국내의 고령자 여가활용에 있어 노인 클럽 등의 고령자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단체나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경로당이나 집안에서 소일하는 정도⁶⁾이다. 의류부문으로는 여성용 정장에 국한되어 있고,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은 없다. 최근 실용적이고도 편리한 디자인과 밝은 색상의 중가대의 옷이 선을 보이고 있다. 식품부문으로는 노인층을 위한 각종 건강식품⁷⁾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생활용품부문으로는 고령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 고령자 대상 잡지, 고령자를 위한 가전제품이 일부 선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관광목적지에서의 문화와 실버의 산업적 연계

6) 점차 각종 노인대상 레저·교양사업, 효도관광, 노인호스텔, 노인 스포츠 클럽,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등 증가.

7) 로얄 젤리·영지버섯·인삼류·결명자차 및 각종 효소, 알로에·스쿠알렌·꽃가루 가공품·클로렐라 등의 건강식품 등 출시.

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실버관광객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노인과 함께하는 관광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Zeppel, 1998). 곧, 실버산업의 향후 과제는 실버관광객의 수동적, 의존적 특성과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노인중심문화는 보존되어야 하며 실버관광의 올바른 방향은 가족단위 관광의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Getz and Calsen, 2005).

<표 2-10> 국내 실버시설 현황 비교

시 · 도	경주시		전국		경북	
	시설수	정 원	시설수	정 원	시설수	정 원
합 계	16	389	865	48,461	72	4075
무료 시설	무료양로	1	100	137	6,051	10
	무료노인요양	2	170	149	10,321	14
	무료노인전문요양	3	60	139	10,436	15
실비 시설	실비양로	3	94	64	1,126	3
	실비노인요양		123	4,819	13	445
	실비노인전문요양		5	520		
유료 시설	유료 양로	1	29	69	3,954	3
	유료노인요양		84	2,189	3	54
	유료노인전문요양		43	1,678	4	117
	노인전문병원		40	5,209	6	784
	유료노인복지주택		12	2,158	1	40
노인	노인복지회관		163		5	
여가	경로당	552	53,616		6,434	
복지	노인교실	577	1,002		65	
시설	노인휴양소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가정봉사원 과견시설	3	260	399	32,752	20
	가정봉사원 교육시설			3	853	1,691
	주간보호시설	3	27	280	4,618	14
	실비주간보호시설			66	1,064	3
	단기보호시설	1	9	103	1,568	9

자료 : 보건복지부(2007). 『노인복지사업 지침-시설 현황』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그리고 실버관광을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여가·문화 분야를 중점으로 하는 실버관광에도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 일례로 보건관광사업은 2000년부터 한방병원과 보건 분야 관광 형태로 외국인 대상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다(Amo et al., 2006; Carrera et al., 2006; 정두채 외, 2000). 더불어 노인소득·고용의 욕구충족, 취약노인 즉 재가 요보호 장애 고령자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을 통한 건강서비스 체계구축(서강, 2000) 등은 행정체계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실버산업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욱 발전하면 향후 지역 내 총체적인 행정적인 제도에 의한 실버산업 육성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실버산업 발전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 현재 지역실버산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의 10%에 달하는 경주에 저소득 노인이 아닌 일반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꼭 필요하나, 위의 <표 2-10>과 같이 전국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은 12개소이며, 경북에는 1개소가 있으나 경주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주거시설 위주의 노인복지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노인복지법' 제31조에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하여 주거시설 위주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일반, 실비, 유료), 노인복지주택(실비, 유료)의 5가지가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실비노인, 유료노인으로 구분된 요양시설, 노인과 유료노인으로 구분된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의 6가지 시설을 두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의 4종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4종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속하며, 마지막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신고, 상담, 예방 및 보호 등을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대로 시설 위주의 노인복지사업은 저 출산·고

령사회기본법의 11조, 19조 등에 근거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을 법적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된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 시행됨으로써 실버산업은 큰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 데(유문무, 2006; 법제처, 2005),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주거관련 실버산업 분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의료관련 실버산업 분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생활관련 실버산업 분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여가관련 실버산업 분야로,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실버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발전, 운영되어지게 된다.

<표 2-11>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대상

구 분	세부시설
장기요양 서비스	홈헬퍼, 단기보호, 주간보호, 유료노인복지시설(주택), 노인보건시설, 주택개조, 방문간호, 복지용구의 임대, 재택호스피스
위협방지/ 안전시설	보행보조기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용 시설, 고령자 위험방비 주택, 자동차, 가정, 아이디어 상품
의료/건강	고령자 진료소, 장기 요양·의료 정보제공서비스, 건강식품, 스포츠클럽, 고령자 건강 카운슬링
여가/오락	음악/영화/게임, 여행/취미/오락, 고령자 음식점, 애완동물관련 서비스 자서전 집필대행 비즈니스
생활	금융서비스, 민간보험, 이주지원서비스, 인터넷통관, 노인촌, 노인의복 식주택배서비스, 장의서비스, 묘지서비스
정보/학습	문화정보시장, 노인대학, 자격비지니스, 서적/잡지, e-Health 등

자료 : 변재관(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 발췌 재인용.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대상 분야는 <표 2-11>과 같이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거비·의료비 등 생활자금 확보와 보유자산의 운용·관리 분야, 노후소득보장의 형태인 노령연금, 개인저축과 개인연금, 기업연금과 퇴직금제도, 비공식원조 등으로 분류된다. 고령자관련 금융상품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고 있는 노후관

련연금이나 각종 보장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후대책을 준비하려는 예비고령자와 소득수준이 높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마다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보험, 퇴직금 관리 등이 있다. 자산관리부문은 일부 제도적인 미숙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실버산업의 분야는 주거, 의료, 금융, 생활과 여가분야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관광산업과 실버산업의 상관성을 소극적인 관점에서는 여가분야에 한정할 수도 있으나, 지역사회의 실버산업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이 논문에서는 '여가분야'를 우선 고려하면서 주거, 의료, 금융, 생활을 포함하는 실버산업(silver industry)과 연관한 실버관광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유성이 보존이나 부가적인 매력 창출을 기준으로 볼 때, 경주와 같은 역사문화관광지역은 현재처럼 규제 중심 정책과 경제적 낙후감, 소외감을 일으켜온 바, 배타적인 지역문화 관광개발을 벗어나 역사적 공간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주지역의 관광여건에 대해 여가산업과 연계한 실버산업에 대한 논의는 실버관광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경주가 가진 역사문화 관광지의 특성 상 타 산업보다 연계를 통한 실버산업 개발에 대한 국내외 실버수요자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외 현황연구

(1) 일본 실버관광산업

실버산업(silver business or silver industry)의 일본의 동향을 보면 1989년 12월에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방안'(gold plan), 1989년부터 '고령자의 삶의 보람과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고령자 종합 상담 센터', '고령자 서비스 조정팀' 등을 설치하여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⁸⁾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일본의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은 다시 재가복지대책과 시설복지대책으로 크게 양분되고, 전자인 재가복지대책은 원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들 가정에 홈 헬퍼(home helper)를 파견, 일상생활용구 제공, 또는 단기보호(day service)를 시행한다.

<표 2-12> 일본의 실버산업 분야

	품 목	참여업체	특징
식 생 활	기능보완형: 의료식, 노인식 등 건강유지형: 저염간장, 된장, 저지방 우유, 저칼로리주스, 소맥배아유, 약초주 기호대용형: 일본풍 치즈, 드레싱 전통중시형: 명과, 절임야채 등 고급지향형: 생선회간장, 일류레스 토랑·호텔의 반찬류	티쇼크, 기코만, 메이지 유업, 토라야, 다이안, SB식품, 롯데, 큐피 등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인약화를 보완 및 보강, 건강의 유지와 노인의 기호에 맞추어 개발
의 생 활	작업복, 원터치 내의, 고령자용 내의, L 사이즈 의류, 특수건강내의 등	와코루, 다이에, 군제, 카시와야 등	착용이 간편하며 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노년층 관광객 욕구에 맞춤
주 생 활	노인홈, 실버용 맨션, 실버용 커뮤니티, 실버용 호텔, 실버용 스테레오 보청기, 건강침구, 병약자용 욕조 등	일본노인복지재단, 미사와홈, 일본건강관리사업단, 일본신판, NTT, 소니, 토토	종신임금제나 분양 방식, 병원인접, 건물 내 의료시설, 경치 좋은 지역에 건설
여 가 생 활	고령자에게 혜택을 주는 각종 국내외 여행상품, 문화센터의 일본화, 수묵화, 서도, 문재강좌, 게이트볼, 여행 등	국가 철도회사 항공사	여행코스가 여유있으며 고급호텔, 고급식사, 세심한 배려 제공

자료 : 이인수 외(2004). 『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와타나베 카즈도시(2005). 주식회사 일본 Care Supply 개요, Nippon Care Supply.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미나 자료』,
카나자와 토미오(2005). 고령자주택 sun city의 운영관리실태 및 전망. (주)하프센츄리모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미나 자료』.

8) 홈 헬퍼(home helper)(가정봉사원의 파견사업), day care center(고령자를 낮 동안 한 시설에 모아게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short stay 사업(특별양호 노인홈 등에 단기체재하며 보호를 행하는 사업) 및 'night care사업' 등 재가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후자의 시설복지대책은 노인용 주택과 노인복지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가 촉진대책으로 고령자에게의 직업 소개와 노인클럽 활동조성 등을 통해 보람 있는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주거관련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입소시설인 양호 노인 흄, 특별 양호 노인 흄, 실비 노인 흄, 유료 노인 흄의 4가지가 있다. 이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료 노인 흄은 종신이용권·임대·분양 등이 있고, 입지 형태로는 도시형·도시근교형·리조트형·전원형이 있다. 그리고 주로 공공부문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노인복지센터와 노인휴식의 집 및 노인 휴양 흄 등은 일시 방문하여 휴식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무료나 저렴한 비용에 노인의 심신증진과 건전한 휴양오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재택서비스는 공적복지서비스중심으로 발전해 실질적으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양하면서 노인산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물론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단기 보호 사업을 일본의 순수민간기관인 사단법인 실버산업진흥회(Elderly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의 ‘건강장수마을’등과 같은 실버산업분야와 실버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현황은 <표 2-12>와 같다. 또한 일본의 의료관련 노인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의료비 중 약 40%를 차지하며, 노인입원에 의한 의료비는 약 47%로 의료수요와 장기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점차 노인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일본의 민간 기업이 병원시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의료요원파견 등 다방면에 걸쳐 의료관련 사업(재택 케어 제외)에 참여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가사업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소득과 일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취업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기관으로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 및 공익법인인 실버인재센터 설립·운영을 들 수 있다.

주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관련 서비스로 노인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정년퇴직자들을 위한 취업알선과 인재파견 및 교양관련 생애교육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고령자계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규모는 전체 소비의 13% 정도에 해당하며, 관광부문의 소비지출이 나머지 부분을 합친 것 정도의 규모이다. 취미창작부문으로는 스포츠부문·정원 가꾸기·영화감상 등이 있으며, 가라오케 등의 오락부문도 있다. 위의 각종 노인시장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전하고 있는데, 식품관련시장과 의류관련시장·재건축시장·자동차시장·화장품시장 등이 그것이다. 또한 건강식품·고령자용 의료식 및 기능성 식품 등 노인식품과, 로얄 제리·인삼 등의 건강증진식품과 영양보조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 등의 건강식품과 병원경영 컨설팅, 건강진단관리 서비스, 건강시설 서비스, 건강기기, 건강식품 등의 건강관련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실버산업 분야의 발전은 우리나라 고령 친화산업의 정책 수립에 영향이 크며 (유문무, 2006; 활동원, 2005; 박수천, 2005), 향후 국내 고령친화산업이 정착되기까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2) 미국 실버관광산업

미국 실버관광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거, 금융 분야, 재택간호로 나뉘는데, 주거분야는 미국의 65세 이상인 세대주의 약 75%가 자기소유의 집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독립형 주거시설이나 공동생활형 주거시설(shared housing)에 거주하고 있다. 독립형 주거시설 형태로는 모빌 홈(mobile home), 임대주택, 호텔, 은퇴노인용 주거시설(retirement community) 등이 있다. 공동생활형 주거시설 형태로는 요양원(nursing home)과 생태형 주택(eco-housing) 및 동거주택이 있다. 양로원(retirement facility)은 연령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체력의 약화로 독립적인 주생활과 주택관리가 힘든 사람들이 숙식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시설이다. 고령자 주택단지로는 선 시티(sun city)와 레저월드(leisure world) 등이 있다.

그리고 금융 분야 실버산업은 금융상품 및 금융 서비스, 세무대책, 재산운용

대책 등이 있는데, 금융상품 및 금융 서비스에서는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종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 없는 당좌예금, 대여금고 무료사용, 유언의 관리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무대책은 자산운용 및 절세와 관련한 상담이 주종이며, 재산운용대책이란 소유재산의 운용과 상속인의 세 부담에 대한 계획·작성·조력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의료분야의 미국형 재택간호 서비스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실버산업영역이며 세인의 관심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영리단체가 전체운영의 약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재택간호서비스를 전역에 24시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성공적으로 치료 및 간호, 가정봉사원 파견, 의료기구나 의료용품 공급, 건강 상담, 쇼핑대행, 산업 서비스 등의 노인사업을 포함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여가분야는 노인계층의 관심분야 중의 하나이며 보람된 삶을 위한 레저와 교제활동분야 서비스를 위해 200종류가 넘는 노인 여행 프로그램이 호텔과 숙박업계의 고령자 클럽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텔 등 숙박업계와 백화점 등의 고령자 클럽들은 노인실버관광객에게 호응이 좋으며, 고정실버관광객 확보노력(예: '9월 클럽-September Days Club')과 가입회원들에게 교양·레크리에이션·사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3. 실버관광의 과제

1) 국내실버관광의 현실적 과제

실버관광객의 특성 연구 다음으로 국내 실버관광의 현실적 과제에서는 향후 역사문화관광지의 실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4가지로 구분하고 먼저 우리나라의 실버관광을 정책적 측면, 실버관광객, 실버산업, 관광목적지(정책 담

당자나 지역주민)의 과제 순으로 살펴보고, 다시 경주지역의 실버관광정책, 실버관광객, 실버산업, 관광목적지(정책 담당자나 지역주민)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2005년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발의되고 2006년 제정·시행 중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실버관광의 분야를 변재관(2004)의 실버산업의 각 분야와 비교하여 실버관광 개발이 가능한 세부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구분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실버관광의 범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실버관광객, 실버관광산업, 실버관광객의 관광목적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실버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버산업정책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법제화 정비 및 종합관광개발의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방법의 정비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실버시설을 노인시설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실버시설과 반드시 의미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일반적인 실버관광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 운영하는 24시간 상담전화로 연락이 가능한 노인보호시설이다.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속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표 2-13>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상 실버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종류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유료 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단기보호시설
실버타운	낙원대실버타운, 청주실버빌리지, 샹트팰리타운, 흰돌실버타운 김제노인전용주택, 서울시니어 타운, 월명성모의 집, 피터하우스 서울시니어타운(분당타워), 보난자라이프골든빌리지, 수동시니어타운, 아름다운 은빛농장

자료 : 보건복지부(2007).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논자 재구성.

<표 2-13>은 실버시설의 범주에 드는 영리목적의 유료시설의 종류이며, 그 중 실버타운으로 낙원대 실버타운, 청주 실버빌리지, 샹트팰리리 타운, 김제노인전용주택, 서울 시니어타운, 월명성모의 집, 서울 시니어타운(분당타워), 보난자 라이프 골든 빌리지, 피터하우스, 수동시니어타운, 흰돌 실버타운, 아름다운 은빛농장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실버시설의 확대와 함께 고령자의 수적 증가 및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 경기침체와 재정압박이라는 배경 하에 일본의 고령자 주거 정책과 같은 선진국형 실버정책의 방향이 공공중심에서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보조 중심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한상훈, 2006). 그러므로 국내의 실버관광도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의 지원 형태를 현재의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구체적인 실버관광방안 제시가 필요 한 단계이다. 다시 말하여 향후의 실버관광정책에도 <표 2-14>의 개발 가능

분야 별로 구체적인 실버관광 실행 전략이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4〉 실버관광 정책 개발 가능분야

실버관광	개발 가능 분야
실버관광정책	실버용품산업, 실버관광서비스 개발, 실버관련 (이주지원서비스, 인터넷통판, 노인 촌락, 노인의복 식사택배서비스, 장의서비스, 묘지서비스 등) 활성화 정책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정책	U-Healthcare 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고령자 고용/소득	지역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정책
보장 정책	실버관광객의 체재를 위한 재정지원(금융서비스, 민간보험)정책
주거교통요양 인프라 확충	은퇴노인 복지촌(실버타운), 자연친화적 맞춤형 농촌주택개발, 교통, 환경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제반 정책

자료 : 법제처(2006).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논자 제구성.

그러나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환경적 부담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고영종, 2003). 여기에는 기존의 행정정책이 관주도형에서 민영화 형태나 민간 협력화한 제3섹터 방식의 도입(박상무, 2003; Lahey, 1999)등과 같은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주도형 실버정책사업의 사례인 의성군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경상북도 외 15 개 단체(의성군 소재 민간 양·한방 의료재단 5개소, 병의원 각1개소, 한의과대학 지역개발센터 및 지방공사의료원인 안동의료원, 국립한국농업대학,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실버타운 건설 자문 건설회사, 재경 의성 향우회, 노인복지용품 유통서비스 센터 운영사, 타조산업 운영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향후 2017년까지 10년에 걸친 고령친화 모델 지역화 사업으로, 이러한 실버관광정책의 경험을 통해 지방정부의 실버정책이 활발히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실버관광이 이루어 질 경우 실버관광객은 배려받기를 원하면서도 짚은 층과는 달리 서비스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양한 성향의

실버관광객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버관광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제공이 병행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실버관광객 대상 사업은 주로 실버관광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즉, 실버관광객은 노화현상이라는 급격한 신체변화기에 만성질환을 동반한 신체활동 장애 및 소외와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와 함께 정서·심리적으로는 자기중심적 사고나 강한 독립심 또는 반대로 지나친 의존을 특징으로 하기도 한다. 물론 은퇴노인들로서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높은 여가욕구에 비해 실제 소비성향은 수동적이고 품질 지향적이다. 이에 따라 실버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수요구조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실버관광은 이런 특성을 잘 고려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표 2-15> 실버관광객 관련 개발 가능분야

실버관광	개발 가능 분야
실버관광정책	실버용품산업, 실버관광서비스 개발, 실버관련 (이주지원서비스, 인터넷통판, 노인 촌락, 노인의복 식사택배서비스, 장의서비스, 묘지서비스 등) 활성화 정책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정책	U-Health Care 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고령자 고용/ 소득보장 정책	지역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정책 실버관광객의 체재를 위한 재정지원(금융서비스, 민간보험)정책
주거교통요양 인프라 확충	은퇴노인 복지촌(실버타운), 자연친화적 맞춤형 농촌주택개발, 교통, 환경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제반 정책

자료 : 이인수(2005); 법제처(2006).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또한 실버관광객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실버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개발이 가능한 분야인 <표 2-15>와 같이 실버관광지로 이동하는 원거리·근거리 교통연계서비스, 실버관광지 체재를 위한 숙박지원서비스, 은퇴노인 복지촌(실버타운), 자연친화적 맞춤형 농촌주택개발, 휴식 및 안전을 위한 휴양, 의

료, 건강 활동 서비스, 휠체어 등 이동 지원 센터, U-Health Care 시스템, 접근성 좋은 실버용품 공급점, 다양한 실버용품개발 비치 및 정확한 안내시스템, 노인의복, 식사 등 일상생활 편의점 운영, 여행/취미/오락, 음악/영화/게임, 고령자 음식점, 애완동물관련 서비스, 자서전 집필대행 비즈니스 등, 기타 실버관광객 관광활동 지원인력양성- 예약지원도우미, 시설안내도우미 등이 있다.

셋째, 새로운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저소득층 위주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중심에서 실버산업 지향의 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지역의 관광개발 차원이 아닌 상위의 국토개발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실버관광개발이 실버산업의 개발을 이끌어내는 계기라면, 향후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안정된 실버계층의 소비성향을 통해 국내외 관광과 연계하는 여가산업 수준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및 지원, 노인형 편의주택, 민간노인요양병원 설립 지원, 노인복지용품 생산 및 유통 확대가 가능해지는 산업화를 의미한다(변재관, 2004). 한국관광공사(2006)의 실버관광 휴양시설 확충계획에 따르면 2005년에는 인천시와 협력하여 중국노인 150명의 방한을 통해 중국 노인 단체 민간교류 관광 상품을 개발하였다.

<표 2-16> 실버관광목적지의 개발 가능분야

실버관광	개발 가능 분야
실버시설	자연 및 인문관광자원과 교통기반 시설, 각종 시설자원과 정보조직, 체공체계, 각종 실버서비스, 유료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노인촌락), 은퇴노인복지촌, 은퇴농장 등
사회활동	정보/학습(평생교육, 정보화) - 문화정보시장, 노인대학, 자격비지니스, 서적/잡지, 홈 헬퍼, 단기보호, 주간보호, (주택), 노인보건시설, 주택개조, 복지용구의 임대, 채택호스피스

자료 : 이인수(2005); 법제처(2006).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우리나라의 실버관광목적지의 개발 가능 분야는 <표 2-16>과 같이 실버관광객을 위한 편의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버시설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실버시설들은 일반적인 자연 및 인문관광자원과 교통기반 시설, 각종 시설자원과 정보조직, 제공체계에 실버서비스를 연계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노인촌락), 은퇴노인 복지촌, 은퇴농장 등의 지역 단위 시설이 또한 해당된다. 물론 실버관광목적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버관광과 관련된 정보/학습(평생교육, 정보화)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정보시장, 노인대학, 자격비지니스, 서적/잡지 등의 일상생활 물품과 홈 헬퍼, 단기보호, 주간보호, (주택), 노인보건시설, 주택개조, 복지용 구의 임대, 재택호스피스 등 보호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본 연구의 실버관광목적지는 실버관광객의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 지원서비스의 목적에 적합한 종합적인 관광지로 조성·운영되는 관광목적지로 실버관광객의 의사결정에 의해 실버관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실버관광에 있어 실버관광목적지의 정책 담당자나 지역주민들은 매우 중요한 협력자들이다. 이들 실버관광과 실버관광목적지 주민 인식도 간의 관계는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개인적 특성변수가 관광개발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광목적지 지역민의 관광개발 지원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Nicolau & Mas, 2005; 박진희 외, 2004). 이와 같은 관광목적지의 관광개발과 관광목적지 지역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는 Ap(1990)의 지역주민 대상의 탐색적 관광개발 연구 및 강미희·김성일(1998)의 관광에 대한 지역사회의 주민 지각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연구들이 있다. 이와 함께 관광목적지 주민들의 지원도에 관련하는 관광객의 태도나 인지도는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요소를 포함한 관광 효과에 대해 느끼는 주민의 지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Moshin, 2005; 정병웅, 1998). 또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Alipour, 1996), 관광목적지 주민에 의해

관광지 실버산업 개발도 큰 영향을 받는다(Yoon et al., 2000).

또한 실버관광목적지의 정책 담당자나 지역주민만큼이나 실버관광에 중요한 부분이 지역의 실버관광의 ‘상품’과 ‘서비스’ 성격을 지닌 자연 및 인문관광자원과 교통기반 시설, 각종 시설자원과 정보조직, 제공체계, 각종서비스 등이다. 이러한 관광정책과 서비스 문제의 경우는 지역관광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자연 및 인문관광자원과 교통기반시설, 각종시설자원과 정보조직 제공체계 등이 실버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버관광은 지극히 제한된 일부 시설과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는데 온천휴양관광, 역사문화유적지의 순례형 관광, 가족과 함께 혹은 여행사를 통한 효도관광 및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물리적인 시설(barrier free design)등이 있다(오경석, 1996; 고동완 외, 1994).

그러나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에서의 실버관광은 일상생활에 기반을 둔 실버관광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만큼 실버관광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다. 또한 이들 투자의 적정 시기나 규모의 문제는 고령화의 추이에 따라 적절히 조절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보유한 역사문화관광도시의 관광시설 등을 실버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자중심에서 수요창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실버관광객의 요구에 적합한 의료, 위락, 주거, 교육 등 연관서비스로의 사업범위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고유성이 보존되는 가운데 부가적인 매력이 창출될 수 있다(한상훈, 2006). 그리고 실버산업의 개발 가능분야는 실버관광정책, 실버관광객, 실버관광목적지의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데 요약하면 <표 2-17>과 같다.

<표 2-17> 실버산업의 개발 가능분야

구분	개발 가능 분야
실버관광	의·식·주를 포함하는 각종 실버서비스, 실버관광 상품 개발 접근성 높은 실버관광자원과의 교통기반 시설 시설자원에 대한 편리한 정보조직 및 제공체계 이벤트를 통한 건강프로그램(걷기주간 경품행사 등)
주거 (위협방지시설)	고령 친화적 주거·교통·요양 시설 중심, 유료노인복지시설(주택), 주택개조, 노인보건시설
건강서비스	e-Health 등, 복지용구의 임대, 재택호스피스, 고령자 진료소, 방문간호, 장기요양·의료 정보제공서비스, 건강식품, 스포츠클럽, 고령자 건강카운셀링
금융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 보험 등
실버용품	보행보조기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용 시설, 고령자 위험방비 주택, 자동차, 가정, 아이디어 상품

자료 : 이인수(2005); 법제처(2006).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주거분야만 강조된 실버산업이 주종이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표 2-17>의 실버산업분야를 추가 개발한다면 지역 실버관광은 더욱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원용희, 2000). 실버관광의 현실적인 과제를 다시 요약하면 첫 번째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정책적 측면에서는 실버관광에의 구체적인 접근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더욱이 앞으로는 공공부문과 비영리 및 영리민간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실버관광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실버관광의 개발 가능 분야로는 요양보호를 포함한 실버주거시설, 실버복지시설 및 제반 정책, 건강관련서비스, 여가활동 및 관광활동, 평생교육과 정보화, 고용 및 소득보장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원용희(2002)는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및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의 실버텔 개념과 사업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기본개념을 확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김현(2003)은

복지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노인복지관광을 제안한 바 있다.

두 번째, 실버관광객을 위한 과제로 다양한 성향의 실버관광객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버관광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제공이 병행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실버산업의 과제는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안정된 실버계층의 소비 성향을 통해 국내외 관광과 연계하는 여가산업 수준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및 지원, 노인형 편의주택, 민간노인요양병원 설립 지원, 노인복지용품 생산 및 유통 확대가 가능해지는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실버관광목적지 과제는 실버관광객의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 지원서비스의 목적에 적합한 종합적인 관광지로 조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 지역주민, 실버관광객의 욕구에 적절한 목적지의 실버관광 상품의 개발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실버관광서비스 성격을 지닌 자연 및 인문관광자원과 교통기반 시설, 각종 시설자원과 정보조직, 제공체계, 각종 서비스 등의 개발 및 개선 노력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지인 경주지역의 실버관광목적지로서의 과제에 대한 논의도 또한 필요하다. 가장 먼저 경주지역의 실버관광을 위한 지역의 환경을 먼저 살펴보고 실버관광의 과제를 ① 정책, ② 실버관광객, ③ 실버산업, ④ 관광목적지(정책 담당자나 지역주민)의 순으로 나열하였다.

2) 경주지역 실버관광의 현실적 과제

경주지역의 역사적 환경을 보면 신라시대에는 현재의 경주시 주변의 산곡은 석기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의 주거지로 일찍부터 육촌이 있었다. BC. 57년 육촌이 연합 박혁거세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고 국호를 서라벌 사로 또는 사라로 하고 수도를 금성으로 칭하였다. 고려시대에 태조 창건 시 경주로 개칭하고

연후 동경, 낙랑군, 동경, 계림부로 불리다가 조선시대 태조 창건 시 계림부로, 태종이 경주부로 개칭 한 후 고종 때 경주군으로 개칭하였다. 근대 이후는 1931년 경주면이 읍으로 승격, 1955년 경주읍이 경주시로 승격하면서 월성군을 분리하였다가 1989년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개칭, 1995년 경주시와 경주군을 통합한 경주시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원태 외, 2004).

경주도시기본계획을 인용하여 경주시의 도시특성을 재구성하면, 2006년 현재 경주시의 인구는 28만 명으로 경상북도 시급도시 중 3위에 해당되며 인구 비중은 전국대비 0.65%, 경북시계대비 13.4%이다. 주거지 인구밀도는 18.9천인으로서 1996년에 비해 5년간 0.2천인/km²이 높아졌는데 이는 용도지역 중 주거 지역의 변화 없이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할 때 주거환경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년 평균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이 1.00% 증가하는 동안 경북시계는 0.45%, 경주시는 0.21% 증가하여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9년 이후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이 증가추세를 보인 경북시급 도시는 포항시(0.53%), 구미시(0.75%), 경산시(0.92%) 등 지역산업을 확보한 도시들이다(경주시b, 2006). 따라서 경주시의 경우, 인구감소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인구유입 매력요인인 산업단지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고, 현재는 천북 지방산업단지, 외동 제2산업단지 등이 개발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인구의 사회적 증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이동율을 살펴보면, 전국은 0.20%의 인구유입(전입인구>전출인구)에 의해 인구가 증가한 반면, 경주시계는 (-)1.01% 인구유입(전입인구<전출인구)이 있었으며, 경주시는 (-)1.14%의 인구유입이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 현재 경주시의 인구는 남 144,336명, 여 145,813명으로 여자 인구가 1,500명가량 많다. 비율별로 보면 30-34세의 인구가 18.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국적 수준과 유사하나 25-29세 인구는 전국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55세 이상의 인구는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비

율을 나타내고 있다. 농촌적 성격을 지닌 타 지방도시에 비해서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8> 65세 이상 노인 인구

시 · 도	인 구	시 · 도	인 구
합계	4,324,780	경기	755,511
서울	731,349	강원	183,471
부산	302,784	충북	168,670
대구	195,419	충남	261,797
인천	178,602	전북	243,785
광주	99,389	전남	306,439
대전	99,811	경북	360,086
울산	57,977	경남	323,895
		제주	55,795

자료 : 통계청(2006). 『주민등록 인구-2005.12.31 현재기준』.

2006년 현재 경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표 2-18>과 같이 35,136명으로 전국 (430만명)의 9%, 경상북도(360만명) 노인인구의 10%로 나타났다(경주시, 2006a; 경주시, 2006b; 법제처, 2006). 경주지역의 자연환경 상, 현재 경주 지역의 면적은 1,323.69km²로 전 국토의 1.3%에 해당하는 반면 주거지 인구밀도는 2000년 18.0천인/km²로 경북시계(17.8)보다 높게 나타나 도시공간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도시개발은 어려움이 많다.

또한 경주지역의 인구는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들이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인구고령화 비율은 2005년 현재 12.8% 정도로 과거 5년간 약 2.1% 증가하였으며, 독거노인은 전국 평균의 약 4배로 매우 높다. 그나마 경주시 경제활동인구 69.2%가 20대에서 4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여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주시 산업 종사자 구성비도 2차 산업이 매우 높은 형태로 영세한 2차 산업의 역할이 그나마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 2차 산업 종사자들이 고령화하고 있어 지역의 산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한상훈, 2006; 경주시, 2006a).

더구나 지역의 관광환경을 보면, 본 연구의 대상지인 경주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문화재로 인한 제약과 주민의 개발욕구 사이의 상충으로 인해 경주를 ‘오래됨의 미학’을 지닌 역사도시가 아니라 ‘낡음’과 ‘부조화’된 경관을 지닌 도시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경주는 그 역사적·문화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도시환경이 열악해짐으로써 점차 ‘주민들이 떠나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은 경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그것이 주민생활에 실익을 주어 경주를 외지인(방문객)과 주민(거주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문화관광부, 2004).

마찬가지로 경주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유적관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지로 도시 전체에 문화재 및 사적지가 분포되어 있다. 특히 경주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1960년대 거점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되면서 고급화된 숙박관광지를 결합시킨 체재형 관광시설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보문단지)에 많은 자본 투자와 고급숙박시설(특급호텔)건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경주지역의 관광산업은 문화위주의 정책에 다소 밀려나 관광객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경주관광객 중 60세 이상 관광객의 비율은 1.6%였다. 그리고 실버관광이 경주지역의 관광정책 대안으로 등장하기 위한 지역 주민의 낮은 실버관광 요구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4). 또한 경주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 환경에서 조차 그간 문화재 보호·규제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생활상의 불편함과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동시에 실질적으로 지역 내 산업개발조차 제한을 받음으로써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물질문명의 소외감마저도 느껴오고 있다(강신겸·김현주, 1999). 경주지역의 다른 문제점은 보유한 잠재관광지들 중 특정관광지에만 몰리는 관광객 집중현상과 부족한 행정·경제력으로 인해 시군통합 후에도 지속되는 도심 위주의 편중된 개발정책 등이 있다(변우희, 2001). 또한 차별적이고 세분화된 관광 경험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의 욕구증대로 인해 다양한 관광지 및 상품이 개발되어야 함에도 관광객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경주관광산업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이것은 실버 층이 특히 민감한 음식문화 상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향토음식 발굴이 시급하다(이연정·최수근, 2004).

이에 한상훈(2006)은 경주실버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연구보고에서 2차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는 지역 내 노인주거 및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관련시설 수요를 유발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경주지역이 지난 양호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실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경주지역 내의 실버 필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며, 우선적으로 기존의 관광시설을 활용한 실버관광의 개발을 통한 지역 내 실버관광의 새로운 위상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마찬가지로 21세기는 지역관광개발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추세인데 고령친화산업지원정책의 지원을 받는 실버관광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또한 의성의 고령친화 모델 지역 시범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버관광은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대안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산업개발까지도 연계가 가능한 분야이다.

경주지역의 향후 실버관광정책은 경주시의 도시 개발중심 측을 서측개발 예정지인 화천 신시가지를 포함하는 관광도시 성장방안으로 다양한 계획을 시행 중이다. 그리고 실버관광과 같은 독자적인 자원을 개발하고 확충해 나가면서 특성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 및 도시이미지 홍보 강화정책을 병행하는 방안이 계획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4). 다음에서는 경주지역에서의 관광활성화의 대안으로 본 논문이 제시한 실버관광의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요약하였다.

첫 번째로 경주지역이 관련된 상위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실버관광 관련 주요정책으로는 노인복지계획(Silver Action Plan)이 있다.

<표 2-19>를 보면 경주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의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 고도화를 발전방안으로 하는 환동해권의 첨단산업·문화 중심지화'사업지역에 속해 있다. 또한 북부 자원권, 동부 연안권, 중서부 내륙권, 남부도시권 등 경북지역의 4개 권역들 중 동부 연안권에 속하며 또한 10대 광역권 중 대구·광역권으로 분류되는 한편 7대 문화관광권 중에서는 대구·경북권에 속해 있다.

<표 2-19> 지역관광개발의 추진방향

구 분	주 요 개 발 방 향
	-포항·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으로 나누어 추진
동부 연안권	-태평양시대 국제교역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항만 개발 -세계 문화·관광·휴양지대: 신라문화, 동해연안 관광자원 연계
10대 광역권 대구·포항 권	-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기반산업 육성
7대 문화관광권 대구·경북권	-전통문화와 섬유이벤트
기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상의 경주지역은 전자·정보기기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기반산업으로 진행 대구-포항 권 광역개발 프로젝트-문화·관광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및 역사문화자원보전

자료 : 강양석·이우종(2004). 『2020 경주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이들 주요 계획 속의 경주개발 방향은 주로 '신라불교문화권 및 세계적 문화·관광·휴양지대로의 개발과 국제회의도시로의 육성'에 있다. 경주지역의 주요 실버관광정책은 문화관광부의 7대 방안별 사업인 국민생활관광 기반 확충 중 복지 관광시설 장비·확충의 세부추진사업으로 실버계층 전문 휴양시설 조성 계획 및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에서의 '실버21 계획'에 근거하여 2020 경주도시기본계획에서 역동적이고 친환경적인 지역산업 육성 방안으로 실버산업부분을 포함하는 사업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강양석 외, 2004). 관광분야에

서는 제3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구체적인 실버관광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관광환경 및 기반시설조성계획에 의한 경주관광은 종합적인 조성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4).

<표 2-20> 실버관련 관광정책-경주지역

상위 계획	주관처	세부 사항
관광개발기본계획		
제2차 관광개발기본 계획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방안별 사업계획에 국민생활관광 기반 확충을 위하여 복지 관광시설 장비·확충의 세부 추진사업으로 실버계층 전문 휴양시설 조성계획이 포함
경상북도 종합계획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21 - 구체적인 실천방안 언급은 없음 - 의성 세로마지 플랜⁹⁾을 통한 도내 실버산업 육성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제3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실버관광 언급은 없음 - 관광환경 및 기반시설조성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경주관광지 조성계획 추진
노인복지계획(Silver Action Plan)		
경주 도시 기본 계획 (2020)	경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적인 노인복지기반 구축 - 여가활동부분을 포함하는 고령친화농업모형 개발 - 농산어촌 지역 내 건강·장수마을 조성 - 농산어촌 노인 눈높이교육,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복합노인복지시설, 전원형 은퇴농장 설치, 운영
실버관광정책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친화적 주거·교통·요양 시설 중심, 유료노인 복지시설(주택), 주택개조, 노인보건시설

자료 : 강양석·이우종(2004). 『2020 경주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논자 재구성.

9) 정부지원 정책으로 2007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 중.

<표 2-20>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주시의 노인복지계획은 향후 2020년까지의 경주도시기본계획으로 실버산업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농업모형에 관광(여가)활동부분을 포함하여 개발함으로써 생산적인 노인복지기반 구축을 실현하고 고령노인, 도시 은퇴자 대상의 복합노인복지시설 및 전원형 은퇴농장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WTO/FTA농업정책팀, 2005). 아울러 경주가 실버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이루기 위한 정책은 <표 2-20>에서와 같은 정책들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시행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경주는 역사문화관광목적지로서 각종 자연 및 인문관광자원과 교통기반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문화유산자원을 보전하면서 실버관광자원화 하는 정책적 노력은 이미 정부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고 있다(강양석 · 이우종, 2004).

두 번째, 경주지역을 찾는 실버관광객과 관련한 과제로 실버관광객은 본 논문의 주체로 관광정보 안내체계,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의 어려움(서태양 · 주선희, 2002), 관광루트와 관광코스의 효과적 구성 요구, 각종 기반시설 등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실버관광객의 인식이 높고 수요가 증가한다면 향후 실버관광에 대한 투자, 관광 네트워크의 지역연계 체계, 도로 및 고속 교통망 체계의 정비 등이 지역개발의 우선순위로 선택될 수 있다. 실버관광정보의 안내체계는 실버관광정보가 실버관광객에게 전달되는 제반 매개수단이자 운영체계이다. 예를 들면 시 전역의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판, 관광안내원, 관광안내책자(관광안내지도), 그리고 관광정보망 등 제반 전달체계에 대한 실버관광객 편의 위주로 각종 안내물을 비치하는 것 등이다. 물론 추가적으로 다양한 실버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관광루트와 관광코스의 효과적 구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버관광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들은 지역의 노인복지사업의 개발 수위에 동반하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주의 관광 상품 개발 노력도 부족한 상태이므로 향후 실버관광객이 참여 가능한 일정 즉, 평일 중심의 체험상품이나 건강관련 상품 등 지역이 보유한 세계적인 문화자원과 관광단지와 결합된 실버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관광루트와 관광코스부분에서도 2박 3일에 순회하는 관광은 실버관광객에게 무리한 일정을 강요할 수 있으므로 휴식·휴양과 관광일정의 적절한 배정에 의한 실버관광루트와 코스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제를 위한 대안으로는 다양한 성향의 실버관광객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버관광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제공이 병행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버관광목적지에서의 가장 부족한 부분인 실버관광인프라 부분(노인형 편의주택과 노인복지용품 생산유통 체계)등도 강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경주지역의 도심은 난개발과 광역 교통기반시설 미비로 문화역사도시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 부문이 전국 평균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가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만약 적절한 실버관광 대안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 추진될 수만 있다면, 실버관광은 관광목적지에서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노인여가·문화 분야 중심의 노인소득·고용 욕구충족과 취약하기 쉬운 노인 보건의 충분한 대비를 전제로 하는 실버관광만이 지역의 기반산업으로서의 실버산업개발과 연계를 바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버산업 및 행정체계와 법제도의 정비가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노인관광과 연계된 총체적인 행정적인 제도 정비가 요청된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점차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향후 역사문화관광 중심의 경주관광 환경도 크게 변화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 경주지역의 실버산업의 접근 과제는 결론적으로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안정된 실버계층의 소비성향을 통해 국내외 관광과 연계하는 여가산업 수준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및 지원, 노인형 편의주택, 민간노인요양병원 설립 지원, 노인복지용품 생산 및 유통 확대가 가능해지는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버관광목적지에서의 가장 부족한 부분인 실버관광인프라 부분 등도 많이 부족하다.

네 번째로 실버관광목적지로서 경주지역의 과제는 관광목적지 차원의 종합적인 실버관광 전략 구축과 실현 부분이다. 기존 문화재와 관광지간의 연계체계 및 계획 또는 조성중인 관광지와의 연계체계도 매우 미흡하며, 관광 네트워크의 지역 간 연계체계도 매우 부족하다.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 확보를 위한 지역에의 숙박 등을 유도하는 가운데,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접근 강화, 고속교통망 체계의 정비 필요는 경주의 주요 교통망은 대구권, 부산권, 울산권 그리고 포항권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방사형 교통축선이 발달, 교통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즉 경주는 주위의 인접 대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과의 연계성은 좋은 편이지만, 서울과 경기권의 도로 접근성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지역 및 도시 간 교통을 위한 광역가로망 체계와의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며, 관광지를 통과하는 교통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가 미비해 각종 이벤트가 개최되는 봄, 가을 및 주말의 교통량이 급증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즉 고속교통망 체계의 미흡과 불거리 · 즐길거리 부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숙박관광객인 서울 · 경기권 관광객이 매우 적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울산 · 포항 · 대구 · 김해공항과의 대중교통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이들 공항을 통해 경주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경주 고속철이 개통되는 2011년까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특별한 개선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실버관광객의 여가 · 관광 · 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의 목적에 적합한 종합적인 관광지로 조성 · 운영되기 위한 정책 담당자, 지역주민, 실버관광객의 욕구에 적절한 목적지의 실버관광의 ‘상품’과 ‘서비스’ 성격을 지닌 자연 및 인문관광자원과 교통기반 시설, 각종 시설자원과 정보조직, 제공체계, 각종 서비스 등의 개발 및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미래관광은 관광객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태관광(Cusack et al., 2006; Weaver, 2005) · 농촌관광(Pina & Delfa, 2005) · 체험관광 · 문화관광 등 관광 자체보다는 ‘어떠한 관광을 했나’라는 경험의 질을 중요시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체험이나 생태 관광 등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을 얻고자 하는 관광객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노용호 · 임채관, 2006). 또한 경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과 국토공간상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외부적 영향에 따라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정부차원의 유교문화 관광권 개발과 함께 주변의 관광지와 경주권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면 지역관광 활성화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의 해법과 함께 새로운 초고속시대에 대응한 체류형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지 않을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실버관광이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목적지 경주지역에서 개발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 매력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체재일수의 연장으로 21세기의 지역관광개발이 지향하는 관광산업의 고부가 가치 실현을 위해 대상자 중심의 차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제 3 절 실버관광 목적지의 잠재력 분석

1. 실버관광과 역사문화관광

실버관광과 역사문화관광의 관계에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경주지역의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문화관광도시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실버관광목적지로서의 역사문화관광도시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이고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그것을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화하여 잘사는 도시'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현재는 물론, 후대까지도 그 영향과 가치가 지속되어야만 하는 위상을 지닌 도시'를 말한다(문화관광부, 2004). 세계 역사문화도시의 사례로는 아시아의 일본 교토시, 중국 서안시, 유럽의 독일 쿠트링부르크,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그 등이 있다. 이 밖에 이탈리아의 베니스, 이탈리아 베로나와 피렌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일본 역사도시인 나라와 가마쿠라시도 있다.

이들 도시 사례들의 시사점은 첫째, 유럽 석조문화와 달리 목조문화 중심인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어려우며 유적 규모, 시간적 범위가 비교적 작은 한계를 지닌다. 둘째, 유럽의 경우 문화유적이 주거지 내에 위치하거나 거주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접근이 용이하고 친근감을 주는 경향이나 우리의 경우엔 유적과 거주지가 분리되고 유적은 유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유적을 문화공간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유적지는 관람위주의 소극적 활용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경영측면에 있어서도 장기적 안목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5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관광정책에서도 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관광활동을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파악해 복지측면에서의 정책을 수행, 2005년 5월부터 저

소득 중소기업체 근로자 지원 여행 바우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는 2010년까지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이 계획·실행하고 있는 것이다(문화관광부, 2006). 연구대상인 경주와 같은 역사문화관광지역은 도시 전체에 문화재 및 사적지가 분포되어 있는 국제적인 관광도시이다. 또한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자본집약도와 생산 의존도는 낮지만 고용효과, 소득 과급효과, 외화가득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력 있는 성장산업이다. 그러나 경주와 같은 역사문화지역은 일반적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주민은 생활상의 불편함과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았으며, 경제적 낙후감과 소외감을 느껴왔다.

실제로 관광목적지 실버산업의 주 관심분야인 여가/오락은 음악/영화/게임, 여행/취미/오락, 고령자 음식점, 애완동물관련 서비스, 자서전 집필대행 비즈니스 등이 있으며, 생활 관련분야는 금융서비스, 민간보험, 이주지원서비스, 인터넷통판, 노인 촌락, 노인의복, 식사택배서비스, 장의서비스, 묘지서비스 등이다. 현대노인의 특성상 추가되어지는 정보/학습부분은 문화정보시장, 노인대학, 자격비지니스, 서적/잡지, e-health 등이 있다. 실제로 실버산업은 ‘노인들과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대상인 생활의 안정과 편의, 건강유지 등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라고 보고, 대표적인 산업이 ‘실버타운 개발 및 공급하는 것’의 총칭이라 하였다(정현채, 2003).

오늘날 실버관광은 확대된 은퇴노인의 여가대책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노인보건·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실버관광산업이 개발, 운용되면 관광목적지에서의 마케팅 분야 등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박명순, 2006).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버관광은 고령친화산업분야의 한 부분이며 여가·관광·문화 및 건강서비스를 뺀 나머지 주거, 금융, 용품 등의 실버산업 분야들도 역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주거분야는 민간의 투자도 늘고 있는데 휴양형 유료주거단지 조성 및 지원, 의료분야의 유료민간노인요양병원의 설립이 이어지고 있어(박은주·오세규, 2003),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실버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다. 현재 실버관광목적지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도 역시 사업 인프라 부분인 노인형 편의주택과 노인복지용품 생산유통 체계 등으로 향후 지역 내 실버관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산업적 전망도 큰 분야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버관광의 주 소비층인 노인과 예비노인들은 기존 관광객과는 다른 의사결정(Zimmer et al., 1995) 및 소비행태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실버관광은 기존의 관광과 실버인구의 여가문화가 연계하는 차원의 문화관광이 되어야 하며, 자동차로 먹을 것을 싣고 이동하는 관광 형태 보다는 관광지가 휴양과 적절한 강도의 레저, 간단한 생필품의 쇼핑 등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종합적인 문화관광 레저단지화가 필요하다(Iwasaki & Mannell, 1999; Godbey, 1989). 또한 원활한 교통과 현지 이동수단, 지속적이고 연계된 서비스, 이용방법의 용이성 등 실버 층에 적합한 별도의 관광 프로세서를 가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 전문가에 의한 계획된 실버관광서비스의 체계에 대한 논의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경주지역의 실버관광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고 실버관광의 잠재력을 거시적 측면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경주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목적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실버관광의 현주소를 살펴보게 된 것이다. 더불어 서론에서 밝힌 지역적 범주 내에서 경주지역의 실버관광 잠재력 분석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경주와 같은 역사문화지역은 그 동안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주민은 생활상의 불편함과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았으며, 경제적 낙후감과 소외감을 느껴왔다. 지역문화의 관광개발은 관광대상으로서의 가치 확보를 위해 적합한 주제를 설정하여 역사적 공간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의 역사유적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

다. 관광자원의 가치에서 장시간적으로 관광개발을 할 경우, 육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정현, 2002). 따라서 현존하는 역사문화지역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은 후세대의 관광객과 관광산업에 물려줄 의무가 현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환경 친화적인 관광개발의 개념이 반영되도록 관광자원의 보존이 수행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고령의 관광객에게는 경주가 오래전부터 역사문화 유적관광지로 인식되어 지역 내 실버산업을 개발할 경우 국내의 실버수요자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기반 위에 기존의 역사문화관광지의 이미지와 실버 층의 주요 여가공간을 강화한 실버산업단지 이미지는 감포의 해양자원과 함께 가족단위 관광객의 위락기능화 프로그램 중심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해외 각국의 실버관광 정책은 적극적인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다양한 관광활성화 방안, 친환경적·문화적 도시계획, 효율적 도시경영 방안을 수립 시행되고 있다. 세부방안으로는 먼저, 적극적인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철저한 유적보존원칙을 견지하고, 유적보존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시민의 삶과 공존하는 유적지, 보존·복원을 위한 지원과 정보화 시스템 구축, 건축유산을 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다양한 관광활성화 방안으로는 도시를 대표하는 공예산업의 특화, 다양한 관광아이템을 활용한 아이디어의 승리이며 유적지와 문화 속 가공 공간의 효율적 마케팅,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 참여유도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셋째, 친환경적·문화적 도시계획으로는 유적보존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신시가지 개발, 구시가지의 엄격한 교통통제, 자연친화적 도시 만들기, 예술성 짙은 공공미술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역사문화유적도시화에 주력하였다. 끝으로 효율적 도시경영을 위해서 비효율적 운영주체는 민영화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과 역사 환경 보전 중심의 장소마케팅과 유휴 인력의 적극 활용, 부정적 상황을 이용한 도시마케팅 등을 통한 방문객의 재방문의 계기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역사문화도시의 한계는 개발과 보존이 여전히 상충하면서 구도심과 신시가지의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며 각종 규제로 인한 갈등 문제가 있으며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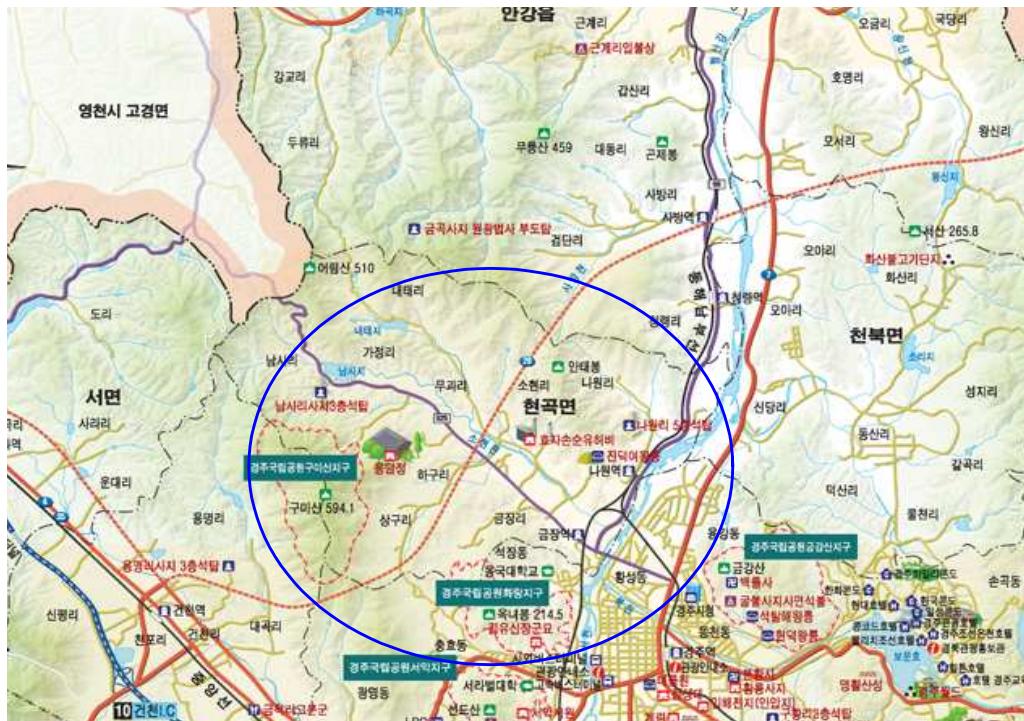
2. 관광루트와 실버관광의 산업적 연계

또한 역사문화관광목적지에서의 실버관광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게 되므로 관광목적지에서의 관광루트와 실버관광의 산업적 연계 또한 중요하다. 실제 경주지역의 경우 기존의 관광루트가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전국이 반일 생활권으로 변화하면서 지역 내 관광객의 체재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논제인 실버관광이 산업적으로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한 관광루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주지역의 관광루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최근 연구로는 신 관광루트 연구가 있다. 신 관광루트의 1일째는 경주시내지역을 중심으로 대능원, 첨성대, 계림, 반월성, 안압지, 박물관, 오릉, 나정, 포석정, 삼릉, 경덕왕릉, 분황사, 황성공원을 관광한다. 그리고 둘째 날은 영지, 패릉, 원원사지, 모화불고기 단지, 울산정자, 관성 및 하서해수욕장, 봉길 해수욕장, 문무대왕릉, 감은사지 3층 석탑, 이견대, 나정해수욕장, 장진 회 단지, 감포 항, 오류해수욕장, 포항 양포, 기림사, 골굴사, 장항리 5층 석탑, 자연휴양림, 석굴암, 불국사, 민속공예촌, 신라촌, 보문단지를 관광한다. 마지막 3일째는 양동민속마을, 흥덕왕릉, 옥산서원, 독락당, 정혜사리 13층 석탑, 나원리 5층 석탑, 용담정, 김유신장군묘, 무열왕릉, 금척리 고분군,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OK 목장, 산내(대현) 불고기 단지 등을 관광하는 루트이다. 경주지역의 신 관광루트에 대한 차별화된 신 관광루트 개발모형 구축을 시도한 이 연구는 당일형 관광루트 체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체재형 관광루트의 개발방안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손락조, 2004).

또한 기존 경주지역의 관광루트나 신 관광루트 모두 역사문화관광목적지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실버관광객의 관광활동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감상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중 노인들이 대상이다. 그러므로 실버관광목적지의 관광루트 개발은 다수가 아닌 한·두 가지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체험활동 위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강(2005)은 관련 설화 등의 문화해설에 따라 도보로 코스를 순회하고 다음날 도보 코스와 관련한 재현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광루트 등을 기존의 관광루트에 새로이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현곡권 관광루트는 현곡 지역의 관광루트에 김동리 문학과 예기소등을 연계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제안은 기존의 현곡면에 산재한 석장동 암각화, 나원리 오층석탑, 현곡면 오류리 등나무, 진덕왕릉, 남사리 삼층석탑, 남사리 북 삼층석탑, 용담정, 손순유허비, 김동리 선생 생가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각 관광루트에 무녀도를 연상케 하는 굿 체험이나 현곡면 오류리 등나무나 팽나무 사진 전, 암각화 사생대회, 용담정 산책로 등반체험, 김동리 기념백일장 등 주제를 가진 체재형 프로그램 개발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박현숙(2005)의 현곡면 금장리~남사리 구간 버드나무 관광길 조성 제안 등과도 연계하는 관광루트는 도보 혹은 자전거 등을 이용한 실버 층의 관광코스로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내 도심관광루트를 따라 걷기와 체험을 겸하는 것도 좋은 관광루트가 될 수 있으나 체재일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관광 루트에는 반드시 경주 문화엑스포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관광 전 안내를 포함하여 참여하는 관광활동의 의미와 정신을 함께 서비스하는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농촌지도소에서 발간한 종갓집 전통 음식들은 화보집으로만 제공되기 보다는 맛보고 직접 만들고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관광 상품화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루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매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술과 떡 잔치” 행사프로그램에서 체험행사를 좀 더 확대하는 노력 등 전통문화행사와 관

광목적지인 경주관광자원과의 연계상품개발 방안은 실버관광객의 특성을 살린 좋은 문화관광 상품이자 관광루트화의 출발점이며 개발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림 2-1> 경주지역 및 현곡권역 지도

기존의 경주 역사문화관광코스들은 실버관광객에게 오랜 신라의 정취와 자연환경 체험을 통한 휴식과 건강 활동, 그리고 골프 및 해상스포츠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루트로 발전할 수 있는 풍부한 실버관광자원이다. 최근 경주는 역사문화도시사업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개발자금의 유입, 한수원 본사 및 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인구유입 요인 등이 작용하여 향후 2020년까지의 경주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지대하다(이원태 외, 2004). 이에 경주시는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을 경주에 유치되는 국책사업과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등 거점사업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이 거점사업들

은 경주지역 산업경제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 사업 발굴과 권역별·부문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지역의 실버관광도 세계적 여건 변화와 중앙정부 중점 사업추진 방향과 관련된 지역 현안 과제들의 연계 개발이 실현될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실버관광객의 인식도 조사와 특성 차이 검정은 지역 내 실버관광 타당도를 평가함으로써 경주지역의 실버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주지역의 관광목적지 기능적 현실인 비수기와 성수기의 극심한 관광수요의 차이, 점진적으로 경쟁지역인 울산, 포항, 부산에 관광시장과 절대비교 열위의 관광시장 형성, 수학여행 및 신혼여행의 급격한 감소 및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의 부족 등 구조적으로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적 대안으로서 실버관광객을 위한 관광 루트개발 및 실버산업의 근본적인 정비 등 제반 대응방안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경주관광의 정책적 실행과제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광·여가산업과 연계한 실버산업 잠재력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실버관광은 55세 이상의 장·노년층 사람들이나 다소 젊더라도 특별한 정신·신체적 이유로 노인과 유사한 생물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사람 대상의 여가활동 중 관광활동이다. 또한 실버관광은 실버관광객 대상의 영리목적 사업을 의미하며 동남아 등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국내 실버관광의 연구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조차 부족한 공공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관광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다(이재모, 2005; 신정식, 2004; 이현기, 2001). 2006년에서야 복지관광 차원에서의 정책을 강화하고자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계획¹⁰⁾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관광환경 기반 조성사업의 일부로 제안되고 있는 정

10) 최근 급속한 사회 고령화에 대응 실버관광 프로그램 개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

도이다(문화관광부, 2006). 실제의 실버산업의 분야는 주거, 의료, 금융, 생활(식생활 포함)과 여가분야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관광산업과 실버산업의 상관성을 소극적인 관점에서는 여가분야에 한정할 수도 있으나, 지역사회의 실버산업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이 논문에서는 ‘여가분야’를 우선 고려하면서 주거, 의료, 금융, 생활을 포함하는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을 연관한 실버산업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역사문화관광지역의 고유성(Zeppel, 1998)은 보존이 원칙이나 부가적인 매력 창출을 기준으로 볼 때, 경주와 같은 역사문화관광지역은 현재처럼 규제 중심 정책과 경제적 낙후감, 소외감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배타적인 지역문화 관광개발을 벗어나 역사적 공간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주지역의 관광여건에 대해 여가산업과 연계한 실버산업 개발 논의는 실버관광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가 가진 역사문화 관광지의 특성상 타 산업보다 연계를 통한 실버산업 개발에 대한 국내외 실버수요자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관광여가 연구는 외국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관광과 여가의 개념 정립 시도와 때를 같이하여 한국에서 관광의 개념이 법제화된 1961년의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한 공인으로부터 관광여가연구가 실시되었다. 이 여가와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로 여가를 잘 사용하는 경우 삶의 부분, 즉 노동의 생산성 등이 향상되고 있다(하동현, 2006; 손영필, 2005). 최근에는 우리나라로 2006년 중반부터 시행된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개인의 휴가관광도 많이 늘어나면서 관광 여가 연구들도 체계적인 연구 즉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된 통합적인 연구 형태를 보이고 있다. 관광여가의 형태는 체계적인 연구요소 중 사회 문화 경제적인 요건 및 관광활동 후에 내재된 심리적 동기요인의 인식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변우희, 1992). 물론 실버관광객의 경우는 노동과 여가의 모호한 한계로 인해, 관광과 여가의 관계를 정의하기 어려운 부

분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여가의 인식체계 내에 포함된 관광으로 인식,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과 목적지 관광활동 및 타당도의 관계로 정의하였다. 고전적인 개념의 여가는 삶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돌보아지고 남는 시간에서 개인이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시간 즉 자유재량시간을 말한다. 반면 21세기의 여가산업(leisure industry)은 현대인의 여가시간과 행위에 부합되는 여가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공·사적인 경제활동의 총체적 경영조직이며(변우희, 1992)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람들이 행하는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및 용구의 제공이나 제조, 판매 나아가 여가활동의 지도 등을 행하는 산업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현대의 여가산업은 증가된 여가시간을 위한 영화, 연극산업, 프로스포츠, 식 음료업 식당산업 등과 항공사, 유람선, 버스와 철도, 여행사와 여행 도매업, 호텔산업, 기타 산업 등 연관 산업들, 그리고 광고와 마케팅, 교통, 관광객을 끄는 매력, 숙식, 음식, 오락, 오락과 즐거움, 교육활동 등 종류도 다양하다.

실버산업은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중 관광활동과 관련이 될 때에만 실버관광산업과 동일시 될 수 있다. 도시계획 틀 안에서 관광기능을 고려한 실버산업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는 오늘날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및 지원, 민간노인 요양병원 설립, 노인형 편의주택과 노인복지용품 생산유통 체계, 노인대상의 레져서비스 등이 여가산업과 공통기반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실버관광객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우울증이나 소외감으로 인해 실버관광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이미 관광효과가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이인수 외, 2004). 물론 노후에 안정된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물리적인 시설계획(barrier free design)과 생활보호 서비스(care service)를 제공하여 주거, 의료, 휴양의 복합적 커뮤니티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단지인 실버타운의 경우도 지나치게 도심을 벗어나지 않아야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의 실버산업 개발 방향은 관광목적지의 여가산업에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노인여가·문화가 보다

활발한 문화 교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가산업의 확산은 실버관광객이 지역노인의 소득·고용의 욕구충족, 취약하기 쉬운 노인 보건의 충분한 대비를 전제로 개발될 것이므로 실버산업 관련 행정체계와 법제도의 정비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광목적지 노인여가산업과 지역문화와 연계된 총체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버산업은 다른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독창력에 의해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선진국에 정착된 실버산업의 기본 유형을 통해 이러한 무궁무진한 개발가능성의 기본 틀이 되는 실버산업의 분야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 여가산업, 의료·보건관리사업, 주거관리사업, 그리고 장·노년층 혹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판매하는 노인용품 판매사업 등이 있다. 이들 각 분야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 이 가운데 관광객의 여가활용 분야는 취업, 교양학습, 스포츠, 취미, 오락, 관광 등 다양하다. 실버관광객은 특히 많은 시간을 활동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아 유휴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여가선용의 기회로 관광이 실버산업의 유망분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버산업을 관광·여가 산업적 차원에서 시도한 근본적인 동인은 새로운 수요층으로 등장한 실버관광객을 위한 종합관광·여가산업으로서 관광목적지의 유인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현대적 실버관광의 특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정적인 단편적 관광을 선호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경제적 여유와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고소비층으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레저스포츠 활동을 추구하는 복합적인 관광·여가 산업의 활용이 현실화 될 수 있고(Smith, 2005), 오히려 일반 관광객에 비해 고 소비층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관광·여가산업으로서의 그 잠재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전 되는 것이다.

제 3 장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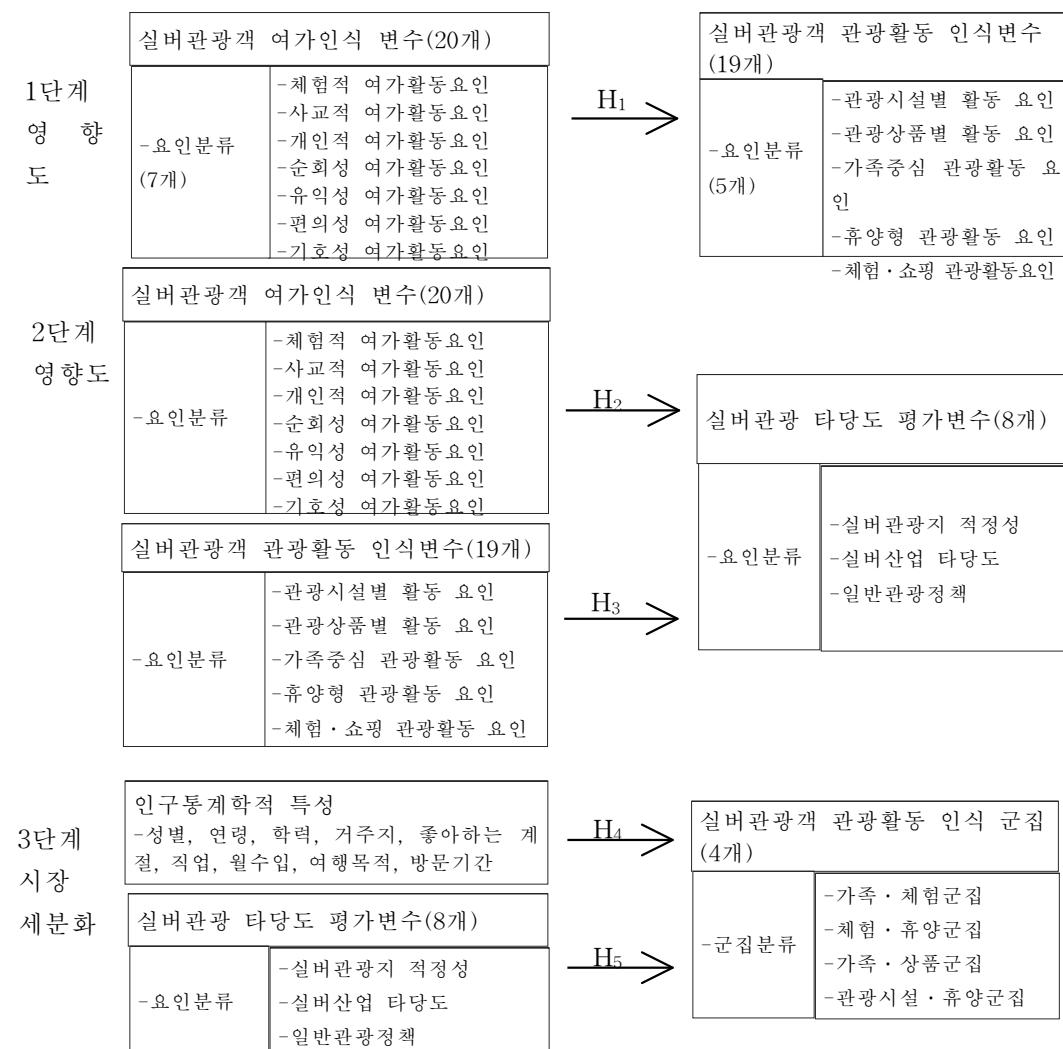
제 1 절 연구모형 정립

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을 평가하여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 분석하여 통해 관광목적지 활성화 방안 수립의 자료로 삼고자 <그림 3-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에 제시된 실버관광객 인식도 평가모델에서 제시된 각 잠재변수로 선정한 인식요인은 지금까지 전술한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별 구성하였다. 따라서 실버관광목적지 활성화는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및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따라 실버관광 개발이 타당한지를 평가·분석하여, 그에 따른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각의 인식된 영향도(perceived impact degree)를 평가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모형에 제시된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 평가 변수군에 대한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목적지 관광활동 의사결정에서의 실버산업개발 타당성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경주지역 실버관광개발의 통합개발계획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투입변인은 상기모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버관광 목적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관광 시설별 활동요인, 관광 상품별 활동요인, 가족중심 관광 활동요인, 휴양형 관광 활동요인, 체험·쇼핑관광활동 요인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모형의 구조적 연계성은 1차적으로 외생변수(독립변수)로서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을 선정 한 후 그에 따른 내생변수로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의 관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1차적인 관계성 평가를 검정한 후 2차적으로 여가

활동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독립변수) 그리고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변수와의 인과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림 3-1〉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요인이 실버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단계별 적용 모형

또한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 의사결정변수를 4개 군으로 분류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변수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 의사결정모델의 대표적 모델인 EKB(Engel-Kellat-Blackwell)모델의 의사결정이론을 근거로 한다. 이들 실버관광객이 관광목적지에서의 여가활동의 가치성을 충분히 인지할수록 관광 목적지의 활성화가 달성될 것이며 관광목적지에서 실버관광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지도와 목적지 관광활동 인지도가 높을수록 관광목적지의 실버관광이 더욱 혁신적으로 추진되어 질 것이며 실버관광객의 관광목적지에 대한 실버관광 인식평가에 의해 지역의 실버관광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실버관광에 대한 투자증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개발

모델의 각 구성요소는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향후 실버관광 인식도 평가를 통한 관광목적지 활성화 방안 구축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 관광객 의사결정에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목적지의 실버관광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실버관광목적지의 체재 및 산업화 타당도를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간, 여가활동 및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체재 및 산업화 타당도 평가변수의 각각의 관계,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에 따르면,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정도에 따라 실버관광 개발 타당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 만약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관광목적지의 관광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할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실버관광 개발에 미치는 영향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그 결과, 지역에서의 장래의 실버관광개발 타당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제 2 절 가설 설정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고찰과 본 연구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합모형의 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미치는 영향도를 연구가설로 설정하였다.

둘째,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변수에 미치는 영향도를 연구가설로 설정하였다.

셋째,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도를 연구가설로 설정하였다.

넷째,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의한 군집분류 및 군집 특성에 따른 평균 차이를 연구가설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별 군집의 인구통계학 및 타당도의 독립성 차이를 연구가설로 설정하였다.

1)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실버관광목적지에서 실버관광객 관광활동 인식요인은 여가활동 인식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실버관광 타당도는 실버관광객 관광활동 인식요인 및 여가활동 인식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21C 글로벌 지향시대 환경 하에서 관광목적지가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에 따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즉 인식도를 포함한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alternative hypothesis)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하위가설을 연구 분석 결

과에서 다루기로 한다.

H1: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요인에 미치는 영향

관광목적지는 실버관광 인식도와 관련하여 관광객이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따라 시장 세분화 등 개발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그 요인들의 인식정도에 따라 실버관광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중요성에 입각하여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에 있어서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하위가설은 연구분석 결과에서 다루기로 한다.

H2: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 별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요인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에 있어 실버관광 타당도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 요인에 있어서 그 요인들의 인식정도에 따라 실버관광 타당도를 포함한

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인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하위가설을 연구 분석 결과에서 다루기로 한다.

H3: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별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의한 군집분류 및 군집특성 평균차이

앞서 추출한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의 인구 통계학 및 방문 형태적 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추출 전 군집의 인구 통계학 및 방문 형태적 변수들의 특성은 관광 시장 세분화 방안 수립(Andreu et al., 2005)과 이용 실버관광객의 선택 인식의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어 지기 때문에 그 의미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의 인구통계학 및 방문형태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하위가설을 연구 분석 결과에서 다루기로 한다.

H4: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상호 종속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날것이다.

5) 군집별 실버관광 타당도의 독립성 차이

앞서 추출한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의 체재 및 산업화 타당

도 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추출 전 군집의 체재 및 산업화 타당도 변수들의 특성은 관광 시장 세분화 방안 수립과 이용 실버관광객의 선택 인식의 파악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어 지기 때문에 그 의미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의 체재 및 산업화 타당도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하위가설을 연구 분석 결과에서 다루기로 한다.

H5: 군집별 체재 및 산업화 타당도 특성에 따라 상호 종속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날 것이다.

제 3 절 변수선정 및 조사방법 제시

1. 변수의 선정

본 장은 연구조사방법으로 먼저 연구모형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인을 즉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그리고 타당도의 변수에 관한 설명과 측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논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표본설계와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의 분석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 변수

일반적으로 실버관광객이 관광목적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많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는 관광목적지 의사결정에 대한 실버관광객의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또한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타당도를 얻는 평가대상이 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실버관광객의 인식요인의 내부적인 구성요소로 체험적·사교적·개인적·순회성·유익성·기호성 요인이 있다. 먼저 체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의 세부구성변수항목은 체험관광지, 스포츠 등 동적인 활동, 유홍·오락적 관광 등이 있고, 둘째 사교적 요인은 등산 및 야외 레크레이션, 사교 및 친목모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등이 있다. 셋째, 개인적 요인은 혼자 여행하기·독서 등 일상 내 레크레이션, 새로운 문화 체험, 자동차 여행 등이 있다. 넷째, 순회성 요인은 식도락이나 차를 타도 돌아다니는 관광 등이 있고, 다섯째, 유익성 요인은 역사문화유적관광, 생태관광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호성 요인은 운동 다이어트와 야간유홍활동이 있다. 이와 같이 제시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리커트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2)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변수

실버관광객이 목적지 관광활동 의사결정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많은 것이 있다. 이는 목적지 관광활동에 따라 고려하는 요인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며 목적지의 특성에 관광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버관광객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변수라 할 수 있다.

목적지에 따른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내부적인 구성요소로 시설·설비, 상품 형태, 가족놀이, 요양·휴양, 체험·쇼핑이 있다. 먼저 시설·설비요인의 세부 구성변수항목은 골프 등 육상 스포츠 활동, 오락 유홍 지역, 친목활동단체, 민박형 관광지, 전통문화 교육관광 등이 있다. 둘째, 상품형태요인에는 전통문화 관광 상품 개발, 온천, 소풍 등 당일관광지, 축제행사 이벤트가 있으며, 셋째, 가족놀이요인은 은퇴 후 농장 활동, 한방 및 의료관광활동, 테마파크 등 놀이 공간 활동 등이 있다. 넷째, 요양·휴양요인에는 가족지향형 요양산업단지활동, 생태관광지활동, 장기체재형 휴양리조트단지활동, 노인휴양단지 등이 있고, 다섯째 체험·쇼핑요인에는 컨벤션 관광지활동, 해양관광활동, 관광객 쇼핑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제시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중요성을 측정하였다.

3)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 변수

실버관광객이 여가활동 및 목적지 관광활동 의사결정 후 얻게 되는 중요변수로 이는 실버관광객 수요의 지속적인 창출은 물론 실버관광의 개발성과의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실버관광 타당도에 따른 내부적 구성 변수는 관광목적지로서의 경주지역이 실버관광지로 적정 정도와 장기체재 의사와 실버산업시설 필요성 인식과 실버산업개발 시 이용의

사, 실버관광에 따른 외국관광유치기여도, 실버관광객의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의 선호정도와 국가실버인구취업고용정책 선호정도, 그리고 실버관광 타당도 즉 실버관련 산업 개발 타당도 변수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제시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2. 표본설계와 자료수집

본 연구논문의 연구대상에 대한 표본선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 있어서 자료수집의 방법은 문헌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논문 및 문헌, 간행물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였으며, 실증조사 분석도 경주지역 관광지를 방문한 내국인 50명을 대상으로 사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면접 조사 결과 주요 인식요인으로 19개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변수와 20개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6개의 주요 선호도 요인을 도출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경주지역 실버관광지를 방문한 내국인 실버관광객 51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체계적 무작위 표본 추출법(systematic random sampling method)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을 선정 후 사전 훈련된 조사자로 하여금 2007년 1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논문에 사용된 설문지는 <표 3-1>에 구성되어 있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제1부	19개 개별 인식요인에 대한 중요성 측정	리커트 5점 척도
제2부	20개 개별 인식요인에 대한 중요성 측정	리커트 5점 척도
제3부	8개 개별 타당도 측정	리커트 5점 척도
제4부	인구통계학적 변수	명목 척도

먼저 1부에서는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의사결정 변수로 19개의 개별 인식도를 측정하였고, 2부에서는 실버관광객 여가활동의사결정 변수로 20개의 개별 인식도를 측정하였으며, 3부에서는 체재 및 산업화 타당도와 관련한 변수로 8개의 개별 인지도를 측정하였고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및 방문유형별 변수를 측정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방법

1) 단계별 분석 적용 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우선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대한 측정개념의 타당성 검증 및 신뢰성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및 타당도에 따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서 군집을 추출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이어서 이들 변수들 간의 인식도 및 예측을 포함한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앞서 추출한 군집에 따라 타당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끝으로 추출된 군집에 따른 인구통계학 및 타당도 의사결정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표 3-2> 자료 분석방법에 제시되어 있다.

<표 3-2> 자료의 분석 방법

검정 대상	분석 기법
표본 특성 및 측정 도구	· 여가활동 인식요인의 타당성 검정
	·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타당성 검정
	· 실버관광 타당도 요인의 타당성 검정
	· 여가활동 인식요인의 신뢰성 검정
	·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신뢰성 검정
	· 실버관광 타당도 요인의 신뢰성 검정
	·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간의 영향
	·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타당도와의 영향
	·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타당도와의 영향
	·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군집 추출
연구 영구 가설	· 요인분석
	· 요인분석
	· 요인분석
	· 신뢰도분석
	· 신뢰도분석
	· 신뢰도분석
	· 상관관계분석
	· 상관관계분석
	· 상관관계분석
	· 계층적군집분석
·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간의 관계 검정[H1]	· 상관관계분석
	· 다중회귀분석
	· 상관관계분석
	· 다중회귀분석
	· 상관관계분석
	· 다중회귀분석
	· 계층적군집분석
	· 일원배치분산분석
	· 계층적군집분석
	· 교차분석

2) 실버관광객 관광인식도 평가변수의 기술적 특성

실버관광객 인식도 변수의 세부항목으로는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변수 <표 3-3>이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 인식변수 <표 3-4>, 타당도 인식변수 <표 3-5>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변수

속 성 변 수	평균	우선순위
1) 경주지역의 역사문화 유적관광지로서의 기능	3.60	4
2) 경주지역의 육상스포츠 활동 등의 관광활동기능	3.36	10
3) 경주지역의 오락 유홍지역 기능	3.20	11
4) 경주지역의 온천, 소풍, 나들이 등 당일 관광지 기능	3.91	1
5) 경주지역의 장기체재형 휴양리조트 단지 기능	3.52	7
6) 경주지역의 가족지향형 요양산업단지 기능	3.65	3
7) 경주지역의 노인들의 휴양단지 기능	2.79	16
8) 경주지역의 회의, 전시 기능의 컨벤션 관광지	3.05	13
9) 경주지역의 해양관광활동 관광지로서의 기능	2.72	18
10) 경주지역의 환경, 생태관광지 기능	3.42	8
11) 경주지역의 한방(보건) 및 의료관광 기능	2.73	17
12) 경주지역의 전통문화 관광 상품 개발 정도	2.90	15
13) 경주지역의 은퇴 후 농장 활동 적정지역 기능	3.18	12
14) 경주지역의 축제행사, 이벤트 관광지로서의 기능	3.73	2
15) 경주지역의 전통문화 교육관광지로서의 기능	3.60	4
16) 경주지역의 민박형 관광지로서의 기능	3.55	6
17) 경주지역의 쇼핑위주 관광지로서의 기능	2.31	19
18) 경주지역의 단체친목활동 대상 관광지로서의 기능	3.40	9
19) 경주지역의 테마파크 중심 관광지로서의 기능	2.99	14

우선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즉,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적율(3.91)이 당일관광 나들이가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벤트 관광지로서의 기능(3.73)과 가족지향형 요양산업단지 기능축제행사(3.65)의 순위를 보여 실버관광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에 의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육성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상스포츠 활동 등의 관광활동기능(3.36)이나 오락 유홍지역 기능(3.20), 은퇴 후 농장 활동 적정지역 기능(3.18)은 중간정도의 지적율을 보여 이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 전략적 개입에 대해서는 실버관광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버인구의 특성에 따른 높은 요구도가 예상된 노인들의 휴양단지 기능(2.79), 한방(보건) 및 의료관광 기능(2.73), 해양관광활동 관광지로서의 기능(2.72), 쇼핑위주 관광지로서의 기능(2.31) 등은 16~19위로 평균 정도의 지적율을 보였다. 향후 휴양, 한방·의료 및 해양관광활동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접근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변수

속 성 변 수	평균	우선순위
1) 실버관광객의 체험관광지 선호도	3.14	12
2) 실버관광객의 동적 관광(스포츠/해양체험 활동)선호도	3.17	10
3) 실버관광객의 주제공원 등 유홍 오락적 관광 선호도	3.04	15
4) 실버관광객의 환경보존을 위한 생태관광 선호도	3.61	5
5) 실버관광객의 여행사 위주 관광활동 선호도	3.17	10
6) 실버관광객의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 선호도	3.43	7
7) 실버관광객의 혼자 하는 여행 선호도	2.43	20
8) 실버관광객의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선호도	4.00	2
9) 실버관광객의 체험 위주의 콘도, 민박형 관광 선호도	3.94	3
10) 실버관광객의 사교 및 친목모임을 위한 관광 선호도	3.35	8
11) 실버관광객의 등산, 레저스포츠 등 일상 외 야외레크리에이션 활동선호도	3.56	6
12) 실버관광객의 독서, 영화감상 등 일상적 활동 선호도	2.99	17
13) 실버관광객의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	4.17	1
14) 실버관광객의 쇼핑 선호도	3.09	14
15) 실버관광객의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 선호도	3.18	9
16) 실버관광객의 역사문화유적 관광 선호도	3.69	4
17) 실버관광객의 식도락 관광 선호도	2.98	18
18) 실버관광객의 관광지의 야간유홍활동 선호도	2.71	19
19) 실버관광객의 규칙적인 운동, 다이어트 활동 선호도	3.12	13
20) 실버관광객의 차를 이용한 순회형 관광선호도	3.02	16

<표 3-4>에 나타난 실버관광객 일상적인 여가활동 인식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즉,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적율(4.17)이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4.00)과 체험위주의 콘도·민박형 여행(3.94)의 순위를 보여 실버관광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에 의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육성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적관광 선호도(3.17)이나 여행사 위주의 관광 선호도(3.17), 체험관광 선호도(3.14), 규칙적인 운동이나 다이어트 활동 선호도(3.12)는 중간 정도의 지적율을 보여 이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 전략적 개입에 의해서는 실버관광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현재 경주지역의 관광 인프라의 구조에 적합한 정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독서 영화감상 선호도(2.99), 식도락 관광 선호도(2.98), 관광지 야간 유총활동 선호도(2.71), 혼자 하는 여행 선호도(2.43) 등은 17~20위로 평균 정도의 지적율에 그쳤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주지역의 실버관광 인프라 확충 시에는 실버인구의 특성에 맞는 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접근이 많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표 3-5> 실버관광 타당도 인식변수

속 성 변 수	평균	우선순위
1) 경주지역의 실버관광지 적정성 인식	3.72	4
2) 경주지역에서 장기체재 의사	3.40	7
3) 경주지역의 실버산업시설 필요성 인식	3.88	2
4) 경주지역의 실버산업시설 개발 시 이용의사 정도	3.76	3
5) 국가의 실버산업 적극 지원정책에 대한 선호도	4.07	1
6) 국가의 실버인구 취업 및 고용정책에 대한 선호도	3.12	8
7) 실버관광객이 인지하는 실버관련 산업개발의 타당도	3.72	4
8) 경주지역 실버산업 활성화가 외국인 관광유치에 기여할 지 인식도	3.46	6

<표 3-5>에 나타난 실버관광 타당도 인식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즉,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적율(4.07)이 국가의 실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버산업시설 필요성 인식(3.88)과 경주지역의 실버산업시설 개발 시 이용의사 정도(3.76)의 순위를 보여 실버관광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에 의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육성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버관광지 적정성에 대한 인식(3.72)이나 실버관광객이 인지하는 실버관련 산업개발의 타당도(3.72)로 나타났다. 물론 지역 내 실버산업 활성화가 외국인 관광유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도(3.46), 경주지역에서의 장기체재 의사(3.40), 국가의 실버인구 취업 및 고용정책에 대한 선호도(3.12)의 지적율도 평균 이상을 보여 실버산업과 관련한 실버관광객의 선호도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실버관광이 경주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될 필요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선호도 조사를 통한 타당도나 영향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활발한 실버산업 지원 또한 예상된다.

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측정도구의 검정

본 장은 앞장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의 검정을 위한 분석단계를 다루고 있다. 먼저, 기본단계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둘째, 가설1은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 별 목적지 관광 활동 인식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존재여부를 검정하였다. 셋째, 가설2에서 실버 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별 실버관광 타당도에 미치는 인식도를 포함한 영향 존재여부를 검정하였다. 넷째, 가설3에서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에 미치는 인식도를 포함한 영향 존재 여부를 검정하였다. 다섯째, 가설4에서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 각 요인이 군집 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평균차이에 관한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여섯째, 가설5에서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 별 체재 및 산업화 타당도 특성에 따른 영향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실버관광객의 실버산업 타당도 연구를 위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48.2%와 51.8%로 나타나 성별의 차이는 별로 없었으나 여성이 조금 많게 나타나 시장 세분화 방안이나 관광활동의 프로그램 구성 시 여성노인의 특성에 적절한 활동을 추가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분포는 55-59세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60-64세과 65세-69세가 각 25.1%와 18.6%로 비슷하고,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 41.8%로 가장 많고 중졸이 25.7%, 대졸 이상과 초등졸업 이하가 각각 19.0%, 13.5%로 나타났고, 실버관광객의 거주지별로는 대구·부산·경상권이 79.2%, 서울경기충청권이 17.5%, 강원권이 1.8%, 전라도 및 기타지역이 1.6%로 밝혀졌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구분		비율(빈도:510명)	구분		비율(빈도:510명)
성별	남	48.2	직업	주부	25.9
	여	51.8		자영업	19.8
연령	55-59세	47.5		전문직	10.2
	60-64세	25.1		사무직	1.6
	65-69세	18.6		서비스직	5.9
	70세 이상	8.8		근로직	5.7
학력	초졸 이하	13.5		기타	31.0
	중졸	25.7		100이하	56.1
	고졸	41.8		월수입	19.6
	대졸 이상	19.0		(단위: 만원)	7.5
거주지	경상도	79.2		201-300	14.3
	서울경기충청권	17.5		301이상	2.5
	강원권	1.8	여행목적	휴양휴식	55.5
	전라, 기타	1.6		자연경관	30.2
계절	봄	32.2		유적기타	8.6
	여름	10.6		레저스포츠	0.8
	가을	49.0		사업회의	4.9
	겨울	8.2		당일	70.2
				숙박	29.8
방문기간			(숙박)	1박2일	40.0
				2박3일	31.0
				3박4일	16.7
				4박5일	0.05
				5박6일	0.01

실버관광객이 선호하는 계절로는 가을과 봄이 49.0%, 32.2%로 가장 많았으며, 여름은 10.6%, 겨울은 8.2%로 계절여행에 적합한 실버관광 상품 개발이나 여름이나 겨울의 경우는 냉·난방이나 건강과 관련한 상품개발방안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직업별로는 주부와 자영업이 전체의 45.7%(각각 25.9%, 19.8%)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무직, 학생)의 31.0%까지 합한 전체의 76.7%의 실버관광객이 시간의 구애를 비교적 적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나머지는 전문직 10.2%, 서비스직과 근로직이 각 5.9%와 5.7%, 사무직이 1.6%로 응답하였다.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56.1%로 가장 많았으며, 101-150만원이 19.6%,

201-300만원이 14.3%, 151-200만원이 7.5%, 301만원 이상이 2.5%로 응답하였다.

여행목적은 휴양·휴식이 55.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자연경관감상도 30.2%로 높게 나타났으나 역사유적관람은 8.6%로 실버관광객 대부분이 역사유적 관람보다는 휴양과 휴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업이나 회의 차 방문이 4.9%, 레저스포츠가 목적인 경우도 0.8%로 여행상품의 다양화와 경주지역의 역사문화유적과 관련된 여행상품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방문기간은 당일여행이 전체의 70.2%를 차지하여 관광을 위한 체재일수를 늘릴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숙박을 한 29.8% 중에서는 1박2일과 2박3일이 40.0%와 31.0%로 나타나 숙박객 중 71%가 1일~3일 일정의 관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1~3일형의 관광루트를 차별화하여 구성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실버관광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책을 제시해 줄 것과 실버관광객에 대한 시청의 정책지원을 당부하는 의견이 다수 있어 실버관광객에 대한 지원과 정책홍보에 주력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절에서는 측정도구의 검정을 위하여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타당성 검정

먼저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검정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일반적으로 표본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며 요인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요인분석에 사용되는 항목수의 4배에서 5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인적재량에 있어 본 연구논문에서는 .4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였다. 기타 요인분석에 있어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법을 이용

하였으며 요인회전에 있어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정하는데 유용한 직교 회전(varimax)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요인 추출 시 요인 수 및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고 KMO(Kaise-Meyer-Olkin)의 값은 .704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트레트(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가 3059.018이며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여가활동 인식요인의 설문문항들에 관한 요인분석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기본적인 가정과 제약조건에 따라 검정한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결과는 <표 4-2>와 같다.

첫째, 요인 1인 ‘체험적 여가활동 요인’은 체험관광지, 스포츠 등 동적인 관광지, 유흥 오락적 관광지 등에서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항목들이 체험관광지 요인과 상호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요인 2인 ‘사교적 여가활동 요인’은 등산 등 야외 레크리에이션, 사교 및 친목 모임, 건강에 대한 관심 등에서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 항목들이 사교적 여가활동 요인과 상호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요인 3인 ‘개인적 여가활동 요인’은 독서 등 일상 내 레크리에이션, 새로운 문화 체험, 자동차 여행 등에서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항목들이 개인적 여가활동 요인과 상호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요인 4인 ‘순회성 여가활동 요인’은 식도락 관광과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관광, 역사문화유적관광 등에서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여 주고 있어 순회성 여가활동 요인과 상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요인 5인 ‘유익성 여가활동 요인’은 생태관광 선호도와 콘도 민박형 관광 등에서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상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섯째 편의성 요인은 여행사를 통한 관광과 운동다이어트에

서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였으며 마지막 기호성 요인은 야간 유홍활동에서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쇼핑 및 가족동반여행 변수는 낮은 요인적재량으로 인해 제거되었다.

<표 4-2> 여가활동 인식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요인	문항	요인 적재치	아이젠값	분산설명력	신뢰성 계수
체험적 여가활동	체험관광지	.843			
	동적인 관광	.837	4.287	22.481	.804
	유홍오락관광	.742			
사교적 여가활동	등산 등 야외레크레이션	.832			
	사교 및 친목모임	.752	2.675	13.369	.670
	건강에 대한 관심	.443			
개인적 여가활동	혼자 여행	.721			
	일상 내 레크레이션-독서 등	.703			
	새로운 문화	.603	1.528	7.529	.651
	자동차 여행	.430			
순회성 여가활동	식도락관광	.788			
	차타고 돌아다니는 관광	.718	1.329	6.675	.626
	역사문화유적관광	.494			
유익성 여가활동	생태관광 선호도	.774			
	콘도 민박형 관광	.692	1.289	5.967	.541
편의성 여가활동	여행사 통한 관광	.856			
	운동 다이어트	.657	1.162	5.743	.501
기호성 여가활동	야간 유홍활동	.682	1.012	5.049	.479

*설명된 총분산 : 66.813%.

다음으로는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먼저,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타당성 검정에 있어서도 인식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설문 문항들의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별 요인적재량에 있어 마찬가지로 .4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여 매우 높은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KMO(Kaiser-Meyer -Olkin)의 값은 .716으로 크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설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바트레트(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가 2324.424이며,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3>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요인	문항	요인 적재치	아이겐값	분산설명력	신뢰성 계수
관광시설별활동	골프 등 육상스포츠 활동	.731			
	오락 유흥 지역	.652			
	친목활동 단체	.642	3.829	21.570	.708
	민박형 관광지	.613			
관광상품별활동	전통문화 교육관광	.510			
	전통문화관광 상품 개발	.688			
	온천 · 소풍 등 당일관광지	.685	2.486	12.309	.499
	축제행사 이벤트	.547			
가족 중심 관광활동	은퇴 후 농장 활동	.757			
	한방 및 의료관광지	.746	1.587	7.672	.623
	테마파크 등 놀이공간	.540			
휴양형 관광활동	가족지향형 요양산업단지	.691			
	생태관광지	.669			
	장기체재형 휴양리조트 단지	.551	1.346	6.684	.590
	노인 휴양 단지	.496			
체험 · 쇼핑 관광활동	컨벤션 관광지	.711			
	해양관광활동	.667	1.295	6.272	.594
	관광객 쇼핑	.592			

*설명된 총분산 : 54.507%.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표본들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들에 대한 요인 분석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기본적인 가정 및 제약조건에 따라 검정한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들의 타당성 검정 결과는 <표 4-3>과 같다.

첫째, 요인 1인 ‘관광시설별 활동요인’은 골프 등 육상스포츠활동, 오락 활동, 친목활동, 민박형 관광활동, 전통문화 교육 관광활동 등에서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항목들이 관광시설별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상호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요인 2인 ‘관광 상품별 활동요인’은 전통문화관광 상품개발, 온천 · 소풍 등 당일 관광지, 축제행사 이벤트 등의 목적지 관광활동 등에서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 항목들이 관광 상품별 요인과 상호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요인 3인 ‘가족중심 관광활동 요인’은 은퇴 후 농장 활동, 한방 및 의료관광지, 테마파크 등 놀이공간 등에서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항목들이 가족중심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상호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요인 4인 ‘휴양형 관광활동 요인’은 가족지향형 요양산업단지, 생태관광지, 장기 체재형 휴양리조트 단지, 노인 휴양 단지 등에서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항목들이 휴양형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상호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체험 · 쇼핑 관광활동 인식요인’은 컨벤션 관광지, 해양관광활동, 관광객 쇼핑 등에서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항목들이 체험 · 쇼핑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상호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요인의 타당성 검정 결과로 <표 4-4>와 같다.

첫째, 요인 1인 ‘실버관광 개발요인’은 실버관광산업시설 이용의사, 실버관광 시설 필요정도, 장기체재 의사여부, 실버관광 적정지역, 실버관광 국가정책 등에서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항목들이 실버관광개발요인과 상호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4>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요인	문항	요인 적재치	아이겐값	분산설명력	신뢰성 계수
실버관광개발 요인	실버관광사업시설 이용의사	.770			
	실버관광사업시설 필요정도	.756			
	장기체재 의사 여부	.728	3.013	37.666	.869
	실버관광 적정지역	.692			
실버고용 및 해외관광요인	실버관광사업 국가정책	.578			
	외국인 관광유치	.859			
	실버인구 취업 등 고용정책	.720	1.064	1.479	.539
실버정책요인	국가실버관광사업지원정책	.902	1.177	13.298	

*설명된 총분산 : 65.683%.

둘째, 요인 2인 '실버고용 및 해외관광요인'은 외국인 관광유치와 실버인구 취업 등 고용정책에서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이며 세째는 최종 종속변수인 국가실버관광 지원정책으로 가장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였다.

2) 신뢰성 검정

먼저 실버관광지 여가활동 인식요인의 신뢰성 검정은 요인분석 후 동질적인 개념들에 대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내적 일관성 검정을 위해 크론바하(Cronbach) 알파 값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알파 값이 .60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분야에서는 .80 나아가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분야에서는 .90 이상이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직단위의 분석 수준에서도 요구되어지는 알파 값이 .60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의 신뢰도는 .47로 다소 신뢰도가 낮으나 의사결정에는 별 무리가 없었다. 본 연구논문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들에 대한 각 알파 값은 .47 이상의 7개 요인이 선택되었으며, 이들 항목들이 각 요인에 관

한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뢰도 분석은 별문제가 없다. 따라서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이 같은 기본적인 가정과 제약조건에 따라 검정한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들의 신뢰성 검정결과는 <표 4-2>와 같다.

다음으로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신뢰성 검정은 요인분석 후 동질적인 개념들에 대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데 내적 일관성 검정을 위해 크론바하(Cronbach) 알파 값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알파 값은 .59 이상이므로 신뢰도 분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본적인 가정과 제약 조건에 따라 검정하는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신뢰성 검정결과는 <표 4-3>과 같다.

마지막으로 실버관광 타당도 인식요인의 신뢰성 검정은 요인분석 후 동질적인 개념들에 대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데 내적 일관성 검정을 위해 크론바하(Cronbach) 알파 값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알파 값은 .53 이상이므로 신뢰도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본적인 가정과 제약 조건에 따라 검정하는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신뢰성 검정결과는 <표 4-4>와 같다.

지금까지 측정도구의 검정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로써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간의 영향 검정 및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로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간에는 모두 상호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요인을 이용하여 연구가설 검정을 위한 절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 2 절 가설 검정 및 결과해석

1)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

본 절에서는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 요인에 미치는 인식도를 포함한 영향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기초로 관련변수를 선정한 후 이들 여가활동 인식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4-5>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목적지 관광활동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모든 실버관광객이 여가활동 인식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여 목적지 관광활동요인간의 인식도를 포함한 영향 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변수간의 영향 존재여부를 검정하는데 있어 많이 이용되는 분석 기법을 상관관계 분석을 들 수 있지만 어떤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미치는 인식도 등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독립변수간의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 정도뿐만 아니라 각 독립변수의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많이 이용한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할 때 중요시하는 기본적인 가정을 정규성과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 및 오차항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으로써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등을 검정하는 일이다.

이 같은 기본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 본 연구 논문에서는 정규성의 확인과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요인분석에 의한 요인점수들을 이용하였다. 이는 요인점수들이 직교회전방법에 의한 상호 독립적인 변수들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자기상관(또는 계열 상관) 존재여부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더빈-왓슨(Dubin-Waston)의 D통계량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의 변수투입 방법에 있어서는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엔터(enter)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 4-5>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및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간의 상관관계

분류	관광시설별	관광상품별	가족중심	휴양형	체험·쇼핑
	활동요인	활동요인	관광활동요인	관광활동요인	관광활동요인
피 어 슨 상 관	체험적 여가활동	-.345**	.250**	.050	.118**
	사교적 여가활동	.080*	-.074*	.049	-.009
	개인적 여가활동	-.108**	-.019	.128**	-.201**
	순회성 여가활동	-.030	.004	-.132**	-.138
	유익성 여가활동	-.097	-.017	-.144**	.245**
	편의성 여가활동	.224**	-.071	.193**	.096*
유 의 획 률	기호성 여가활동	-.002	.160**	.081**	-.171**
	체험적 여가활동	.000	.000	.131	.004
	사교적 여가활동	.037	.049	.136	.417
	개인적 여가활동	.008	.333	.002	.000
	순회성 여가활동	.252	.465	.001	.001
	유익성 여가활동	.015	.353	.001	.000
	편의성 여가활동	.000	.057	.000	.006
	기호성 여가활동	.486	.000	.035	.000

*P<0.05, **P<0.01.

o) 같은 기준으로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 요인간의

인식도 및 예측을 포함한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는 <표 4-6>에 나타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요인 중 관광 상품별 활동요인에 대하여 유의적인 성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에 미치는 인식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검정 결과 체험적 여가활동요인과 편의성 여가활동요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1C 고령화 시대의 실버관광객이 실버관광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 관광목적지의 관광 시설별 활동 요인에 대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버관광객의 체험적인 여가성향에 대한 편의적 여가활동과 사교적 여가활동 들을 중시한 관광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자의 주장과도 일치하며, 관광목적지가 실버관광객에게 관광시설별 활동 요인을 충족시키고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유의성, 개인적 성향이나 순회적, 기호적 여가활동보다는 사교, 개인, 유익, 편의성 활동요인을 더 고려한 관광 상품이나 관광루트의 개발이 중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체험적 요인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요인 중 관광 상품별 활동요인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에 미치는 인식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검정결과, 체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기호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관광목적지들이 실버관광객이 실버관광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 관광 상품별 관광활동 인식요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운동, 다이어트나 야간 시간을 활용한 체험활동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자의 주장과도 일치하며 관광목적지가 실버관광객에게 서비스 및 가치 창조의 외적 요인들을 충족시키고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의사결정의 기본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경주 도심의 유적을 도보로 감상하게 하기 위한 유인요인으로 건강 활동(걷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험적인 여가활동 요인의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요인 중 가족중심 관광활동 요인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여가활동 인식에 미치는 인식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검정 결과, 개인성, 순회성, 유익성, 편의성, 기호성 여가활동 요인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버관광 목적지들이 실버관광객 여가활동인식 중 개인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독서 등 일상 레크리에이션과 새로운 문화체험, 그리고 자동차 이용을 선호하는 성향에 맞는 관광루트 개발 등이 중요하며, 순회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으로 식도락을 즐기는 실버관광객을 위해서는 역사문화도시에 적합한 신라음식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이나, 편의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유적관광과 생태관광 그리고 여행사 관광프로그램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실버 관광에 적합한 안내체계 등을 개발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자의 주장과도 일치하며 관광목적지가 실버관광객에게 가족중심 관광활동 요인을 충족시키고 실버관광목적지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일상적인 레져스포츠와 새로운 문화체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체험활동이나 일상레포츠 시설 그리고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부대시설 확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요인과 여가활동요인과의 영향검정

목적지 관광활동인식요인	여가활동 인식요인	R ²	F값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연구 가설
관광시설별활동	체험적	.398	17.281	.000a**	-.345	-8.538	.000**	채택
	사교적				.080	1.976	.049*	채택
	개인적				-.108	-2.671	.008*	채택
	순회성				-.030	-.740	.459	불채택
	유익성				-.097	-2.395	.017**	채택
	편의성				.224	5.546	.000**	채택
	기호성				-.002	-.038	.969	불채택
관광상품별활동	체험적	.299	7.761	.000a**	.250	5.852	.000**	채택
	사교적				-.074	-1.736	.083	불채택
	개인적				-.019	-.453	.651	불채택
	순회성				.004	.092	.927	불채택
	유익성				-.017	-.394	.694	불채택
	편의성				-.071	-1.654	.099	불채택
	기호성				.160	3.736	.000**	채택
가족중심관광활동	체험적	.203	8.094	.000a**	.050	1.176	.240	불채택
	사교적				.049	1.151	.250	불채택
	개인적				.128	2.991	.003**	채택
	순회성				-.132	-3.103	.002**	채택
	유익성				-.144	-3.378	.001**	채택
	편의성				.193	4.512	.000**	채택
	기호성				.081	1.899	.058	불채택
휴양형관광활동	체험적	.275	14.938	.000a**	.118	2.879	.004**	채택
	사교적				-.009	-.229	.819	불채택
	개인적				-.201	-4.910	.000**	채택
	순회성				-.0138	-3.366	.001**	채택
	유익성				.245	5.992	.000**	채택
	편의성				-.112	2.743	.006*	채택
	기호성				-.171	-4.166	.000**	채택
체험쇼핑관광활동	체험적	.324	9.961	.000a**	-.297	-7.045	.000**	채택
	사교적				.051	1.203	.230	불채택
	개인적				.009	.223	.823	불채택
	순회성				.030	.713	.476	불채택
	유익성				.096	2.278	.023	채택
	편의성				-.140	-3.321	.001**	채택
	기호성				.058	1.364	.173	불채택

*P<0.05, **P<0.01.

넷째,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요인 중 휴양형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객 여가활동에 미치는 인식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검정 결과 체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 개인적 여가활동 인식요인, 순회성 여가활동 인식요인,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 기호성 여가활동 인식요인 등에서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고령화 시대의 실버관광 목적지들이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성향에 의해 휴양형 관광활동 목적지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체험적이고 개인적인 여가활동 성향과 순회성과 유익성 그리고 기호성 등을 고려한 실버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하겠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자의 주장과도 일치하며 관광목적지가 실버관광객에게 휴양형 관광활동 인식요인들을 충족시키고 실버관광목적지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체험적 여가활동의 향상에 주력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요인 중 체험·쇼핑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객 여가활동의 사결정에 미치는 인식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검정결과 체험적, 유익성, 편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에서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버관광 목적지들이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성향에 의한 체험·쇼핑 관광활동 목적지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체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유익성, 편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 등을 적절히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자의 주장과도 일치하며 관광목적지가 실버관광객

에게 체험·쇼핑 관광활동 인식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체험형 여가활동인 체험관광지, 스포츠 등 동적인 관광지, 유홍 오락적 관광지 여행 프로그램과 특히 실버관광객이 정보를 여행사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을 것에 대비하여 편의적 여가활동 요인인 여행사 프로그램을 적절히 구성하여 실버관광객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간의 영향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체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중 가족중심 관광활동 인식요인을 제외한 관광시설별 관광활동 인식요인, 관광 상품별 관광활동 인식요인, 휴양형 관광활동, 체험쇼핑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사교적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관광시설별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가족중심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관광시설별, 가족중심 관광활동, 휴양형 관광활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순회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가족중심, 휴양형 관광활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관광시설별, 가족중심, 휴양형, 체험쇼핑 관광활동에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편의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관광시설, 가족중심, 휴양형, 체험쇼핑 관광활동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 같은 결과는 각각의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대해 영향 및 타당도를 나타낸다는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

본 절에서는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실버관광 타당도와의 인식도를 포함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4-7>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실버관광 타당도와의 상관관계

분류	실버관광 지 적정성	장기체 재의사	실버산업 설필요성	실버산업 개발이용 의사	실버관련 외국관광 유치기여도	국가실버 산업지원 정책	국가실버 인구취업 고용정책	실버관련 산업개발 타당도	
피 어 상 관	체험적 여가활동	.143**	.053	.113**	.041	.096*	-.144**	.080*	-.029
	사교적 여가활동	.167**	.156**	.279**	.301**	.013	.219**	.007	.003
	개인적 여가활동	.001	-.046	.031	.025	.034	.010	.020	.123**
	순회성 여가활동	.026	.099*	.313**	.114**	.063	-.244**	.099*	.069
	유익성 여가활동	.278**	.133**	.030	.128**	.144**	-.017	.009	-.067
	편의성 여가활동	.057	.156**	.013	.011	-.022	.111*	.240**	.290**
	기호성 여가활동	.042	-.067	-.063	.048	-.016	.015	-.020	-.068
	체험적 여가활동	.001	.119	.006	.181	.016	.001	.036	.260
	사교적 여가활동	.000	.000	.000	.000	.383	.000	.434	.473
	개인적 여가활동	.488	.153	.246	.289	.224	.414	.324	.003
유 의 화 률	순회성 여가활동	.284	.013	.000	.006	.079	.000	.014	.061
	유익성 여가활동	.000	.001	.254	.002	.001	.349	.420	.066
	편의성 여가활동	.102	.000	.387	.407	.315	.006	.000	.000
	기호성 여가활동	.173	.067	.079	.142	.362	.370	.325	.063

*P<0.05, **P<0.01.

먼저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기초로 하여 영향이 있는 변수를 선정, 이를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을 독립 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4-7>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실버관광 타당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와 상호 영향 및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 검정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4-8>과 같다.

1차적으로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 중 실버관광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체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 사교적 여가활동 인식요인,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에 의해서 높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실버관광 타당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역사문화유적, 생태관광 변수)과 사교성 여가활동 인식요인(등산, 사교, 건강)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인 실버관광객 경주지역 장기체재의사는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사교적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순회성 여가활동 인식요인,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 편의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에 의해서 높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장기 체재 의사에 대한 타당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은 편의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콘도 민박형 관광) 및 사교성 여가활동 인식요인(등산, 사교, 건강)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인 실버산업 시설의 필요성 인식은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체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 사교적 여가활동 인식요인, 순회성 여가활동 인식요인,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 등이 크게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순회성 여가활동 인식요인, 사교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제로 실버산업 시설 필요성에 대한

타당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이 요인들의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상대적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8>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검정

타당도	F1(Y)	R ²	F값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연구가설
실버관광지 적정성	체험적	.131	10.597	.000**	.143	3.394	.001**	채택
	사교적				.167	3.967	.000**	채택
	개인적				.001	.031	.975	불채택
	순회성				.026	.608	.543	불채택
	유익성				.278	6.611	.000**	채택
	편의성				.057	1.356	.176	불채택
장기체 재의사	기호성	.086	6.581	.000**	.042	1.004	.316	불채택
	체험적				.053	1.228	.220	불채택
	사교적				.156	3.621	.000**	채택
	개인적				-.046	-1.066	.287	불채택
	순회성				.099	2.298	.022*	채택
	유익성				.133	3.090	.002**	채택
실버산 업시설 필요성 인식	편의성	.195	16.994	.000**	.156	3.617	.000**	채택
	기호성				-.067	-1.554	.121	불채택
	체험적				.113	2.782	.006*	채택
	사교적				.279	6.898	.000**	채택
	개인적				.031	.761	.447	불채택
	순회성				.313	7.744	.000**	채택
실버산 업개발 시 이용의 사	유익성	.124	9.993	.000**	.030	.734	.463	불채택
	편의성				.013	.319	.750	불채택
	기호성				-.063	-1.562	.119	불채택
	체험적				.041	.968	.334	불채택
	사교적				.301	7.127	.000**	채택
	개인적				.025	.590	.556	불채택
실버-해 외관광 유치기 여도	순회성	.036	2.628	.011**	.114	2.692	.007**	채택
	유익성				.128	3.042	.002**	채택
	편의성				.011	.250	.802	불채택
	기호성				.048	1.140	.255	불채택
	체험적				.096	2.171	.030*	채택
	사교적				.013	.301	.763	불채택

T	F1(Y)	R ²	F 값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t 값	유의 확률	연구가설
국가설 비 산업 지 원 정 책	체험적	.141	11.543	.000**	-.144	-3.437	.001**	채택
	사교적				.219	5.234	.000**	채택
	개인적				.010	.232	.816	불채택
	순회성				-.244	-5.841	.000**	채택
	유익성				-.017	-.416	.677	불채택
	편의성				.111	2.667	.008*	채택
	기호성				.015	.357	.721	불채택
국가설 비 인구 취업고 용 정책	체험적	.075	5.676	.000**	.080	1.852	.065	불채택
	사교적				.007	.173	.863	불채택
	개인적				.020	.471	.638	불채택
	순회성				.099	2.279	.023*	채택
	유익성				.009	.210	.834	불채택
	편의성				.240	5.532	.000**	채택
	기호성				-.020	-.468	.640	불채택
실버관 련 산업 개발타 당도	체험적	.114	9.072	.000**	-.029	-.678	.498	불채택
	사교적				.003	.070	.944	불채택
	개인적				.123	2.910	.001**	채택
	순회성				.069	1.633	.103	불채택
	유익성				-.067	-1.587	.113	불채택
	편의성				.290	6.840	.000**	채택
	기호성				-.068	-1.613	.107	불채택

*P<0.05, **P<0.01.

넷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인 실버산업 개발 시 이용의사는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사교적 여가활동 인식요인, 순회성 여가활동 인식요인,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실버산업 개발 시 이용의사에 대한 타당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은 사교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인 등산, 일상 레크리에이션, 사교활동, 건강 활동에 따른 타당도의 확보가 더 중요시 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인 실버 해외 관광 유치기여도는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체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체험적 여가활

동 인식요인 및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제로 경주지역에 해외 실버 관광 기여도에 대한 타당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이 요인들의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상대적 중요성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인 역사문화유적관광 및 생태관광 선호도 요인의 확보가 실버 해외 관광 유치기여도에 따른 타당도에 있어서는 더 중요시되고 실버관광객에게 더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실버관광 타당도변수인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은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체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사교성 여가활동 인식요인, 순회성 여가활동 인식요인, 편의성 여가활동 인식요인들이 국가의 실버산업지원정책의 타당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순회성(등산, 사교, 건강)과 체험적(체험관광지, 스포츠 등 동적인 관광, 유홍 오락적 관광) 여가활동이 실제로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에 대한 타당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곱째 실버관광 타당도변수인 국가 실버 인구의 취업 고용정책은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편의성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순회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국가 실버 인구의 취업 고용정책에 대한 타당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편의성(콘도 민박형 관광, 여행사 관광) 여가활동이 실제로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에 대한 타당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끝으로 실버관광 여덟째 타당도변수인 실버 관련 산업개발 타당도는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편의성 여가활동 인식요인과 개인적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편의성(콘도 민박형 관광, 여행사 관광)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제로 실버 관련 산업개발 타당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실버관광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 중 체험적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실버관광지 적정성,

실버산업 시설 필요성 인식, 실버관광 활성화에 의한 해외관광유치 기여도,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 타당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사교적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실버관광지 적정성, 장기 체재 의사, 실버산업 시설 필요성 인식, 실버산업 개발 시 이용의사,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 타당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개인적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실버 관련 산업개발 타당도에만 높은 영향을 미치며, 순회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장기 체재 의사, 실버산업 시설 필요성 인식, 실버산업 개발 시 이용의사,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 국가실버인구취업고용정책의 타당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익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실버관광지 적정성, 장기 체재 의사, 실버산업 개발 시 이용의사, 실버관광 활성화에 의한 해외관광유치 기여도의 타당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편의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장기 체재 의사,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 국가실버인구취업고용정책, 실버 관련 산업개발 타당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기호성 여가활동 인식요인은 실버관광 타당도의 향상이 다소 높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각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 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

본 절에서는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 요인에 미치는 인식도를 포함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먼저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 중 실버관광지 적정성 변수에 대해서는 <표 4-9>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요인과 체재 및 타당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로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요인 모두가 타당도

와의 상호영향 및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9>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실버관광 타당도와의 상관관계

분류	실버관광지 재의사 적정성	장기체 업시설 필요성	실버산 업개발 이용의 사	실버관련 외국관광 유치기여 도	국가설 버산업 지원정 책	국가설 버인구 취업고 용정책	실버관 련산업 개발타 당도	
관광시설별활동	.054	.245**	.051	.075*	.076*	.050	.049	.202**
관광상품별활동	.108**	.074*	-.059	-.099	-.063	-.161**	-.071	-.178**
가족중심관광활동	.100*	-.012	-.078*	.044	-.190**	.262**	-.066	.070
휴양형관광활동	.191**	.276**	.024	.113**	.020	.070	.025	.048
체험쇼핑관광활동	.009	-.037	-.024	.201**	-.084*	.318**	-.080*	-.094*
관광시설별활동	.115	.000	.128	.048	.046	.134	.139	.000
관광상품별활동	.008	.048	.093	.014	.079	.000	.056	.000
가족중심관광활동	.012	.396	.040	.161	.000	.000	.071	.059
휴양형관광활동	.000	.000	.293	.006	.331	.059	.292	.144
체험쇼핑관광활동	.422	.205	.299	.000	.030	.000	.037	.018

*P<0.05, **P<0.01.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실버관광 타당도와의 영향 검정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4-10>과 같다.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중 관광 상품별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가족중심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휴양형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의해서 높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휴양형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제로 실버관광지 적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실버관광 타당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상대적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10> 실버 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검정

T	F2(X)	R ²	F값	유의 확률	표준화계수	t값	유의 확률	연구가설
실버 관광지 적정성	관광시설별활동	.061	6.447	.000 ^a	.054	1.233	.218	불채택
	관광상품별활동				.108	2.481	.013*	채택
	가족중심관광활동				.100	2.304	.022*	채택
	휴양형관광활동				.191	4.383	.000**	채택
장기체제 의사	체험쇼핑관광활동	.143	16.501	.000 ^a	.009	.202	.840	불채택
	관광시설별활동				.245	5.878	.000**	채택
	관광상품별활동				.074	1.787	.075	불채택
	가족중심관광활동				-.012	-.283	.778	불채택
실버산업 시설필요성	휴양형관광활동	.013	1.338	.247 ^a	.276	6.626	.000**	채택
	체험쇼핑관광활동				-.037	-.887	.376	불채택
	관광시설별활동				.051	1.139	.255	불채택
	관광상품별활동				-.059	-.1326	.185	불채택
실버산업 개발시 이용의사	가족중심관광활동	.071	7.494	.000 ^a	-.078	-1.748	.081	불채택
	휴양형관광활동				.024	.545	.586	불채택
	체험쇼핑관광활동				-.024	-.528	.597	불채택
	관광시설별활동				.075	1.721	.086	불채택
실버 - 외국 관광유치 기여도	관광상품별활동	.053	5.560	.000 ^a	-.099	-2.276	.023	채택
	가족중심관광활동				.044	1.023	.307	불채택
	휴양형관광활동				.113	2.614	.009**	채택
	체험쇼핑관광활동				.201	4.631	.000**	채택
국가실버 산업지원 정책	관광시설별활동	.203	25.153	.000 ^a	.076	1.728	.085	불채택
	관광상품별활동				-.063	-1.442	.150	불채택
	가족중심관광활동				-.190	-4.342	.000**	채택
	휴양형관광활동				.020	.446	.656	불채택
국가실버 인구취업 고용정책	체험쇼핑관광활동	.019	1.883	.096 ^a	-.084	-1.919	.056	불채택
	관광시설별활동				.050	1.234	.218	불채택
	관광상품별활동				-.161	-4.013	.000**	채택
	가족중심관광활동				.262	6.521	.000**	채택
실버관련 산업개발 타당도	휴양형관광활동	.089	9.601	.000 ^a	.070	1.744	.082	불채택
	체험쇼핑관광활동				.318	7.910	.000**	채택
	관광시설별활동				.049	1.092	.275	불채택
	관광상품별활동				-.071	-1.593	.112	불채택
인구취업 고용정책	가족중심관광활동	.019	1.883	.096 ^a	-.066	-1.476	.141	불채택
	휴양형관광활동				.025	.552	.581	불채택
	체험쇼핑관광활동				-.080	-1.789	.074	불채택
	관광시설별활동				.202	4.712	.000**	채택
산업개발 타당도	관광상품별활동	.089	9.601	.000 ^a	-.178	-4.140	.000**	채택
	가족중심관광활동				.070	1.628	.104	불채택
	휴양형관광활동				.048	1.107	.269	불채택
	체험쇼핑관광활동				-.094	-2.189	.029*	채택

*P<0.05, **P<0.01.

둘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인 실버관광객 경주지역 장기체재의사는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중 관광시설별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휴양형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의해서 높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인 실버산업 시설의 필요성 인식은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중 높은 영향을 나타낸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은 없었으나, 가족중심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인 실버산업 개발 시 이용의사는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중 휴양형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체험쇼핑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크게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실버산업 개발 시 이용의사에 대한 타당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은 체험쇼핑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인 컨벤션 관광지와 해양관광활동에 따른 타당도의 확보가 더 중요시 된다고 하겠다. 물론 관광 상품별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대해서도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인 실버 해외 관광 유치기여도는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중 가족중심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인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은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중 관광 상품별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가족중심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그리고 체험쇼핑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높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곱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인 국가 실버 인구의 취업 고용정책은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중 높은 영향을 나타낸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은 없었으나, 체험쇼핑 관광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덟째, 실버관광 타당도 변수인 실버 관련 산업개발 타당도는 충분한 수준에 있어서는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중 관광시설별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관광 상품별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그리고 체험쇼핑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광시설별, 관광 상품별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제로 실버 관련 산업개발 타당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실버관광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 중 관광시설별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은 장기체제의사, 실버 관련 산업개발 타당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관광 상품별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은 실버관광지 적정성, 실버산업개발 시 이용의사,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 및 실버관련 산업 개발 타당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가족중심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은 실버관광지 적정성, 실버관광 활성화에 의한 해외관광유치 기여도,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 타당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휴양형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은 실버관광지 적정성, 장기 체재 의사, 실버산업 개발 시 이용의사 타당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체험·쇼핑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은 실버산업 개발 시 이용의사,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 실버 관련 산업개발 타당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4)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의한 군집 분류 및 군집 특성

앞에서 19개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변수에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여 4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19개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변수에서 추출한 5개의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의 사후 검정을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먼저, 군집 분석은 군집결합의 기준을 워드법(Ward's method)¹¹⁾ 즉 모든 변수들에 대한 각 군집의 평균값에서 각 대상들에 대해 군집의 평균값과의 거리에 따라 먼저 나타난 군집들을 결합한 후 새로 형성될 군집에 대한 집단 내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정충영, 2003).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의사결정 시 가장 큰 문제인 군집수의 결정 문제를 워드 법에서는 각 단계별 계수(coefficient) 값의 변화가 갑작스레 일어나는 단계에서 군집수를 결정하게 된다¹²⁾.

본 논문에서는 위의 군집분석 기법에 의해 추출한 4개의 영향군집과 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의 결과에 따라 비교적 높은 유의수준에서 영향 군집들이 분류되고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표 4-11>에서 제시되어 있다.

첫째 군집인 가족·체험 군집은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에 있어서 '가족중심 관광요인'과 '체험·쇼핑 관광요인'에 대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인식요인에 대해서도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군집은 '가족중심 관광요인'과 '체험·쇼핑 관광요인'에 비중을 두고 실버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군집2 체험·휴양군집은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에 있어서 '휴양형 관광요인'과 '체험·쇼핑 관광요인'에 대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인식요인에 대해서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군집은 '휴양형 관광요인'과 '체험·쇼핑 관광요인'에 비중을 두고 실버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군집3 가족·상품군집은 전반적으로 모든 인식요인에 대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 상품별 요인'과 '가족중심 관광요인'에 대해서는 실버관광목적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요인으로 구성된 군집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군집4 관광시설·휴양군집은 실버관광객의 목적지 관광활동에 있어서 '관광시설별 관광요인'과 '휴양형 관광요인'에 대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11) 워드의 방법은 특히 군집 간 중복이 있는 경우 가장 유용한 군집방법

12) 계수 값이 크다는 것은 서로 다른 케이스들이 하나로 묶였다는 것을 의미

‘가족중심 관광요인’과 ‘체험·쇼핑 관광요인’에 대해서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군집은 ‘관광시설별 관광요인’과 휴양형 관광요인’에 비중을 두고 실버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군집분류에 의한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 평가군집의 추출과
각 요인간의 사후 검정¹³⁾

인식 요 인	군집분류				Scheffe 다중비교 검증					유의 확률
	가족·체험 (케이스수=161)	체험·휴양 (n=160)	가족·상품 (n=67)	관광시설 ·휴양 (n=112)	1~2	1~3	1~4	2~3	3~4	
관광 시설별	.3378667	.0551280	1.07187	.8347080	ns	ns	*	ns	ns	119.700 .000
관광 상품별	.1279375	.1469642	.4818622	.3142955	*	ns	ns	ns	ns	11.599 .000
가족중 심관광	.7502782	.2153936	.1964159	.6533211	ns	ns	ns	ns	ns	70.010 .000
휴양형 관광	.1096007	.4754288	1.00407	.790119 2	*	*	ns	ns	ns	33.866 .000
체험 쇼핑	.4900913	.5093649	1.07328	.3643466	ns	ns	ns	ns	ns	138.296

*P<0.05, **P<0.01.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영향 군집 간 타당도와의 차이가 타당도 변수의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과 유형에 의한 타당도의 차이 검정결과 경주지역을 방문한 실버관광객들은 주로 ‘관광시설별 관광요인’과 ‘가족중심 관광요인’에 큰 비중을 두고 ‘관광 상품별’과 ‘휴양형’ 및 ‘체험·쇼핑형’에 상대적으로 높은

13) 군집분류 및 요인간 셀 안의 수치 : 평균치,

n.s : 전략군집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 : 통계적으로 유의

타당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경주지역 관광목적지가 실버관광객의 타당도를 향상시켜 지속적인 실버관광객을 창출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시설의 차별화를 통해 실버관광객에게 다양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가족이 함께 관광하는 유형의 관광활동을 많이 개선하여 향후 체재 및 실버산업의 타당도에 기여해야 함을 보여준다.

5)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및 타당도의 독립성 차이검정

(1)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별 인구통계학적 독립성 차이검정

군집분석에서 분류된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2>와 같다. 먼저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클리디안 거리에 의한 동질성 요인을 그룹화 하는데 있다. 특히 본 절에서 X^2 검정을 이용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비교는 실버관광객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 활동 인식군집별 시장세분화 전략수립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군집별 체재 및 산업화의 독립성 차이검정은 <표 4-12>를 보면 각 군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군은 연령, 거주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계절에서 가장 유의한 X^2 값을 보였다.

제시되어진 4그룹의 군집에서 군집 I(가족·체험)은 161명, 군집 II(체험·휴양)는 160명, 군집 III(가족·상품)은 67명, 군집 IV(관광시설·휴양)는 112명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군집 I(가족·체험), II(체험·휴양), IV(관광시설·휴양)에서 인구통계적 특성별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2>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군집				
	I 가족체험 (n=161)	II 체험휴양 (n=160)	III 가족상품 (n=67)	IV 관광시설휴양 (n=112)	
	%	%	%	%	
성별	남성	29.4	33.8	13.0	23.8
	여성	34.6	30.5	13.8	21.2
연령*	55~59세	23.4	33.3	21.0	22.2
	60~64세	42.5	23.6	6.9	27.0
	65세 이상	37.8	47.3	2.7	12.2
학력	초등~중졸	32.9	32.4	6.4	28.3
	고졸	32.7	27.0	16.1	24.2
	대졸이상	30.2	40.5	19.0	10.3
거주지*	경상도	31.4	30.8	15.7	22.2
	서울수도	31.8	39.1	8.2	20.9
	전라도 및 기타	45.0	15.7	12.0	27.3
계절**	봄	28.0	26.1	20.5	25.5
	여름	30.3	44.2	13.0	12.5
	가을	35.1	30.6	12.2	22.1
	겨울	34.0	26.4	13.2	26.4
직업	주부	47.9	26.4	6.9	18.8
	자영업	36.7	28.9	24.4	10.0
	전문직	25.0	29.4	14.7	30.9
	사무직	44.5	20.2	18.0	17.3
여행목적	기타	19.3	38.0	13.4	29.4
	100만원 이하	30.9	32.0	12.7	24.3
	101~150만원	19.0	27.6	12.4	41.0
	151만원 이상	44.9	35.3	15.4	4.4
방문기간	휴양/휴식	27.5	35.1	18.2	19.2
	자연경관감상	41.4	28.6	4.3	25.7
	역사유적관람/기타	33.3	26.1	11.6	29.0
방문기간	당일	31.7	30.8	15.6	21.9
	숙박	33.1	34.3	9.0	23.5

*P<0.05, **P<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I(가족·체험)은 ‘여성’과 ‘60-64세 이상’, ‘초등 이하’와 ‘중졸 학력’, 거주지는 ‘전라도 및 기타지역’, 선호하는 계절은 ‘가을’이며, ‘주부’가 많은 군집으로 월수입이 ‘151만원 이상’이고 ‘자연경관 감상’을 주로 하는 ‘숙박을 선호’하는 군으로 나타났다. 군집 II(체험·휴양)는 ‘남성’, ‘65세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과 ‘서울 수도권’의 거주자로 ‘여름’을 선호하는 군으로 ‘기타직업(학생, 무직)’이며 월수입이 ‘151만원 이상’이고 ‘휴양·휴식’을 선호하고 ‘숙박’을 가장 많이 한 군으로 나타나 향후 군집 II(체험·휴양)에 대한 시장전략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군집 III(가족·상품)은 ‘휴양과 휴식’을 선호하는 당일관광객으로 ‘자영업’ 군이며 ‘봄’을 가장 선호하는 군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IV(관광시설·휴양)는 ‘60-64세’의 남성 위주의 군으로 ‘겨울’을 선호하는 ‘전문직’과 ‘기타(학생, 무직)’군으로 월수입이 ‘101-150만원’ 대의 군이었다.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군집 II(체험·휴양)과 군집 IV(관광시설·휴양)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각각 33.8%, 23.8%로 높은 지적율을 나타내고 있고, 군집 I(가족·체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34.6%의 지적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의 경우 군집 I(가족·체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60-64세’와 ‘65세 이상’에서 높은 분포를 보여줌으로써 실제 관광행동의 주축이 되는 ‘60세 이상’ 연령대가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서도 매우 큰 지적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거주지의 경우 군집 III(가족·상품)과 군집에 비해 군집 I(가족·체험)과 군집 II(체험·휴양)에서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군집 I(가족·체험)에서 ‘전라도 및 기타지역’이 45.0%로 ‘경상도’나 ‘서울지역’보다 약간 높은 분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채택된 표본의 편차가 심하여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의 경우 군집 I(가족·체험)은 ‘가을’에서 상당히 높은 분포(35.1%)를

보여주고 있으며 군집 II(체험·휴양)는 '여름(44.2%)', 군집 III(가족·상품)은 봄(20.5%), 그리고 군집 IV(관광시설·휴양)는 '겨울(26.4%)'에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의 경우 군집 I(가족·체험)은 '주부'가 47.9%, '사무직'이 44.5%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군집 II(체험·휴양)는 '기타(학생·무직)'가 38.0%, 군집 III(가족·상품)은 '자영업'이 24.4%로 나타났고 군집 IV(관광시설·휴양)는 '전문직(30.9%)'과 '기타(29.4)'가 높은 분포를 보여주었다.

월수입의 경우, '151만원 이상'이 군집 I(가족·체험), 군집 II(체험·휴양)에서 각각 44.9%, 35.3%였으며 군집 IV(관광시설·휴양)는 '101-150만원'이 41.0%로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 군집 III(가족·상품)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4-12>에 제시된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과 방문 형태적 특성 변수와의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방문목적과 체재기간 변수에 비교적 특징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여행목적의 경우는 군집 I(가족·체험)은 '자연경관 감상'이 41.4%, 군집 II(체험·휴양)와 군집 III(가족·상품)은 '휴양/휴식'이 각각 35.1%와 18.2%였으며 군집 IV는 '역사유적 관람'에서 29.0%를 보여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방문기간(체재일수)은 '당일'과 '숙박'으로만 구분하였는데 각 변수의 지적율은 군집 I(가족·체험)과 군집 II(체험·휴양)에서 '숙박'관광객이 각각 33.1%와 34.3%로 나타나 군집 III(가족·상품)과 군집 IV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별 타당도의 차이검정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의 군집별 체재 및 산업화의 독립성 차이검정은 <표 4-13>에서 제시되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군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군은 장기체재의사, 실버산업시설 필요성 인식, 실버산업 개발시 이용의사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국가 실버산업 지원 정책과 국

가설비 인구 취업 고용 정책에서 가장 유의한 χ^2 값을 보였다.

<표 4-13>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군집별 타당도의 특성

특성	군집				
	I 가족·체험 (n=161)	II 체험·휴양 (n=160)	III 가족·상품 (n=67)	IV 관광시설·휴양 (n=112)	
	%	%	%	%	
실버 관광지 적정성	부적당(매우부적당) 보통 약간적당(매우적당)	.7 28.8 35.0	.5 30.4 33.7	42.4 14.7 12.0	56.4 26.1 19.4
(전혀) 없다 장기체재의 사*	22.2 보통 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38.5 32.3 18.2	20.6 31.3 27.3	50.8 10.3 4.0	6.3 20.0 26.3
실버 산업 시설필요성 인식*	(전혀) 없다 보통 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0 40.8 27.4 32.3	.6 33.8 33.7 29.8	53.5 14.6 12.5 9.7	44.9 10.8 26.4 28.2
실버 산업 개발시 이용의사*	(전혀) 없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5 23.5 37.4 39.7	12.0 33.3 28.1 40.9	47.5 20.5 10.4 .8	40.0 22.7 24.1 9.6
실버-해외 관광유치기 여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43.9 37.4 18.1	.5 25.4 31.1 39.4	97.4 21.1 8.7 10.6	.9 9.6 22.8 31.9
국가실버산 업지원정책 **	(매우) 쉽다 보통 이다 조금 좋다 매우 좋다	.7 14.3 26.6 51.8	.5 24.4 34.3 38.2	19.0 23.5 18.9 1.6	79.8 37.8 20.1 8.4
국가실버인 구취업고용 정책**	(매우) 부족하다 보통 이다 조금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17.1 34.7 39.4 18.1	45.7 22.5 32.8 42.6	25.7 13.3 14.1 7.4	11.4 29.5 13.6 31.9
실버관련산 업개발타당 도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7 37.7 28.4 45.0	44.3 30.5 32.0 22.0	24.6 6.0 18.9 1.0	11.5 25.7 20.7 32.0

*P<0.05, **P<0.01.

각 군집의 분포는 군집 I(가족·체험)은 161명, 군집 II(체험·휴양)는 160명, 군집 III(가족·상품)은 67명, 군집 IV(관광시설·휴양)는 112명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군집 I(가족·체험), II(체험·휴양), IV(관광시설·휴양)에서 타당도 특성별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I(가족·체험)은 실버관광지 적정성과 국가실버인구고용정책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실버산업개발 시 이용의사와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군으로 나타났다. 군집 II(체험·휴양)는 역시 실버관광지 적정성과 장기체재의사에서 약간 긍정하는 군이며 실버산업개발 시 이용의사와 실버관광으로 해외관광유치에 기여도,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군집 III(가족·상품)은 8개 변수 모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군집 IV(관광시설·휴양)는 장기체재의사와 실버-해외여행유치기여도, 실버관련산업 개발 타당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군집분석의 결과를 각 변수별로 보면 실버관광지 적정성의 경우 군집 IV(관광시설·휴양)와 군집 III(가족·상품)에서 실버관광지로서는 부적당(매우 부적당하다와 부적당하다)하다가 56.4%와 42.4%로 보다 높은 지적율을 나타난 반면 군집 I(가족·체험)과 군집 II(체험·휴양)에서는 적당(약간적당하다와 매우적당하다)하다가 35.0%와 33.7%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실버관광객이 경주지역에 대해 실버관광지로 적당하다는 인식은 35%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재 의사의 경우 군집 III(가족·상품)이 장기체재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50.8% 지적율을 보인 군이며, 군집 I(가족·체험)은 장기 체재 의사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38.5%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율을 보였으며 군집 II(체험·휴양)는 장기 체재할 의사가 ‘약간 있다’에서 37.4%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율을 보이고 있으며 군집 IV(관광시설·휴양)는 경주지역에 체재 의사가 ‘매

우 많다'에서 38.6%의 지적율을 보였다. 이는 경주지역이 관광목적지이고 휴양에 대한 부분은 실버관광객의 38.6%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가족단위 관광 활동이나 체험 관광 활동을 위한 관광지로는 더욱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실버산업 시설 필요성 인식의 경우 군집 III(가족·상품)과 군집 IV(관광시설·휴양)에서 53.5%와 44.9%가 지역에 실버산업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주로 관광시설과 실버시설의 연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실버관광의 연계에 따른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군집 I(가족·체험)은 실버관광객의 40.8%가 실버산업 시설 필요성에 '보통'의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약간 필요하다'는 군과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이 59.7%로 실버관광객 중 가족·체험 성향을 지닌 군에서는 지역의 실버관광 시설의 필요성 또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집 II(체험·휴양)는 '보통이다'와 '약간 필요하다'가 33.8%와 33.7%의 지적율을 보여, 군집 II(체험·휴양) 성향의 실버관광객이 실버관광 시설의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버산업 개발 시 시설 이용의사의 경우 군집 III(가족·상품)과 군집 IV(관광시설·휴양)에서 47.5%와 40.0%가 지역에 실버산업 개발 시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였다. 앞에서 실버산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군집 I(가족·체험)은 시설의 이용의사가 '매우 많다(39.7%)'와 '약간 있다(37.4%)'를 포함해서 77.1%의 매우 높은 시설 이용의사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군집 II(체험·휴양)는 '매우 많다(40.9%)', '약간 있다(28.1%)'가 69.0%의 시설 이용의사를 나타내어 군집 I, II가 실버산업 개발 및 시설 이용의사에 매우 긍정적인 군으로 분류되었다.

실버산업-해외관광유치 기여도의 경우, 군집 III(가족·상품)은 97.4%로 매우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반면 군집 I(가족·체험)은 '보통이다(43.9%)', '조금 좋다(37.4%)', '매우 좋다(18.1%)'로 나타났으며 기여도가 '없다'와 '전혀

없다’는 1.2%였다. 군집 II(체험·휴양)는 ‘매우 좋다(39.4%)’와 ‘조금 좋다(31.1%)’가 70.5%의 지적율로 유치기여도를 평가하였으며, 군집 IV(관광시설·휴양)는 ‘매우 좋다(31.9%)’와 ‘조금 좋다(22.8%)’의 지적율을 보였다.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의 경우, 군집 IV(관광시설·휴양)는 ‘매우 부족하다’가 79.8%의 지적율을 보였으며, 군집 I(가족·체험)은 ‘충분하다(‘조금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가 51.8%의 지적율을 보였으며, 군집 II(체험·휴양)는 38.2%의 비교적 높은 지적율을 보였다. 군집 III(가족·상품)은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가 역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국가 실버인구 취업 고용정책의 경우, 군집 I(가족·체험)은 ‘약간 충분하다’와 ‘보통이다’가 39.4%와 34.7%의 지적율을 보였고, 군집 II(체험·휴양)는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지적율이 45.7%, 군집 III(가족·상품)은 ‘부족하다’가 25.7%로 나타났으며, 군집 IV(관광시설·휴양)는 ‘보통이다’가 29.5%의 지적율을 보여주었다.

실버관련산업 개발 타당도의 경우, 군집 I(가족·체험)은 ‘매우 타당하다’가 45.0%, ‘보통이다’가 37.7%로 82.7%의 높은 지적율을 보였다. 또 군집 II(체험·휴양)는 ‘타당하지 않다’가 44.3%의 지적율을 보였으며 군집 III(가족·상품)은 24.6%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앞에서와 특이하게 다른 것은 군집 IV(관광시설·휴양)에서 실버관련산업 개발 타당도에서 ‘매우 타당하다’가 32.0%, ‘약간 타당하다’에서 20.7%로 52.7%에서 실버관련산업 개발의 타당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우선 침체된 경주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주를 찾은 실버관광객의 인식도를 분석하고 각 해당 결정변수에 대한 영향도 평가를 통한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관광시장세분화에 의한 실버관광객의 관광목적지 평가변수의 군집별 특성에 따른 표적시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향후 관광목적지로서 경주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광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실버관광의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추출된 표본의 데이터 분석으로 통해 관광시장조사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분석 결과 도출된 영향도 평가결과 값과 관광시장 세분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버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립과정에 있어 평균에 의한 상대적인 중요도 평가지수를 각각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변수, 여가활동 인식변수, 타당도 인식변수로 나누어 분석한 값은 전반적인 방향성 정립에 중요한 결과 값이다. 따라서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변수에서 상대적 우선순위로는 당일관광 형태, 가족지향형 요양산업단지 기능, 축제행사 및 이벤트 관광지로서의 기능 등이 높은 지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여가활동 인식변수는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선호도, 체험 위주의 콘도, 민박형 관광 선호도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타당도 인식변수에는 실버산업 적극 지원정책 필요, 실버산업시설 필요성 인식 정도, 실버산업시설 개발 시 이용의사 정도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목적지 관광활동이 여전히 당일여행과 가족나들이 정도로 머물기를 원하고 있으며 축제, 이벤트 등의 일시적 관광활동을 선호하는 성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 여가활동 인식변수에는 실버관광객의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건강에 있는 것

으로 드러났으며 관광과 마찬가지로 일반 여가활동도 가족을 중시하고 오히려 체험 위주의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있어 실버관광정책 수립 시 주목되는 결과값으로 평가 된다. 타당도 인식변수의 분석에서는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함께 시설이 필요하고 이용의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버관광이 아직은 경주지역의 장기체재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해당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실버관광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버관광객 여가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요인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에서는 실버관광지 적정성에 대한 영향은 체험적, 사교적, 유익성의 여가활동 요인이 유의한 요인으로 연구가설이 채택되었고, 장기체재의사에 대한 영향은 사교적, 순회성, 유익성, 편의성 여가활동요인이, 실버산업시설 필요성 인식도에 대한 영향은 체험적, 사교적, 순회적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 실버산업 개발 시 이용의사에 대한 영향은 사교적, 순회성, 유익성 여가활동요인이, 실버관광활성화 시 해외관광유치기여도에 대한 영향은 체험적이고 유익한 여가활동이 권장되며,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에 대한 영향은 체험적, 사교적, 편의성 여가활동이 중요하며 국가실버인구취업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순회성, 편의성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실버관광의 전반적인 타당도에 대한 영향도 분석결과에서 개인적, 편의성 여가활동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실버관광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도 결과분석에서는 실버관광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관광 상품별 활동과 가족중심, 휴양형 관광활동이 크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버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외관광유치기여도에 대해서는 가족중심 관광활동,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에 대한 영향 정도는 관광 상품과 가족중심 관광활동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체재의사 및 국가실버인구취업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관광시설 및 휴양관광활동의 영향이 컸으며, 실버산업 개발 시 이용의

사는 5가지 요인의 전반에 걸쳐 특별히 유의한 결과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실버관광객 목적지 관광활동 인식요인에 의한 군집은 각각 가족·체험군집, 체험·휴양군집, 가족·상품군집, 관광시설·휴양군집으로 특징지을 수 있어 관광시장 세분화를 통한 표적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독립성 차이검증의 결과는 연령별, 거주지별, 계절별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 값으로 관광시장세분화에 의한 마케팅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군집 군과 체재 및 산업화 타당도 독립성 차이검증의 결과에서는 장기체재의사, 실버산업시설 필요성 인식, 실버사업개발 시 이용의사 검정통계량 X^2 값이 비교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실버산업지원정책, 국가 실버인구취업고용정책의 X^2 값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시장세분화 전략수립에 필요한 결과 값으로 도출되었다.

제 2 절 논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관광목적지로서의 경주지역이 실버관광객의 실질적인 욕구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재일수 증가 및 실버산업개발 등 경주지역의 관광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구체적인 관광시장조사분석이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괄적인 실버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논의 해봄과 동시에 경주지역에 실버관광산업개발의 타당성과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그 한계점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해 본다.

첫째, 실버관광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본 연구의 논제인 실버관광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은 지역사회의 일부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종합적인 실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실버관광객이 선호하는 여가활동과 목적지 관광활동을 중심으로 기반시설과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문화관광목적지에서의 실버관광에 대한 논의는 향후의 실버관광이 실버산업으로 활성화 되고 지역의 생산동력 산업화하기 위해서 실버관광과 관련한 제반 단체의 지속적 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과제라 할 것이다.

둘째, 실버관광객에 대한 제언으로 정책적·학문적 연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하는 실버관광객은 일반관광객에 비해 정적인 성향과 수동적인 관광목적지 활동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분석결과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적극적인 관광활동과 높은 구매력을 지닌 실버관광객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프라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버관광객이 휴양·휴식을 위한 관광을 선호하고 당일 관광과 가족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경주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분류한 경주지역 실버관광객의 목적지관광활동 인식요인을 4개의 군으로 분류, 군집

별로 목적지관광활동 인식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차이분석 하고 실버관광객 시장의 세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 결과 값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분석결과 드러난 표적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선결과제인 실버관광 및 관련 실버산업 인프라 구축에 응용하고 타당도 의사 결정변수의 상대적인 중요도의 우선순위 평가 값과 연계한 실버관광산업의 개발전략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이자 관광목적지인 경주가 고속철도시대의 도래, 역사문화유적도시의 본격적인 개발, 중·저준위 폐기장 선정 및 양성자 가속기 대상지역 선정 이후 어느 때 보다 관광개발 산업의 활성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때 경주지역의 최대 장점인 역사문화관광지와 최근 새로운 관광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버소비자인 실버관광객과의 결합한 실버관광 활성화 논의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게 요구되는 연구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며 직관에 의한 실버관광산업개발정책으로 실질적인 연관관광산업이 위축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 추론한 객관적인 인과분석에 의한 결과 값으로 토대로 하여 모집단인 실버관광객의 정확한 수요예측을 함으로서 최적의 합리적인 실버관광산업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접근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부딪치는 한계점은 현실적으로 최근에 실버 계층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서 그에 파생되는 사회적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할 시간적 한계와 여건미비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는 본 연구의 실버관련 제 개념에 관한 이론 정립 및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데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추후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 국내외 선행연구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개념적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연구의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 단순히 경주를 방문한 실버관광객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실버관광 및 관련 산업에 내재된 근본문제 규명에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진행할 시에는 현재 경주에 있는 실버

의료 시설을 이용한 원주민이 최소 7일 이상의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시도한 직접적인 연구는 앞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실버관광시장의 욕구 즉, 인식도를 파악하여 관광마케팅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일차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이다. 물론 이러한 일차적인 연구가 경주지역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목적지로서 충분히 실버관광객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공급적 차원에서의 이차적인 대응연구가 보완되지 못한 아쉬움이 본 연구에서도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경주지역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경주실버관광 활성화에 기여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미희 · 김성일(1998).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한국임학회지』, 87(4): 620-630.
- 강신겸 · 김현주(1999).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 강양석 · 이우종(2004). 『2020 경주도시기본계획』. 경주시청.
- 강인원 · 고호석(2005). 문화관광축제 참가업체의 서비스 특성 비교 분석: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와 진도 “영등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9(1): 155-174.
- 강인원(2006).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발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마케팅과 학연구』, 16(4): 53-71.
- 경주시(2006a). 『제1차경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년도)』. 경주시청.
- _____ (2006b).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경주시청.
- 고동완 · 김봉원 · 김유일(1994). 온천관광지의 목적지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생명자원과학연구』, 1(2): 25-36.
- 고영종(2003). 관광개발의 영향과 관광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 3: 705-731.
- 고정민 · 정연승(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 고정자(2005). 노인과 실버산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30: 407-432.
- 고재용 · 서진우 · 임영숙(2005). 지역축제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기초한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2004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8: 32-46.
- 고호석(2005a). 지역문화축제 관광객의 선택인식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경주 신라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7(1): 101-119.
- _____ (2005b). 경주 신라문화제 참여동기와 추구편익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0(2): 101-119.

- 곽재용(2005). 개인가치가 관광지 선호인식과 과시, 합리적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관광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재용 · 하정선(2006). 관광지 선호속성 세분화에 따른 노인관광자의 관광특성에 관한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51: 39-56.
- 권오정(2005). 예비노인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경향: 서울과 수도권의 50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2): 21-30.
- 김규호(2001).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5(1): 253-270.
- _____ (2003). 문화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경주지역에 대한 애드-혹 소득승수 추정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6(3): 53-72.
- 김대경(1998). 21세기 제주지역 실버서비스산업의 정책진흥방안. 『제주관광대학 논문집』, 4: 180-214.
- 김대년 · 권오정(2005). 노인요양시설 입주 의사가 있는 한국 노년층의 노후 전망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선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1(1): 85-96.
- 김상현(1997). 노인소비자 시장의 특성과 실버마케팅 전략. 『한국경상학회지』, 12: 97-118.
- 김성섭 · 최상수 · 전혜진(2004). 관여도 개념을 이용한 지방축제 참가자 시장 세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대학회지』, 16(2): 217-234.
- 김연옥(1992). 퇴직준비프로그램개발을 위한 퇴직예정자의 욕구조사. 『한국사회복지학』, 20(9): 81-103.
- 김용만 · 하문기(2006). 실버타운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마케팅과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1: 407-431.
- 김일용 · 고호석(2004). 2003 엑스포 방문객 이미지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관광연구저널』, 18(2): 17-29.
- 김제안 · 채종훈(2005). 고령화 사회가 지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산업경제연구』, 18-1: 213-230

- 김지인(2002). 실버넷 운동본부. 『정보과학회지』, 20(1): 40-41.
- 김진탁(1997). 도시노인의 여가활동 성향과 관광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지 논문집』, 9(1): 81-122.
- 김태희 · 서은(2005). 노인 소비자의 경제적 독립성이 외식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15(4): 475-482.
- 김 현(2003). 복지관광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관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본연구』, 2003-23.
- 김현주 외(1992). 노인복지의 시설과 현황. 『이화행정』, 2: 63-79.
- 노용호 · 임채관(2006). 생태관광자 만족과 행동의도.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21(4): 175-201.
- 문현상 · 정우진 · 김유경 · 김동배(1996).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6-05.
- 문화관광부(2004). 『관광진흥5개년계획(2004-2008)』.
- _____ (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박근수(1998). 한국관광산업에서의 노인시장: 탐색적 연구. 『관광개발논총』, 8: 263-283.
- 박상무(2003). 제3섹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천(2005). 일본의 실버산업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친화 산업의 정책 대안: 노인 요양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 모색. 『노인복지연구』, 28: 103-142.
- 박명순(2006). 실버타운 수요자 분석을 통한 개발모델과 마케팅 전략수립에 관한 일고.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5: 92-103.
- 박은주 · 오세규(2003). 도시형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2): 111-114.
- 박진영 · 윤세환 · 김장하(2006). 관광객 행동의 이해 서울: 갈채.
- 박진희 · 김미경 · 이희찬(2004).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개인적 특성변수가 관광개발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19(2): 73-93.
- 박현숙(2005). 경주시 공모 2005 혁신제안집. 경주시청.

- 변재관(2002). 고령화대책기본법 제정 검토 및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4).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전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우희 · 노정철 · 김기태(2005). 고속철도시대의 경주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루트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9(1): 69-87.
- 변우희(1992). 수도권 관광 · 여가산업의 발전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1). 경주세계 문화엑스포의 관광영향도 평가 및 비교분석. 『관광 · 레저연구』, 13(1): 23-41.
- 법제처(20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_____ (2006).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_____ (2007a).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 _____ (2007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 보건복지부(2007). 『노인복지사업지침』. 내부자료.
- 서 강(2000). 재가 요보호장애인고령자에 대한 CBR사업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5). 무녀도 연계 유적관광코스 개발. 『경주시 공모 2005 혁신제안』. 매일신문.
- 서태양(1998).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10: 135-167.
- 서태양 · 김동기(1999).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방문객에 대한 이미지 분석. 『관광 · 호텔경영연구』, 1(1): 126-137.
- 서태양 · 주선희(2002). 내, 외국인 관광객의 기념품 구매인식에 재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주지역 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17(1): 15-33.
- 손락조(2004). 고속철도시대의 경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 관광루트 개발 전략. 경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영필(2005).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손해식 · 조명환 · 이정실 · 박미정(2004). 이벤트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 세분화 및 그 영향요인: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8(2): 25-42.

- 신정식(2004). 복지관광증진을 위한 관광사업의 전략적 발전방안. 『복지행정논총』, 14(2): 154-174.
- 신주영(2002). 실버소비자의 여가태도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호텔경영연구』, 2(3): 132-149.
- 안종윤(1997). 관광정책론. 서울: 박영사.
- 엄수원 · 임구원(2006). 한국의 고령사회 대비에 따른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연구. 『부동산 학보』, 28: 261-277.
- 오경석 · 서미경(1996). 노인종합복지타운의 모형개발-노인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정책연구자료』, 96-01.
- 오영석 · 이곤수(2005).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경주시 6개 권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9(4): 239-258.
- 오은진(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환경의 변화. 『건축』, 11: 22-24.
- 오정학 · 허상현 · 오휘영(2002). 이벤트 관광객의 만족요인 연구: 경주 벚꽃마라톤축제를 사례로. 『관광 · 레저연구』, 14(1): 203-216.
- 와타나베 카츠도시(2005). 주식회사 일본 Care Supply 개요, Nippon Care Supply, 『저 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세미나 자료』.
- 원웅희(2000).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과제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rach』, 14: 161-181.
- _____(2002). 『실버텔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서울: 백산출판사.
- 유문무(2006). 일본의 실버산업과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의 전망과 과제. 『아시아연구』, 8(2): 85-111.
- 유봉노 · 이동철(1999). 우리나라 실버마케팅을 위한 시장수요 조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 13-176.
- 윤정득 · 이창석(2005). 실버산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4: 147-161.
- 윤현숙 · 이미진(2006).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사회

- 복지학』, 58(4): 197-217.
- 의성균(2007).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계획-정부지원사업계획서』. 의성군청.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곤수 · 이태종 · 송건섭(2005). 지역축제 만족도의 평가 모형 개발: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005(1): 321-346.
- 이금룡(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모색. 『노인복지연구』, 26: 143-164.
- 이금룡 · 홍성태 · 이윤경(200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분집단별 노후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215-237.
- 이성환(2005).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정책방안. 『사회과학연구』, 26: 1-22.
- 이원태 외(2004).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기본계획』.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문화관광부 · 경상북도 · 경주시.
- 이연정 · 최수근(2004). 경주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기호도 조사연구. 『외식경영연구』, 7(1): 157-174.
- 이영경(2001). 역사관광도시에 대한 관광객과 거주자의 경관평가: 경주시 경관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16(2): 243-256.
- 이의열(2006).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버타운의 민간기업 사업진출방안. 『건축』, 50: 57-60.
- 이의훈 · 신주영(2004). 라이프스타일을 통한 실버시장 세분화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4(2): 1-20.
- 이인수(2000). 『노년기 주거환경과 실버산업』. 서울: 도서출판 하우.
- _____ (2005).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서울: 일진사.
- 이인수 · 김미주 · 신은영(2004). 『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서울: 대왕사.
- 이준혁(2001). 축제방문객의 이미지분석: 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6(1): 201-215.
- _____ (2006). 관광유람선 고객의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마케팅과학연구』, 16(1):

73-91.

- 이재모(2005). 대구시 노인복지현황과 정책과제. 『복지행정논총』, 15(1): 11-26.
- 이지숙(2003). 대전시 거주노인이 선호하는 거주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6): 61-68.
- 이충기 · 김동기(2001). 내, 외국인간 축제참여동기 분석: 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6(1): 257-271.
- 이현기 · 김진욱(2001). 경기도 실버산업의 시장규모 전망. 『소비문화연구』, 4(1): 127-146.
- 이현정(2006). 싱가포르의 노인주거복지정책 및 노인주택 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2(11): 135-142.
- 이혜원(1999). 『노인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 장석인(2005). 산업적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미래와 발전전략. 산업연구소.
- 장인협 · 최성재(199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명숙(2003). 경주지역 문화유산 관광상품개발 방안 연구. 『관광연구』, 19: 269-289.
- 전미영 · 윤은자 · 류은정(2001). 중년기 성인과 노인의 피로와 대처유형.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2): 387-397.
- 전채근(200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방안. 『노인복지연구』, 16(1): 129-148.
- _____ (2003). 고령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20(0): 157-178.
- 정경희(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8-04.
- 정길상(2006).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7(3): 385-394.
- 정두채 · 김성조 · 김동철 · 강태건 · 윤상현(2000). 『2000년도 보건관광사업(health Tour to Korea) 추진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병웅(1998). 주민의 관광태도와 환경보건의식에 관한 연구. 『도립강원전문대학학술논문

- 집(창간호)』. 91-100.
- 정지원(2004). 경주 술과 떡 잔치 참가자의 만족, 불만족과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여행학회*. 『여행학연구』, 20: 5-29.
- 정충영(2003).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 정 현(2002). 도시개발을 위한 경주시의 관광진흥, 촉진방안. 『영남지역발전연구 세미나』, 29: 95-116.
- 조현호(2001). 『여가론』. 서울: 대왕사.
- 지은정(2006).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한국사회복지학』, 58(3): 135-168.
- 통계청(2005). 『고령자 통계』. 정부정책자료.
- _____ (2006). 『장래인구특별추계, 주민등록인구현황』. 정부정책자료.
- 카나자와 토미오(2005). 고령자주택 sun city의 운영관리실태 및 전망. (주)하프센츄리모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미나 자료』.
- 하영수(2003).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에 관한 연구: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11(2): 365-394.
- 하동현(2006). 호텔산업에서의 소외감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5(1): 81-101.
- 하동현·변우희·조문식(2006). 『관광학원론』. 서울: 한울출판사.
- 하성호·이경희(1992). 한국형 실버타운 모형의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2(2): 261-264.
- 한국관광공사(2006). 『국민여행실태조사』.
- 한국관광공사(2002). 『2002 방한 외래객 추이분석』.
- _____ (2003). 『한국관광통계연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고령친화 용품산업과 요양산업의 동반성장 과제』. 정책세미나 자료.
- 한상훈(2006). 경주실버타운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경주시청.
- 한희경·오덕성(1999). 실버타운 시설계획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 논문집 계획계』, 15(12): 13-22.
- 허준수(2006). 도시지역 미취업 노인들의 취업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291-318.
- 홍연숙(2006). 실버타운 입주의도 예측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3): 313-340.
- 황동원(2005). 고령화시대, 이런 산업이 뜬다. 현대경제연구원.
- 황은경 · 문수영(2006). 우리나라 노인주택 편의시설 실태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6(1): 5-8.
- 황태수(2002). 『노인복지와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 19: 240-276.
- WTO/FTA 농업대책팀(2005).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안)』. 경상북도.

2. 국외 문헌

- Amo, L., Lopez, P. & Martn, J.(2006). Nature-based tourism as a form of predation risk affects body condition and health state of *Podarcis muralis* lizards. *Biological Conservation*, 131(3): 402-409.
- Alipour, H.(1996). Tourism Development within Planning Paradigms : The Case of Turkey. *Tourism Management*, 17(5): 367-378.
- Andreu, L., Kozak, M., Anci, N., Cifter, N.(2005). Market segmentation by motivations to Travel : British Tourists Visiting Turkey.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19(1): 1-14.
- Ap, J.(2001). Tourists' Perceptions of their level of contact with host residents. *Pacific Tourism Review*, 5(1-2): 51-58.
- Carrera, P. M. & Bridges, J. F. P.(2006). Globalization and healthcare: understanding health and medical tourism. *Expert Review of*

- Pharmacoconomics and Outcomes Research*, 6(4): 447-454.
- Chen J. S. & Hsu. C. H. C.(2001). Developing and Validating a Riverboat Gaming Impact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2): 459-476.
- Cho, V.(2003).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approaches to tourist forecasting. *Tourism Management*, 24(3): 323-330.
- Chon G. J. K., McCleary K., Mena M. & Yoo J. H.(2005).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contributors to three major academic tourism journals: 1992-2001. *Tourism Management*, 26(5): 641-648.
- Cusack, D. & Dixon, L.(2006). Community-Based and Sustainability: Cases in Bocas del Toro Province, panama and Talamanca, costa Rica. *Journal of Sustainable Forestry*, 22(1-2): 157-182.
- Davis, W. M. & Shipilov, A. V.(2005). A Comparison of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 Two Post-Communist Countries: The Cases of Hungaryand Ukraine.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7(1): 67-94.
- Digiovanna & Augustine G.(1994). Human Aging, New York : McGraw-Hill.
- Ferrari, S., Adamo, G. E.(2006). Event Marketing and Destination Image: Residents' Perceptions. *Lsa Publication*, 92: 25-54.
- Getz D. & Calsen J.(2005). Family Business In Tourism State of the Ar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1): 237-258.
- Goossens, C.(2000). Tourism information and pleasure Motiv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2): 301-321.
- Greco, A. J.(1988). Insights on Perceived Importance of Information Sources for Vacation Decisions Among the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Special Conference Series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5: 61-71.
- Hanink, D. M., & Stutts, M.(2002). Spatial demand for national battlefield

- Park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3): 707-719.
- Herrmann, A., & Huber, F.(2000). Value-oriented brand positioning. *International Review of Retail Distribution and Consumer Research*, 10(1): 95-112.
- Galloway(2002). Psychographic segmentation of park visitor markets: evidence for the utility of sensation seeking. *Tourism Management*, 23(6): 581-596.
- Iwasaki Y., & Mannell R. C.(1999). Situational and Personality Influences on Intrinsically Motivated Leisure Behavior: Interaction Effects and Cognitve Processes. *Leisure Sciences*, 21(4): 287-306.
- Jang, S. C., Morrison A. M.& O'Leary J. T.(2002). Benefit Segmentation of Japanese Pleasure Travelers to The USA and Canada: Selecting Target Markets based on the Profitability and risk of individual market segments. *Tourism Management*, 23(4): 367-378.
- Kardes & Frank R.(1999). Consumer behavior and managerial decision making. Reading, Mass. : Addison-Wesley.
- Kertzer, Guest, D. I., Blau & Series, Z, S.(1986). Current perspectives on aging and the life cycle(2). London : Jai press.
- Kim, S. H.(1990). ATM Resistant Elderly Consumers: A Diffusion Theory Perspective, Southern Marketing Association Conference.
- Kuo N. W., Hsiao T. Y., & Lan C. F.(2005). Tourism management and industrial ecology: a case study of food service in Taiwan. *Tourism Management*, 26(5): 503-508.
- Kuvan Y. & Akan P.(2005). Residents' attitudes toward general and forest-related impacts of tourism: the case of Belek, Antalya. *Tourism Management*, 26(5): 691-706.

- Lahey, M(1999). Privatization and the Future of Leisure Services. *Journal of Leisurability-Ontario*, 26(4): 19–26.
- Lee, C. K., Lee, Y. K., & Lee, B. (2005). Korea's destination image formed by the 2002 world cup.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4): 839–858.
- Markides, K. S., & Martin, M.(1979). A Casu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4: 86–93.
- March R., & Woodside A. G.(2005). Testing theory of planned versus realized tourism behavior,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4): 905–924.
- McIntosh A. J., & Thyne M. A.(2005). Understanding Tourist Behavior ueinf Means-End Chain Theor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1): 259–262.
- McKercher, B., Pamela, S. Y. Ho & Cros, H. D.(2005).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and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Tourism Management*, 26(5): 539–548.
- Mok C., & Iverson T.(2000). Expenditure Based Segmentation: Taiwanese tourists to Guam. *Tourism Management*, 21: 299–305.
- Mon, A.(1979). Accountability Criteria and Policy Strategies in Direct Service Provision for the Aged. Brookdale Professor of Gerontology, School of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10027: 147–158.
- Moshin, A.(2005). Tourist attitudes and destination marketing—the case of Australia's Northern Territory and Malaysia. *Tourism Management*, 26(5): 723–732.
- Nicolau J. L. & Mas F. J.(2005). Stochastic Modeling: A Three-stage Tourist Choice Proces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1): 49–69.
- Page, S. J., Bentley T. & Walker L.(2005). Tourist Safety in new Zealand and Scot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1): 150–166.
- Park. K. S.(1997). Understanding the social network structure of Korean older

adults tourist behavior: A Preiminary step in tourism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tate College.

Pearce P. L. & Lee U. I.(2005). Developing the Travel Career Approach to Tourist Motiv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4): 226-237.

Perez F. M. D., Cejas M. B., & Gonzalez J. A. A.(2005). The segmentation of canary island tourism markets by expenditure: implications for tourism policy. *Tourism Management*, 24(5): 323-330.

Pina I. P. & Delfa M. T.(2005). Rural tourism demand by type of accommodation. *Tourism Management*, 24(5): 951-959.

Plog, S.(1991). Golden ages & lost horizons. In S. Plog.(ED.). Leisure travel: Making it a growth market again. New York, NY: John Willey & Sons, Inc: 21-53.

Reynolds, Thomas, J., Olson, Jerry, C.(2001). Understanding consumer decision making: the means-end approach to marketing and advertising strategy. Mahwah, NJ: Lawrence Erlbaum.

Prideaux, Bruce, R., Kininmont, L. J.(1999). Tourism ad Heritage are not Strangers: A Study of Opportunities for Rural Heritage Museums to Maximize Tourism Visit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3): 299.

Sen, & Mayfield S.(2004). Accessible tourism: Transportation to and Accessibility of Historic Buildings and other Recreational Areas in the City of Galveston, Texas. *Public Works Management & Policy*, 8(4): 223-234.

Shimizu, & Hidetada(2001). Japanese frames of mind: cultural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rakaya E., & Woodside A. G.(2005). Building and testing theories of decision making by travellers. *Tourism Management*, 24(5): 815–832.
- Smith, A.(2005). The impact of sport events on city images. *Developing Cultural Tourism: Discussion Papers- Christel Dehaan Tourism And Travel Research Institute*, 4: 1471–1427.
- Turner, J. H.(1986). Determinants of urban residents' perceived tourism impacts: A study of the Williamsburg and Virginia Beach Areas, Unpublished master these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Blacksburg, YA.
- Weaver D. B.(2005). Comprehensive and Minimalist dimensions of eco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1): 439–788.
- Yoon Y. S., Gursoy, D., & Chen. J. S.(2001). Validating a tourism development theory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urism Management*, 22: 363–372.
- Zeppel. H.(1998). Indigenous tourism: 1997 Fulberight Symposium. *Annals of Tourism Management*, 19(1): 103–106.
- Zimmer, Z., Brayley, R. E., & Searle, M. S.(1995). Whether to go and where to go: Identification of important influences on seniors decisions to travel. *Journal of Travel Research*, 33(3): 3–10.

A Study on Silver Tourism Activation based on Tourism Recognition Analysis of the Tourist

- Focused in Gyeongju area -

Seo, Kang

Department of Tourism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Woo-Hee)

(Abstract)

The Gyeongju district,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possesses not only eternal resources for historic and cultural tourism, but also gifted resources for ecosystem natural tourism. However, it has fallen into a stagnated tourism site with gradually decreasing tourists due to lack of differentiated strategy aimed at rapidly changing tourism market, as described before. Now in case Gyeongju fails to efficiently confront the demands of the tourism market and not actively cope with the changing tourism market, there is a possibility it will fail as a tourism site for a certain period. Especially as tourism sites are rapidly moving to competitive locations such as Jeju Island or East Asia these days, the reality in Gyeongju is that the tourism site is gradually becoming stagnated as a result.

Therefore, this research selected Gyeongju as the sample subject as a new target market to revive stagnated Gyeongju with silver tourists, who are rising as the recent prospective potential tourism market under the belief that it is the best proposal to activate Gyeongju as a tourism site. This was a choice from a perspective to efficiently prepare for the demand of silver tourists, who are in tendency of increasing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in terms of national tourism policy. Moreover, this paper made a demonstrative approach under the assumption that Gyeongju has the potential as the highly differentiated tourism site that can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in terms of silver tourism market.

Furthermore, this paper executed a concrete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tourism market under the assumption that Gyeongju must directly contribute to activating tourism in Gyeongju such as increasing staying days in long term, develop silver industry, and correspond to the actual demand of silver tourists in the future, as a tourism site.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paper discusses strategic solutions to activate overall silver tourism, search for the validity and possibility of developing silver tourism industry, and then proposes the conclusions as following by judging that finding out this paper's limits is important.

First, to secure the validity of silver tourism, which is a theme of this paper with a proposal made in terms of silver tourism policy, establishing a strategy should be observed and considered at a political level to active general silver tourism, which is not possible by not only a partial effort made by the local community.

Second, to appropriately confront to silver tourists who have high purchasing power and active tourism activity in realty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paper, current infrastructure must change largely. Also, the discussions of whether

or not Gyeongju is the only city with high preference for 1-day family tourism and recreation · relaxation by silver tourists must be argued as a thesis of important researches to be made in the future.

Third, discussion for activating silver tourism by combining silver tourists, who are silver consumers who are rising as the new tourism class with historic and cultural tourism site of Gyeongju, which is its largest strength, must be made at a timely manner and considered as a proper research thesis. Thus, based on the values made by objective cause-and-effect analysis inferred by approaching this research, I believe a strategy to develop an optimum reasonable silver tourism industry can be established by forecasting accurate demand of silver tourists, the population.

부 록

실버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인식도 평가

실버관광 타당성 확보를 위한 관광객 인식도 평가

안녕하십니까?

경주를 찾으신 관광객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령인구의 여가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버관광객이신 귀하의 고견이 '경주지역 실버관광'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설문문항에 따라 경주지역 관광을 하시면서 귀하가 느끼신 소감과 실버관광 관련 문항을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은 경주관광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에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조사자 : 경주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박사과정 서 강
지도교수 : 경주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경영 전공교수 변우희

☞ 본 설문의 내용은 통계법 제7조에 따라 통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항에 대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가장 근접한 답을 하나만 골라 해당번호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관광활동 인식도 평가

1. 귀하는 경주가 역사문화 유적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2. 귀하는 경주가 역사유적지 관광이외에 골프 등 육상스포츠활동 등의 관광 여가활동의 기능이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3. 귀하는 경주지역이 오락유흥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4. 귀하는 경주지역이 온천, 소풍, 나들이 등 당일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5. 귀하는 경주지역이 장기 체재형 휴양리조트단지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6. 귀하는 경주지역이 가족지 향형 요양산업단지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7. 귀하는 경주지역이 노인들을 위한 휴양단지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8. 귀하는 경주지역이 회의, 전시기능을 위한 컨벤션관광지로서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9. 귀하는 경주지역이 해양관광활동(예, 수상스키, 요트 등)의 관광지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10. 귀하는 경주지역이 환경이나 생태관광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11. 귀하는 경주지역이 한방(보건) 및 의료관광지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12. 귀하는 경주지역이 전통문화 관광상품이 어느 정도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안되어 있다
- ② 안되어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되어있다
- ⑤ 매우 되어있다

13. 귀하는 경주지역이 은퇴 후 농장 활동 적정지역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있다
- ⑤ 매우 많다

14. 귀하는 경주지역의 각종 축제행사나 이벤트(예, 벚꽃축제, EXPO, 술과 떡
잔치)를 통한 관광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있다
- ⑤ 매우 많다

15. 귀하는 경주지역이 전통문화 교육관광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있다
- ⑤ 매우 많다

16. 귀하는 경주지역이 민박형 관광지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있다
- ⑤ 매우 많다

17. 귀하는 경주지역이 관광객이 쇼핑할 수 있는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있다
- ⑤ 매우 많다

18. 귀하는 경주지역이 친목활동단체를 위한 적정관광지로서의 어느 정도 발

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19. 귀하는 경주지역이 테마파크 등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여가활동 인식도 평가

1. 귀하는 새로운 체험관광지를 선호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2. 귀하는 동적인 관광(스포츠/해양체험 활동 등)을 선호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3. 귀하는 주제공원 등 유홍 오락적 관광을 선호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4. 귀하는 환경보존에 관심을 둔 생태관광을 선호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5. 귀하는 여행사를 통한 관광을 더 선호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6. 귀하는 자동차(자가차량, 렌트카 등) 여행을 선호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7. 귀하는 주로 혼자 여행하기를 좋아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8. 귀하는 평소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9. 귀하는 현지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콘도, 민박형 관광을 좋아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10. 귀하는 평소 사교 및 친목모임을 통한 관광 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많다 ⑤ 매우 많다

11. 귀하는 등산, 레저스포츠 등 일상외의 야외 레크리에이션활동을 좋아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12. 귀하는 평소 독서, 영화감사 등의 일상내의 레크리에이션활동을 좋아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13. 귀하는 평소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14. 귀하는 평소 쇼핑을 좋아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15. 귀하는 평소 새로운 문화,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16. 귀하는 평소 역사문화유적 관광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매우 많다

17. 귀하는 평소 식도락(음식을 찾아가는) 관광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많으십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많다 ⑤ 매우 관심이 많다

18. 귀하는 숙박관광 시 목적지에서의 야간유총활동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19. 귀하는 평소 규칙적인 운동이나 다이어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많다 ⑤ 매우 많다

20. 귀하는 차를 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관광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실버관광 타당도 평가

1. 경주지역을 실버관광지로 어느 정도 적정한 지역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당 ② 부적당 ③ 보통

④ 약간 적당

⑤ 매우 적당

2. 귀하는 경주에 장기간 머무르고 싶은 의사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3. 귀하는 현재 경주지역에 실버산업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4. 귀하는 만약 경주에 실버산업시설이 생긴다면 이용할 의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5. 귀하는 경주에 실버산업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관광유치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귀하는 최근 실버산업을 적극지원 하려는 국가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7. 귀하는 최근의 국가 실버인구의 취업 등 고용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충분 ⑤ 매우 충분하다

8. 귀하는 실버관련 산업이 개발이 필요한 미래의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만 연령)은?

- ① 55-59세 ② 60-64세 ③ 65-69세 ④ 75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4. 귀하의 거주지는?

- ① 대구·부산·경상권 ② 서울·경기·충청권 ③ 광주·전주·전라권
④ 강원권 ⑤ 기타(제주·울릉권)

5. 귀하가 여행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6. 귀하의 직업은(은퇴 전 포함)?

- ① 주부 ② 자영업 ③ 전문직 ④ 사무직
⑤ 서비스직 ⑥ 근로직 ⑦ 기타(무직 · 학생 등)

7. 귀하의 월수입은?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150만원 ③ 151-200만원 미만
④ 201-300만원 ⑤ 301만원 이상

8. 귀하의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 ① 휴양/휴식 ② 자연경관감상 ③ 역사유적관람
④ 레저스포츠 ⑤ 사업/회의

9. 귀하의 이번 방문의 기간은?

- ① 당일 ② 숙박 (밤 일)

10. 일반적으로 실버관광은 5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실버관광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